



창의와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 연구·현장 지원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이 동 욱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이동욱(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공동연구자 정선희(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의견 또는 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자체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목 차/CONTENTS】

제Ⅰ장 조사개요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 사회정서역량 관련 이론적 배경 3
- ◆ 측정 문항 7
- ◆ 조사 방식 10
- ◆ 연구 및 분석 방법 11
- ◆ 조사 연구 대상 12

제Ⅱ장 사회정서역량 수준

- ◆ 자기인식 영역 15
- ◆ 사회적 인식 영역 18
- ◆ 자기관리 영역 20
- ◆ 관계기술 영역 24
- ◆ 책임있는 의사결정 영역 26

제Ⅲ장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 ◆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비교분석 31
- ◆ 자기인식 영역 31
- ◆ 사회적 인식 영역 33
- ◆ 자기관리 영역 34
- ◆ 관계기술 영역 36
- ◆ 책임있는 의사결정 영역 37

제Ⅳ장 학년별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 ◆ 학년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41
- ◆ 자기인식 영역 41
- ◆ 사회적 인식 영역 47
- ◆ 자기관리 영역 50
- ◆ 관계기술 영역 58
- ◆ 책임있는 의사결정 영역 61

제V장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 개요	67
◆ 부모양육태도 영역	67
◆ 교사와의 관계 영역	72
◆ 친구관계 영역	73
◆ 학업열의 영역	76
◆ 삶의 만족도 영역	82

제VI장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비교분석	87
◆ 부모양육태도 영역	87
◆ 교사와의 관계 영역	90
◆ 친구관계 영역	91
◆ 학업열의 영역	92
◆ 삶의 만족도 영역	96

제VII장

학년별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 학년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101
◆ 부모양육태도 영역	101
◆ 교사와의 관계 영역	103
◆ 친구관계 영역	104
◆ 학업열의 영역	105
◆ 삶의 만족도 영역	108

제VIII장

심화 분석1: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사회정서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 서론	111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13
◆ 연구방법 및 내용	119
◆ 연구결과	122
◆ 결론 및 제언	128

제IX장
심화 분석2: 의사결정
나무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요인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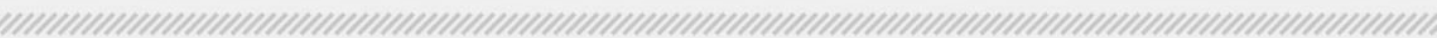
- ◆ 서론 135
-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36
- ◆ 연구방법 및 내용 139
- ◆ 연구결과 141
- ◆ 결론 및 제언 148

제X장
요약 및 제언

- ◆ 연구 개요 요약 155
- ◆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157

[부록]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지

- ◆ 설문지 171



【표 목차】

◆ [표 1-1] 사회정서역량 척도 영역 및 설문 문항	7
◆ [표 1-2] 사회정서역량 관련 변인 척도별 설문 문항	9
◆ [표 1-3] 연구 대상자 특성(N=1,716)	12
◆ [표 2-1] 자기인식(자기개념) 기술통계 및 신뢰도	15
◆ [표 2-2] 자기인식(자기개념) 빈도분석	16
◆ [표 2-3] 자기인식(정서지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16
◆ [표 2-4] 자기인식(정서지식) 빈도분석	17
◆ [표 2-5] 사회적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18
◆ [표 2-6] 사회적 인식 빈도분석	19
◆ [표 2-7] 자기관리(정서조절) 기술통계 및 신뢰도	20
◆ [표 2-8] 자기관리(정서조절) 빈도분석	21
◆ [표 2-9] 자기관리(목표관리) 기술통계 및 신뢰도	22
◆ [표 2-10] 자기관리(목표관리) 빈도분석	22
◆ [표 2-11] 자기관리(학교공부) 기술통계 및 신뢰도	23
◆ [표 2-12] 자기관리(학교공부) 빈도분석	24
◆ [표 2-13] 관계기술 기술통계 및 신뢰도	25
◆ [표 2-14] 관계기술 빈도분석	25
◆ [표 2-15] 책임있는 의사결정 기술통계 및 신뢰도	26
◆ [표 2-16] 책임있는 의사결정 빈도분석	27
◆ [표 3-1]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자기개념) 비교 분석	31
◆ [표 3-2]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정서지식) 비교 분석	32
◆ [표 3-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비교 분석	33
◆ [표 3-4]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정서조절) 비교 분석	34
◆ [표 3-5]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목표관리) 비교 분석	35
◆ [표 3-6]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학교공부) 비교 분석	36
◆ [표 3-7] 성별에 따른 관계기술 비교 분석	37
◆ [표 3-8] 성별에 따른 책임있는 의사결정 비교 분석	38
◆ [표 4-1]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비교	41
◆ [표 4-2]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1] 비교	42
◆ [표 4-3]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2] 비교	42

◆ [표 4-4]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3] 비교	43
◆ [표 4-5]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비교	44
◆ [표 4-6]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1] 비교	44
◆ [표 4-7]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2] 비교	45
◆ [표 4-8]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3] 비교	46
◆ [표 4-9]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4] 비교	46
◆ [표 4-10] 학년별 사회적 인식(전체) 비교	47
◆ [표 4-11]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1] 비교	48
◆ [표 4-12]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2] 비교	48
◆ [표 4-13]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3] 비교	49
◆ [표 4-14]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비교	50
◆ [표 4-15]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1] 비교	51
◆ [표 4-16]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2] 비교	51
◆ [표 4-17]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3] 비교	52
◆ [표 4-18]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4] 비교	52
◆ [표 4-19]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비교	53
◆ [표 4-20]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1] 비교	54
◆ [표 4-21]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2] 비교	54
◆ [표 4-22]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3] 비교	55
◆ [표 4-23]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비교	56
◆ [표 4-24]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1] 비교	56
◆ [표 4-25]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2] 비교	57
◆ [표 4-26]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3] 비교	58
◆ [표 4-27] 학년별 관계기술(전체) 비교	58
◆ [표 4-28] 학년별 관계기술_[문항_1] 비교	59
◆ [표 4-29] 학년별 관계기술_[문항_2] 비교	60
◆ [표 4-30] 학년별 관계기술_[문항_3] 비교	60
◆ [표 4-31]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비교	61
◆ [표 4-32]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1] 비교	62
◆ [표 4-33]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2] 비교	62
◆ [표 5-1]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기술통계 및 신뢰도	67
◆ [표 5-2]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빈도분석	68

◆ [표 5-3]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기술통계 및 신뢰도	69
◆ [표 5-4]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빈도분석	70
◆ [표 5-5]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기술통계 및 신뢰도	70
◆ [표 5-6]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빈도분석	71
◆ [표 5-7] 교사와의 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72
◆ [표 5-8] 교사와의 관계 빈도분석	73
◆ [표 5-9] 친구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74
◆ [표 5-10] 친구관계 빈도분석	75
◆ [표 5-11] 학업열의(헌신) 기술통계 및 신뢰도	76
◆ [표 5-12] 학업열의(헌신) 빈도분석	77
◆ [표 5-13] 학업열의(활기) 기술통계 및 신뢰도	78
◆ [표 5-14] 학업열의(활기) 빈도분석	78
◆ [표 5-15] 학업열의(효능감) 기술통계 및 신뢰도	79
◆ [표 5-16] 학업열의(효능감) 빈도분석	80
◆ [표 5-17] 학업열의(몰두) 기술통계 및 신뢰도	81
◆ [표 5-18] 학업열의(몰두) 빈도분석	81
◆ [표 5-19] 삶의 만족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82
◆ [표 5-20] 삶의 만족도 빈도분석	83
◆ [표 6-1]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비교 분석	87
◆ [표 6-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비교 분석	88
◆ [표 6-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비교 분석	89
◆ [표 6-4] 성별에 따른 교사와의 관계 비교 분석	90
◆ [표 6-5]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비교 분석	92
◆ [표 6-6]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헌신) 비교 분석	93
◆ [표 6-7]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활기) 비교 분석	94
◆ [표 6-8]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효능감) 비교 분석	95
◆ [표 6-9]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몰두) 비교 분석	95
◆ [표 6-10]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분석	97
◆ [표 7-1] 학년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비교	101
◆ [표 7-2] 학년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비교	102
◆ [표 7-3] 학년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비교	103
◆ [표 7-4] 학년별 교사와의 관계 비교	103



◆ [표 7-5] 학년별 친구관계 비교	104
◆ [표 7-6] 학년별 학업열의(헌신) 비교	105
◆ [표 7-7] 학년별 학업열의(활기) 비교	106
◆ [표 7-8] 학년별 학업열의(효능감) 비교	106
◆ [표 7-9] 학년별 학업열의(몰두) 비교	107
◆ [표 7-10] 학년별 삶의 만족도 비교	108
◆ [표 8-1]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N=1,716)	122
◆ [표 8-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N=1,716)	123
◆ [표 8-3]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확인	124
◆ [표 8-4]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검증	125
◆ [표 8-5] HTMT _{.85} 판별타당도 검증	125
◆ [표 8-6] HTMT _{추론} 판별타당도 검증	125
◆ [표 8-7] 구조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127
◆ [표 9-1]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N=1,716)	141
◆ [표 9-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N=1,716)	142
◆ [표 9-3] 위험도	142
◆ [표 9-4] 분류의 정확도	143
◆ [표 9-5] 독립변인 중요도	143
◆ [표 9-6] 노드에 대한 이득	145
◆ [표 9-7] 삶의 만족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48

【그림 목차】

◆ [그림 1-1] 유레카(Eureka) 설문 진행 화면	10
◆ [그림 2-1] 자기인식(자기개념) 평균	15
◆ [그림 2-2] 자기인식(자기개념) 비율	16
◆ [그림 2-3] 자기인식(정서지식) 평균	17
◆ [그림 2-4] 자기인식(정서지식) 비율	18
◆ [그림 2-5] 사회적 인식 평균	19
◆ [그림 2-6] 사회적 인식 비율	19
◆ [그림 2-7] 자기관리(정서조절) 평균	20
◆ [그림 2-8] 자기관리(정서조절) 비율	21
◆ [그림 2-9] 자기관리(목표관리) 평균	22
◆ [그림 2-10] 자기관리(목표관리) 비율	23
◆ [그림 2-11] 자기관리(학교공부) 평균	23
◆ [그림 2-12] 자기관리(학교공부) 비율	24
◆ [그림 2-13] 관계기술 평균	25
◆ [그림 2-14] 관계기술 비율	26
◆ [그림 2-15] 책임있는 의사결정 평균	26
◆ [그림 2-16] 책임있는 의사결정 비율	27
◆ [그림 3-1]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자기개념) 수준	31
◆ [그림 3-2]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정서지식) 수준	32
◆ [그림 3-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수준	33
◆ [그림 3-4]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정서조절) 수준	34
◆ [그림 3-5]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목표관리) 수준	35
◆ [그림 3-6]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학교공부) 수준	36
◆ [그림 3-7] 성별에 따른 관계기술 수준	37
◆ [그림 3-8] 성별에 따른 책임있는 의사결정 수준	38
◆ [그림 4-1]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평균	41
◆ [그림 4-2]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1] 평균	42
◆ [그림 4-3]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2] 평균	43
◆ [그림 4-4]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3] 평균	43
◆ [그림 4-5]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평균	44

◆ [그림 4-6]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1] 평균	45
◆ [그림 4-7]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2] 평균	45
◆ [그림 4-8]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3] 평균	46
◆ [그림 4-9]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4] 평균	47
◆ [그림 4-10] 학년별 사회적 인식(전체) 평균	47
◆ [그림 4-11]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1] 평균	48
◆ [그림 4-12]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2] 평균	49
◆ [그림 4-13]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3] 평균	49
◆ [그림 4-14]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평균	50
◆ [그림 4-15]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1] 평균	51
◆ [그림 4-16]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2] 평균	51
◆ [그림 4-17]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3] 평균	52
◆ [그림 4-18]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4] 평균	53
◆ [그림 4-19]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평균	53
◆ [그림 4-20]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1] 평균	54
◆ [그림 4-21]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2] 평균	55
◆ [그림 4-22]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3] 평균	55
◆ [그림 4-23]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평균	56
◆ [그림 4-24]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1] 평균	57
◆ [그림 4-25]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2] 평균	57
◆ [그림 4-26]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3] 평균	58
◆ [그림 4-27] 학년별 관계기술(전체) 평균	59
◆ [그림 4-28] 학년별 관계기술_[문항_1] 평균	59
◆ [그림 4-29] 학년별 관계기술_[문항_2] 평균	60
◆ [그림 4-30] 학년별 관계기술_[문항_3] 평균	61
◆ [그림 4-31]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평균	61
◆ [그림 4-32]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1] 평균	62
◆ [그림 4-33]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2] 평균	63
◆ [그림 5-1] 부모양육태도(따스함) 평균	68
◆ [그림 5-2]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비율	68
◆ [그림 5-3]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평균	69
◆ [그림 5-4]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비율	70

◆ [그림 5-5]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평균	71
◆ [그림 5-6]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비율	71
◆ [그림 5-7] 교사와의 관계 평균	72
◆ [그림 5-8] 교사와의 관계 비율	73
◆ [그림 5-9] 친구관계 평균	74
◆ [그림 5-10] 친구관계 비율	75
◆ [그림 5-11] 학업열의(헌신) 평균	76
◆ [그림 5-12] 학업열의(헌신) 비율	77
◆ [그림 5-13] 학업열의(활기) 평균	78
◆ [그림 5-14] 학업열의(활기) 비율	79
◆ [그림 5-15] 학업열의(효능감) 평균	79
◆ [그림 5-16] 학업열의(효능감) 비율	80
◆ [그림 5-17] 학업열의(몰두) 평균	81
◆ [그림 5-18] 학업열의(몰두) 비율	82
◆ [그림 5-19] 삶의 만족도 평균	83
◆ [그림 5-20] 삶의 만족도 비율	83
◆ [그림 6-1]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수준	88
◆ [그림 6-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수준	89
◆ [그림 6-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수준	90
◆ [그림 6-4] 성별에 따른 교사와의 관계 수준	91
◆ [그림 6-5]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수준	92
◆ [그림 6-6]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헌신) 수준	93
◆ [그림 6-7]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활기) 수준	94
◆ [그림 6-8]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효능감) 수준	95
◆ [그림 6-9]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몰두) 수준	96
◆ [그림 6-10]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수준	97
◆ [그림 7-1] 학년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평균	101
◆ [그림 7-2] 학년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평균	102
◆ [그림 7-3] 학년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평균	103
◆ [그림 7-4] 학년별 교사와의 관계 평균	104
◆ [그림 7-5] 학년별 친구관계 평균	104
◆ [그림 7-6] 학년별 학업열의(헌신) 평균	105



◆ [그림 7-7] 학년별 학업열의(활기) 평균	106
◆ [그림 7-8] 학년별 학업열의(효능감) 평균	107
◆ [그림 7-9] 학년별 학업열의(몰두) 평균	107
◆ [그림 7-10] 학년별 삶의 만족도 평균	108
◆ [그림 8-1] 연구 모델	119
◆ [그림 8-2] 구조모델과 관련한 연구가설 검증	128
◆ [그림 9-1] 연구 모델	138
◆ [그림 9-2]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결과	146



I

조사개요

제 I 장

조사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정신건강,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문제가 학교 사회에서 중요한 난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학업 성취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교육부, 2023a; 최은지 외, 2020:201-210; 임선아 외, 2022:167-170; 강지혜, 2022:33-41).
- 학교생활 부적응, 학업스트레스 심각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2022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 중, 우울감 경험률과 관련하여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전년 대비 증가(남 1.8%p ↑, 여 2.1%p ↑)하였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학생 32.3→36.0%, 여학생 45.6%→47.0% 수준으로 상승되었다고 보고되었다(질병관리청, 2023:5-8). 이러한 데이터는 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어,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과 사회·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교육부, 2023a).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서 자살이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청소년 사망자의 50.1%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되어, 이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데이터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 또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하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전체 학생 중 1.9%로 나타나,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며, 초등학교는 3.9%,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0.4%로 각각 증가하였다(교육부, 2023b). 특히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녕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푸른나무재단, 2023),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열의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2023b; 푸른나무재단, 2023).
- 교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학년도~2022학년도까지 4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9천163건으로 확인되었고,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c).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받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육 현장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교사들은 교육 활동보다는 생존을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이는 학생들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육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최선옥 외, 2016; 이명주, 2017; 정연홍 외, 2015; 교육부, 2023c).

- 그리고 최근 청소년의 학업열의 수준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95), 이러한 낮은 학업열의는 부모의 기대압박, 과도한 입시 경쟁 및 학업관련 스트레스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원 외, 2016:106-110; 이의빈 외, 2022; 장윤옥 외, 2017; 이현아 외, 2013:585-591).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적 성장 및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상담 지원,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총괄적으로 지원한다(교육부, 2023a).
- 최근의 학교 내의 사회·정서, 정신건강,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정서역량의 발달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사회정서 수준, 타인과의 관계성, 학업열의 및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Durlak et al., 2015; Elias et al., 2006; CASEL, 2020; Zins et al.,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학생들은 심리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경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이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의 사회정서역량이 자존감 형성,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감정 관리, 스트레스 해소, 충동 조절이 가능하도록 도우며,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 및 공감,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학습 동기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oleman, 1995; Elias et al., 2006; Bornstein et al., 2010; Zins et al., 2004; Durlak et al., 2015).
- 결론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 및 건강 지원,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업열의 문제는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2023a).
-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현 수준 파악 및 관련 변인(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심화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관계 탐색과 사회정서역량이 매개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및 관련 변인의 현 수준 확인과 심화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정서역량 관련 이론적 배경

❖ 사회정서역량의 정의

- 사회정서역량(Social Emotional Competence)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포함하고(CASEL, 2020; Merrell et al., 20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이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며, 삶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칭한다(Durlak et al., 2015). 또한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의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사회 및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Zins et al., 2004; CASEL, 2015).
-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정서학습을 기초로 하고 있는 데,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개인이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공감하며, 건설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을 배우는 학습과정을 의미한다(Elias et al., 2006; Resnik et al. 2003). 사회정서역량의 개념은 199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때까지 교육의 주요 초점은 주로 학업 성취에 맞추어져 있었으나, 학업 성취만으로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기 시작하였다(Zins et al., 2004). 따라서, SEL의 초기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감정 관리와 사회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교육학자 및 심리학자들은 SEL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하였다(Durlak et al., 2015). 1994년에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CASEL)이 설립되면서 SEL은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되기 시작하였으며, CASEL은 SEL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 현재 SEL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CASEL, 2020). SEL의 발전은 교육자, 연구자, 정책 결정자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사회정서역량의 구성 요소

■ 자기인식

- 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 신념, 강점 및 약점을 자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이는 개인이 본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식별하도록 돕는다(Goleman, 1995). 또한, 자기인식은 개인의 자아 개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한다(Durlak et al., 2015). 자기인식은 감정의 원인을 탐색하고,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

정을 관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Elias et al. 2006).

- 자기인식은 감정적인 성숙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자기인식은 개인의 강점 및 약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 및 질의 개선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oleman, 1995; 최은지 외, 2020:201-210; Bornstein et al., 2010; Biglan et al., 2004).

■ 자기관리

- 자기관리(Self-Management)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는 능력이며(CASEL, 2020), 이는 스트레스 관리, 충동 조절, 동기 부여, 목표 설정 및 달성 등의 기술을 포함한다(Zins et al., 2004). 또한 자기관리는 정서적 자기조절, 시간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심을 포함하며, 이는 개인이 학습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CASEL, 2020).
- 자기관리는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며(Durlak et al., 2015),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Goleman, 1995). 자기관리는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CASEL, 2020; 최은지 외, 2020:201-210).

■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은 타인의 감정, 욕구,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며(CASEL, 2020),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인식하는 데 중요하다(Zins et al., 2004). 사회적 인식은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능력을 포함하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과 다문화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매우 필요한 능력이다(CASEL, 2020; 박선녀, 2022:300).
- 사회적 인식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인식하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며(Durlak et al., 2015), 이를 통해 개인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Elias et al, 2006). 사회적 인식은 또한 개인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CASEL, 2020).

■ 관계 기술

- 관계 기술(Relationship Skills)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지칭한다(CASEL, 2020). 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력, 갈등 해결, 도움 요청과 같은 대인 관계 기술을 포함하며(Durlak et al., 2015), 관계 기술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는 팀워크, 리더십,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다(김지언, 2023:1627-1630; 김별아 외, 2021:165-169; CASEL, 2020).
- 관계 기술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며(Zins et al., 2004), 이를 통해 개인은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Elias et al., 2006). 그리고 관계 기술은 또한 개인이 갈등 상황에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CASEL, 2020; 김춘화 외, 2015:110-111; 김지언, 2023:1627-1630; 김별아 외, 2021:165-169).

■ 책임 있는 의사결정

- 책임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며(CASEL, 2020), 이는 문제 해결, 위험 평가, 결과 예측, 반성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Zins et al., 2004).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며, 이는 도덕적 판단, 윤리적 결단력, 그리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능력을 포함한다(CASEL, 2020).
-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개인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Durlak et al., 2015),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을 내포하고 있다(Elias et al., 2006). 따라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결정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CASEL, 2020).

❖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

■ 개인적 발달 측면

-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Goleman, 1995),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ASEL, 2020). 또한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Durlak et al., 2015).

- 개인의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를 강화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우며(Elias et al., 2006),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동기 부여와 전략을 제공하여, 보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Zins et al., 2004).

■ 학업 성취 측면

-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urlak et al.,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SEL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ASEL, 2020). 이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동기 부여를 지속하며,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Zins et al., 2004).
- SEL은 학생들이 협력 학습과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Durlak et al., 2015), 학생들은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며,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leman, 1995). 또한 이는 학생들이 서로의 강점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CASEL, 2020).

■ 사회적 관계 측면

- 사회정서역량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Durlak et al., 2015), 이는 개인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고, 건설적인 갈등 해결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Zins et al., 2004). 사회적 인식과 관계 기술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며(Elias et al., 2006), 이를 통해 개인은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Goleman, 1995). 또한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이 갈등 상황에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Durlak et al., 2015), 이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과 기대를 인식하고, 공감과 배려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CASEL, 2020).

측정 문항

- 학생 설문문항은 사회정서역량과 관련 변인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회정서역량 척도

- 【사회정서역량】 척도는 이정렬 외(2023)가 타당화한 도구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인식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사회적 인식에서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기관리에서는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등의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사회정서역량 척도 영역 및 설문 문항

하위 영역	설문 항목	문항수
자기인식 (자기개념)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자기인식 (정서지식)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4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사회적 인식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3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자기관리 (정서조절)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4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자기관리 (목표관리)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3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자기관리 (학교공부)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3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관계기술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3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책임있는 의사결정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2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 사회정서역량과의 관련 변인 척도

-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김태명 외(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KA)’를 활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은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문항이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 문항을 살펴보면,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교사와의 관계】** 척도는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연구문항을 활용하여 조사하였고, 이 문항들은 칭취, 밝은 호명, 인사, 칭찬, 앎, 공부 기대감 등을 평가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세부 문항을 알아보면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등의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친구관계】**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간공유, 고민상담, 이야기, 비밀공유, 도와줌, 친밀감, 관심, 관계성에 대한 총 8개의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세부적으로 구성 문항을 살펴보면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문항이며,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학업열의】**는 이자영 외(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부적인 문항 특징을 살펴보면, 각 문항은 학습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헌신 요인에서는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학습의 의미와 목적 인식, 도전 의식, 자아실현 등을 다루고 있다. 활기 요인에서는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등의 문항으로 공부 시 활력과 에너지, 수업참여 의욕을 측정하고 있다. 효능감 요인은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등의 문항을 통해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과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몰두 요인에서는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등의 문항으로 학습 시 몰입경험을 확인하고 있다.

표 1-2 사회정서역량 관련 변인 척도별 설문 문항

구분	설문 문항	문항수	출처
부모양육태도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5)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7)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8)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9)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 10)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시다. 11)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12)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시다.	12	김태명 외 (2017)
교사와의 관계	1)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2)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3)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4)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5)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6)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6	한국교육개발원 (2013)
친구관계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학업 열의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6	이자영 외 (2012)

구분	설문 문항	문항수	출처
삶의 만족도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조사 방식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는 학생 사회정서역량과 관련 변인 현 수준 및 영향관계 탐색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5일~14일 간 조사에서의 경북지역 소재의 5개교 중학생 청소년 1,71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1학년 667명, 2학년 494명, 3학년 555명이었으며, 해당 조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자료가 조사 및 수집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에 대한 문항,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칭취, 밝은 호명, 인사, 칭찬, 앞, 공부 기대감에 대한 연구문항, 친구관계에 대한 시간공유, 고민상담, 이야기, 비밀공유, 도와줌, 친밀감, 관심, 관계성에 대한 문항, 사회정서역량과 관련하여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측정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와 관련한 학업열의 조사척도와 이상, 상황, 삶, 중요한 것 등의 삶의 만족도의 조사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전문 사이트인 유레카(Eureka)를 통하여 조사 설문지를 작성 및 구성하여, 학생에게 설문조사 링크와 QR코드를 제공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림 1-1 유레카(Eureka) 설문 진행 화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수준 파악 및 이에 미치는 영향관계 확인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현 수준 파악 및 이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주로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장)에 의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책임연구자: 이동욱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

조사문의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054-840-2269 / leedu78@gyo6.net)

설문내용

다음은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선택해제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	매우 그렇다
--------	--------	--------	--------	--------	--------	--------

[문 4]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선택해제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	매우 그렇다
--------	--------	--------	--------	--------	--------	--------

[문 5]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선택해제

그렇지 않다	1 ○	2 ○	3 ○	4 ○	5 ○	매우 그렇다
--------	--------	--------	--------	--------	--------	--------

연구 및 분석 방법

-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통계 패키지 SPSS 28.0, Stata 16.0, SAS와 Smart-PLS 3.0을 활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 사회정서역량,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 변인과 관련하여 기술통계를 통해 관측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고, 특히 항목별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문항 및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문항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확인하여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 연구 변인의 항목별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 확인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시행하여,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또한 학년별 학생 집단 간의 평균 차이 확인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 후, 사후검정(Post-hoc)으로 Scheffe 검증을 행하였고, 만약에 자료가 이분산인 경우에는 Welch's ANOVA를 한 후, Games-Howell 검증을 행하였다.
- [심화 분석1]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 및 사회정서역량의 매개기능을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분포와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명변인, 피설명변인, 그리고 매개

변인의 자료 구조와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로, 연구 모델의 구조적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였다(신진권, 2018). 전체 측정모형의 평가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내부분산평창인자(VIF), 결정계수(R^2), 효과크기(f^2), 예측적합성(Q^2), 경로계수 및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탐색과 관련하여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수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배병렬, 2018; 신진권, 2018).

- [심화 분석2]에서는 의사결정나무모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다양한 독립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행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해석이 쉬운 모형을 제공하며,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최종후, 1998; 조현진 외, 2020; 김성희, 2003). 넷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별 및 학년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조사 연구 대상

- 본 연구대상자(N=1,716)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면, 1학년 667명 중 남자 337명, 여자 330명, 2학년 중 남자 262명, 여자 232명, 3학년 중 남자 272명, 여자 283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1,716명 중에서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1-3 연구 대상자 특성(N=1,716)

구분		N	%
1학년	남자	337	50.5%
	여자	330	49.5%
	소계	667	100.0%
2학년	남자	262	53.0%
	여자	232	47.0%
	소계	494	100.0%
3학년	남자	272	49.0%
	여자	283	51.0%
	소계	555	100.0%
전체		1,716	100.0%



Ⅱ

사회정서역량 수준

제 II 장

사회정서역량 수준

자기인식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자기인식(자기개념), 자기인식(정서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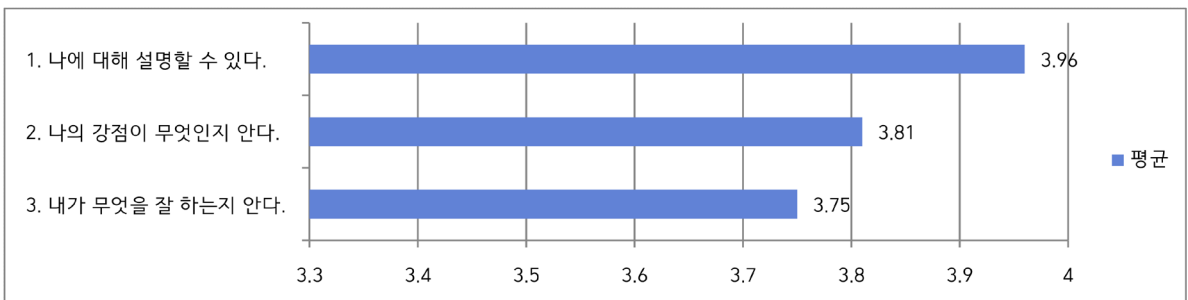
❖ 자기인식(자기개념)

○ 중학생의 자기인식(자기개념)은 3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은 평균 3.84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3.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는 3.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59~0.73, 첨도 절댓값은 0.12~0.41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4로 드러났다.

표 2-1 자기인식(자기개념)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716	1.00	5.00	3.96	0.98	-0.73	0.12	0.84	0.84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1,716	1.00	5.00	3.81	1.06	-0.64	-0.17	0.71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1,716	1.00	5.00	3.75	1.11	-0.59	-0.41	0.76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1,716	1.00	5.00	3.84	0.92	-0.54	-0.12	-	-

그림 2-1 자기인식(자기개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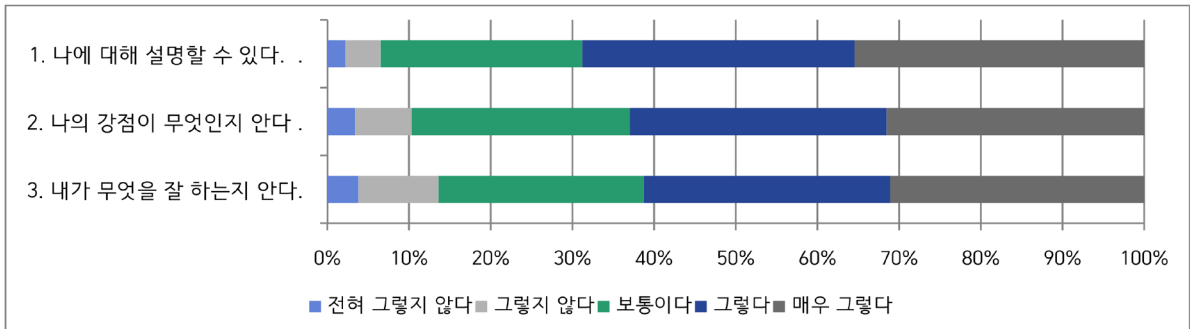


- 중학생의 자기인식(자기개념)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35.5%(609명), [그렇다] 33.4%(573명), [보통이다] 24.7%(423명)이었고,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는 [매우 그렇다] 31.5%(541명), [그렇다] 31.4%(539명), [보통이다] 26.7%(458명)으로 나타났고,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 지 안다’는 [매우 그렇다] 31.1%(534명), [그렇다] 30.2%(519명), [보통이다] 25.1%(430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2 자기인식(자기개념)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7	2.2%	74	4.3%	423	24.7%	573	33.4%	609	35.5%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59	3.4%	119	6.9%	458	26.7%	539	31.4%	541	31.5%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65	3.8%	168	9.8%	430	25.1%	519	30.2%	534	31.1%

그림 2-2 자기인식(자기개념) 비율



❖ 자기인식(정서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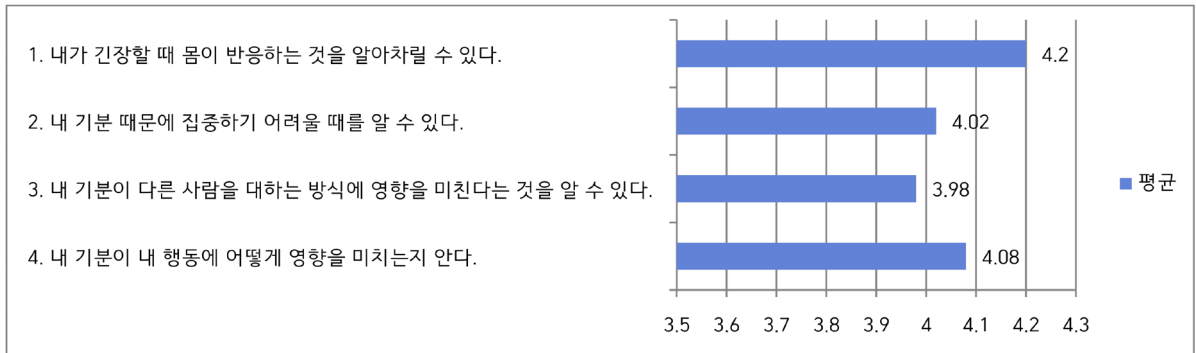
- 중학생의 자기인식(정서지식)은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는 평균 4.07점으로 ‘그렇다’ 수준이며, 세부 설문 문항에서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4.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3.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75~1.12, 첨도 절댓값은 0.29~1.16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8로 나타났다.

표 2-3 자기인식(정서지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716	1.00	5.00	4.20	0.89	-1.12	1.16	0.75	0.78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1,716	1.00	5.00	4.02	0.96	-0.86	0.47	0.73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Cronbach's α	Cronbach's α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16	1.00	5.00	3.98	0.94	-0.75	0.29	0.72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1,716	1.00	5.00	4.08	0.88	-0.80	0.46	0.70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1,716	1.00	5.00	4.07	0.71	-0.69	0.83	-	-

그림 2-3 자기인식(정서지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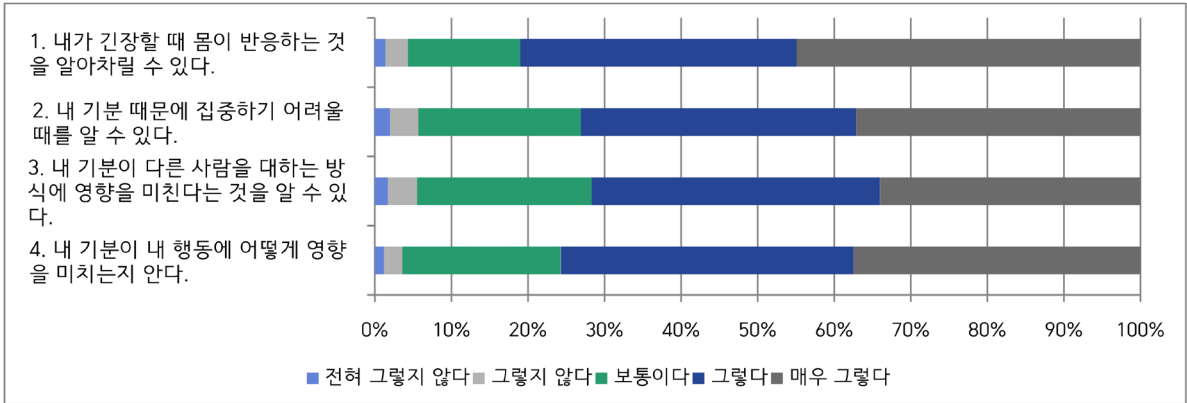


○ 중학생의 자기인식(정서지식)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44.9%(771명), [그렇다] 36.1%(619명), [보통이다] 14.7%(252명)이었고,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는 [매우 그렇다] 37.5%(643명), [그렇다] 38.2%(655명), [보통이다] 20.7%(356명)으로 나타났으며,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37.1%(636명), [그렇다] 36.0%(618명), [보통이다] 21.2%(363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2-4 자기인식(정서지식)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24	1.4%	50	2.9%	252	14.7%	619	36.1%	771	44.9%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35	2.0%	64	3.7%	363	21.2%	618	36.0%	636	37.1%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	1.7%	66	3.8%	392	22.8%	645	37.6%	584	34.0%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21	1.2%	41	2.4%	356	20.7%	655	38.2%	643	37.5%

그림 2-4 자기인식(정서지식) 비율



사회적 인식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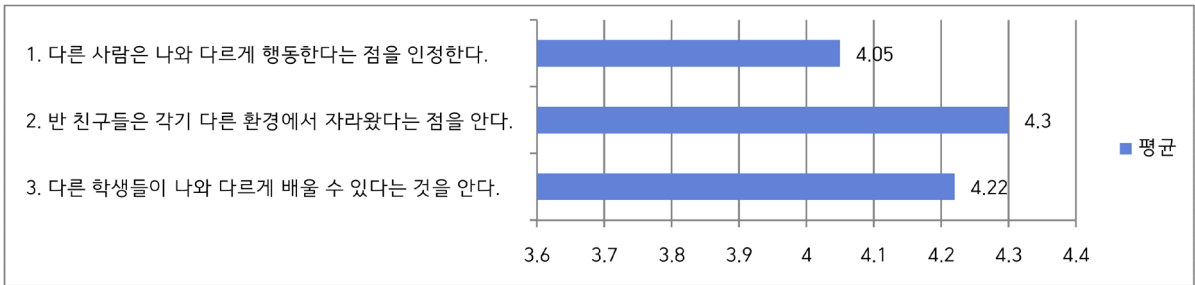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

○ 중학생의 사회적 인식은 3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사회적 인식(전체)는 평균 4.19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이며, 세부 설문 문항은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는 4.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4.0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80~1.26, 첨도 절댓값은 0.16~1.64로 자료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1로 나타났다.

표 2-5 사회적 인식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1,716	1.00	5.00	4.05	0.96	-0.80	0.16	0.82	0.81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1,716	1.00	5.00	4.30	0.86	-1.26	1.64	0.71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716	1.00	5.00	4.22	0.88	-1.01	0.74	0.67	
사회적 인식(전체)	1,716	1.00	5.00	4.19	0.76	-0.83	0.60	-	-

그림 2-5 사회적 인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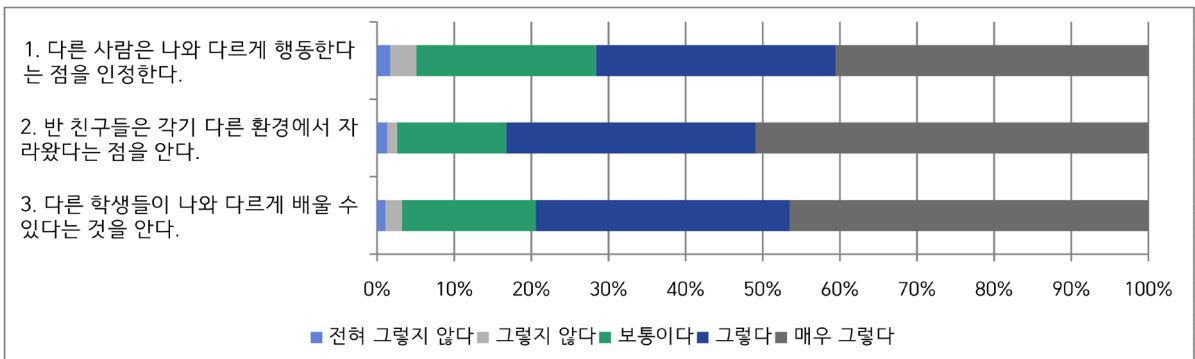


○ 중학생의 사회적 인식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는 [매우 그렇다] 50.9%(874명), [그렇다] 32.3%(554명), [보통이다] 14.1%(242명)이었고,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매우 그렇다] 46.5%(798명), [그렇다] 32.9%(565명), [보통이다] 17.4%(298명)으로 나타났으며,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매우 그렇다] 40.6%(696명), [그렇다] 31.1%(534명), [보통이다] 23.3%(399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2-6 사회적 인식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9	1.7%	58	3.4%	399	23.3%	534	31.1%	696	40.6%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23	1.3%	23	1.3%	242	14.1%	554	32.3%	874	50.9%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9	1.1%	36	2.1%	298	17.4%	565	32.9%	798	46.5%

그림 2-6 사회적 인식 비율



자기관리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자기관리(정서조절), 자기관리(목표관리), 자기관리(학교공부)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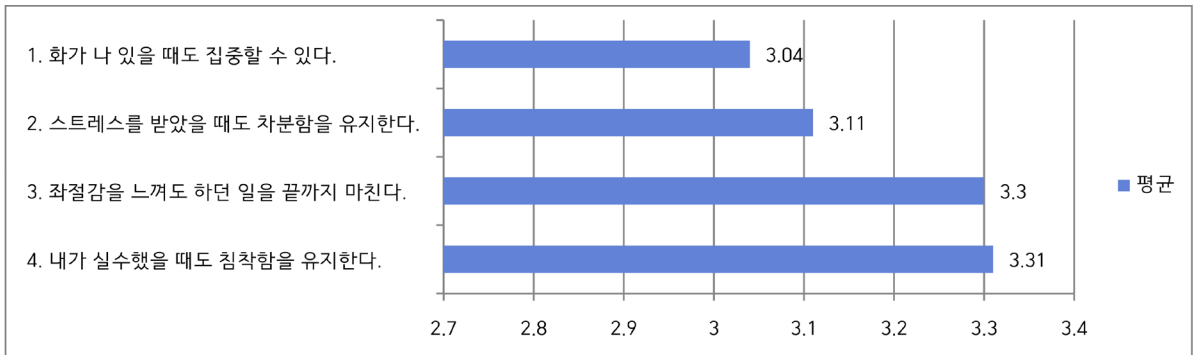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

- 중학생의 자기관리(정서조절)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는 평균 3.19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이며,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3.3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는 3.0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2~0.15, 첨도 절댓값은 0.60~0.81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분석되었다.

표 2-7 자기관리(정서조절)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1,716	1.00	5.00	3.04	1.18	0.11	-0.79	0.82	0.86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1,716	1.00	5.00	3.11	1.18	0.02	-0.81	0.81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1,716	1.00	5.00	3.30	1.15	-0.15	-0.69	0.83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1,716	1.00	5.00	3.31	1.09	-0.12	-0.60	0.83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1,716	1.00	5.00	3.19	0.96	0.16	-0.41	-	-

그림 2-7 자기관리(정서조절)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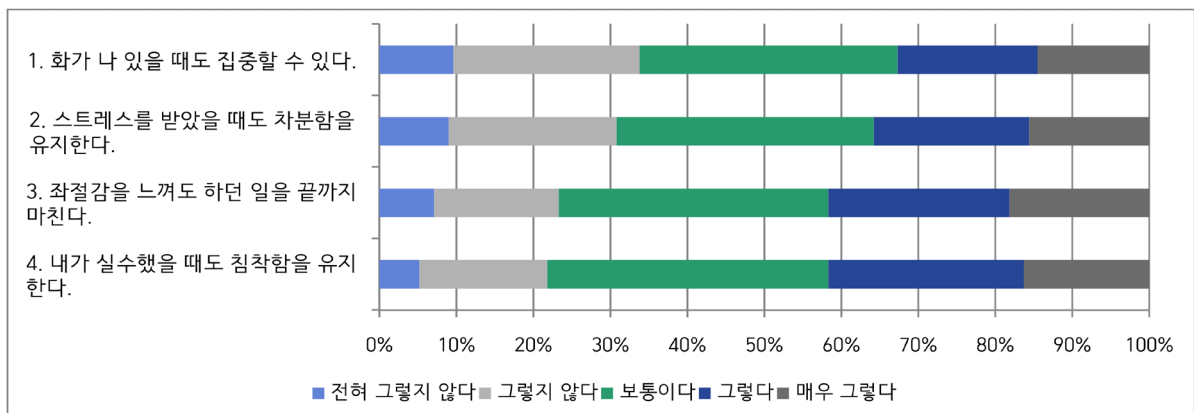


- 중학생의 자기관리(정서조절)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매우 그렇다] 16.3%(280명), [그렇다] 25.4%(436명), [보통이다] 36.5%(626명)이었고,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는 [매우 그렇다] 18.2%(312명), [그렇다] 23.5%(404명), [보통이다] 35.0%(601명)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매우 그렇다] 15.6%(267명), [그렇다] 20.2%(346명), [보통이다] 33.4%(574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자기관리(정서조절)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164	9.6%	416	24.2%	575	33.5%	313	18.2%	248	14.5%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155	9.0%	374	21.8%	574	33.4%	346	20.2%	267	15.6%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121	7.1%	278	16.2%	601	35.0%	404	23.5%	312	18.2%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89	5.2%	285	16.6%	626	36.5%	436	25.4%	280	16.3%

그림 2-8 자기관리(정서조절)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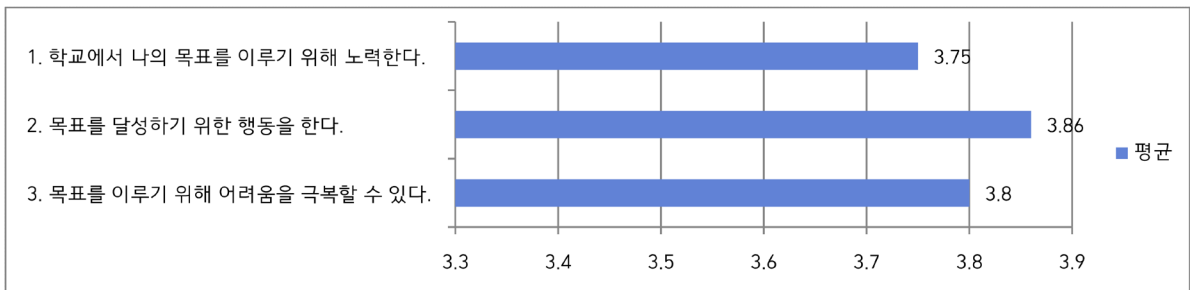
❖ 자기관리(목표관리)

- 중학생의 자기관리(목표관리)는 3개의 하위 설문 측정도구로 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는 평균 3.80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세부 설문 문항은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3.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3.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45~0.56, 첨도 절댓값은 0.09~0.22로 자료 정규성을 만족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6으로 확인되었다.

표 2-9 자기관리(목표관리)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1,716	1.00	5.00	3.75	1.01	-0.50	-0.22	0.80	0.86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1,716	1.00	5.00	3.86	0.97	-0.56	-0.09	0.77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1,716	1.00	5.00	3.80	0.95	-0.45	-0.12	0.86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1,716	1.00	5.00	3.80	0.87	-0.43	-0.06	-	-

그림 2-9 자기관리(목표관리)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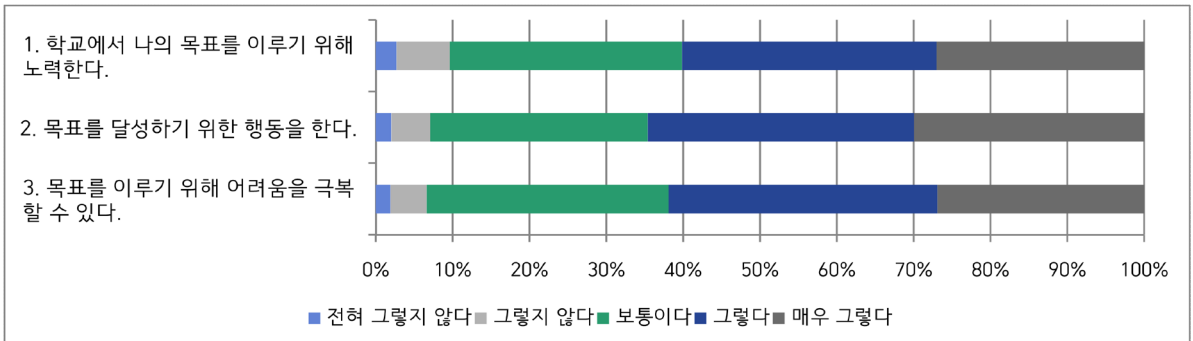


- 중학생의 자기관리(목표관리)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조사하면,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매우 그렇다] 30.0%(514명), [그렇다] 34.7%(595명), [보통이다] 28.3%(486명)이었으며,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6.9%(462명), [그렇다] 35.0%(601명), [보통이다] 31.5%(541명)으로 드러났고,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매우 그렇다] 27.0%(464명), [그렇다] 33.1%(568명), [보통이다] 30.2%(519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 자기관리(목표관리)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46	2.7%	119	6.9%	519	30.2%	568	33.1%	464	27.0%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34	2.0%	87	5.1%	486	28.3%	595	34.7%	514	30.0%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32	1.9%	80	4.7%	541	31.5%	601	35.0%	462	26.9%

그림 2-10 자기관리(목표관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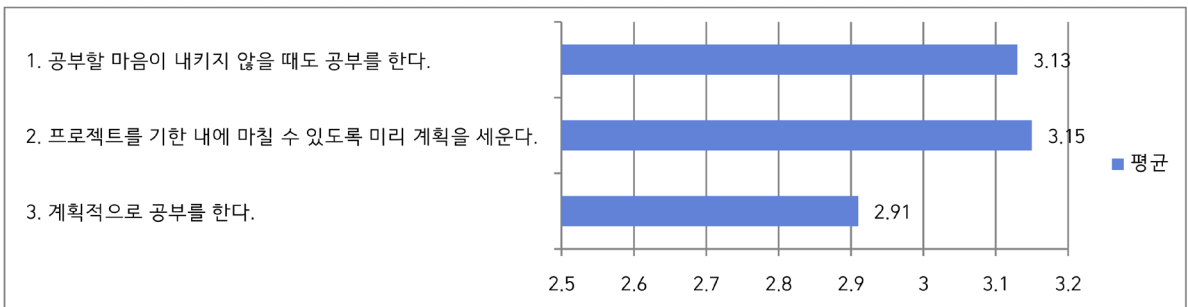
❖ 자기관리(학교공부)

○ 중학생의 자기관리(학교공부)는 3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는 평균 3.06점으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는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3.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2.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6~0.13, 첨도 절댓값은 0.87~0.97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는 0.81로 나타났다.

표 2-11 자기관리(학교공부)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1,716	1.00	5.00	3.13	1.24	-0.06	-0.94	0.83	0.81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1,716	1.00	5.00	3.15	1.23	-0.07	-0.87	0.70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1,716	1.00	5.00	2.91	1.28	0.13	-0.97	0.68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1,716	1.00	5.00	3.06	1.07	0.11	-0.59	-	-

그림 2-11 자기관리(학교공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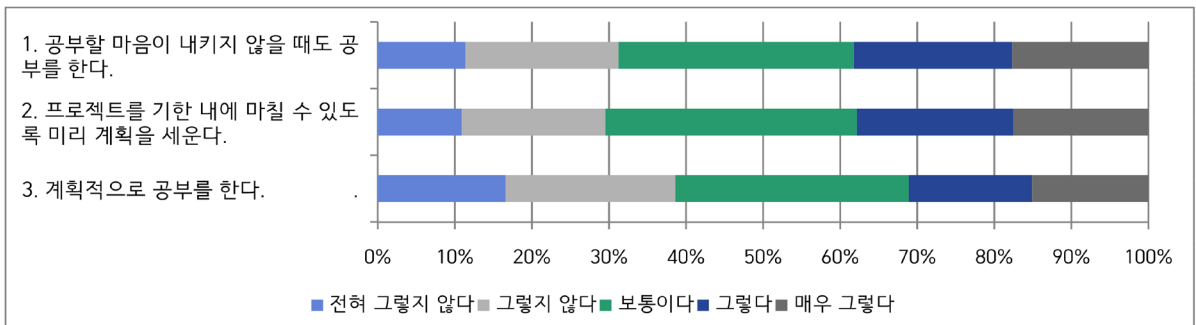


- 중학생의 자기관리(학교공부)의 하위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매우 그렇다] 17.5%(300명), [그렇다] 20.3%(349명), [보통이다] 32.6%(560명)이었으며,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는 [매우 그렇다] 17.7%(303명), [그렇다] 20.6%(354명), [보통이다] 30.5%(523명)으로 나타났고,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매우 그렇다] 15.1%(259명), [그렇다] 16.0%(275명), [보통이다] 30.3%(520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12 자기관리(학교공부)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195	11.4%	341	19.9%	523	30.5%	354	20.6%	303	17.7%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187	10.9%	320	18.6%	560	32.6%	349	20.3%	300	17.5%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284	16.6%	378	22.0%	520	30.3%	275	16.0%	259	15.1%

그림 2-12 자기관리(학교공부) 비율



관계기술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관계기술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 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산출하였다.

❖ 관계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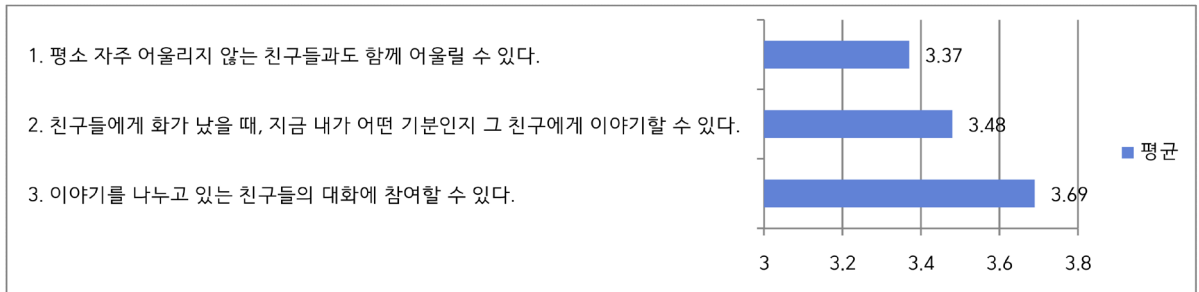
- 중학생의 관계기술은 3개의 하위 설문 도구로 이루어져,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조사 측정되었다. 관계기술(전체)은 평균 3.51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치이며, 세부 설문 문항 내에서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3.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3.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

은 0.28~0.62, 첨도 절댓값은 0.16~0.72로 자료 정규성은 만족하였으며,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7로 확인되었다.

표 2-13 관계기술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1,716	1.00	5.00	3.37	1.20	-0.28	-0.72	0.72	0.77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1,716	1.00	5.00	3.48	1.15	-0.34	-0.65	0.72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1,716	1.00	5.00	3.69	1.09	-0.62	-0.16	0.62	
관계기술(전체)	1,716	1.00	5.00	3.51	0.95	-0.24	-0.30	-	-

그림 2-13 관계기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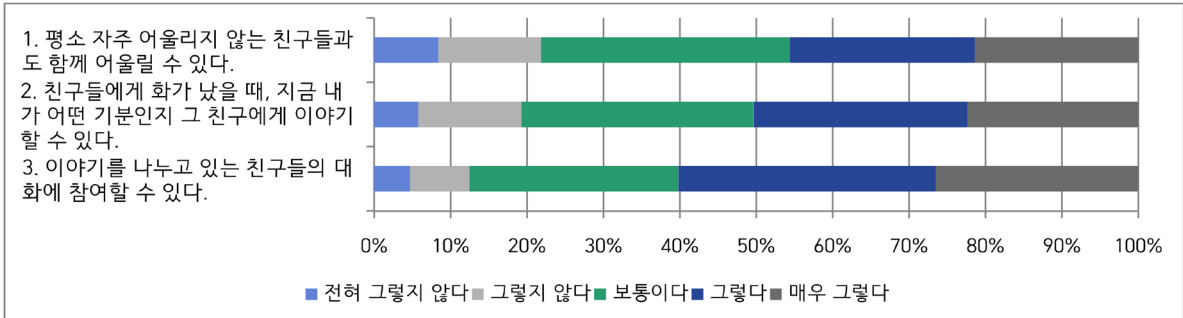


○ 중학생의 관계기술의 하위 세부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산출해 보면,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6.5%(454명), [그렇다] 33.7%(578명), [보통이다] 27.3%(469명)이었고,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2.4%(384명), [그렇다] 28.0%(480명), [보통이다] 30.4%(521명)으로 조사되었고,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매우 그렇다] 21.4%(367명), [그렇다] 24.2%(415명), [보통이다] 32.6%(560명)으로 분석되었다.

표 2-14 관계기술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144	8.4%	230	13.4%	560	32.6%	415	24.2%	367	21.4%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100	5.8%	231	13.5%	521	30.4%	480	28.0%	384	22.4%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81	4.7%	134	7.8%	469	27.3%	578	33.7%	454	26.5%

그림 2-14 관계기술 비율



책임있는 의사결정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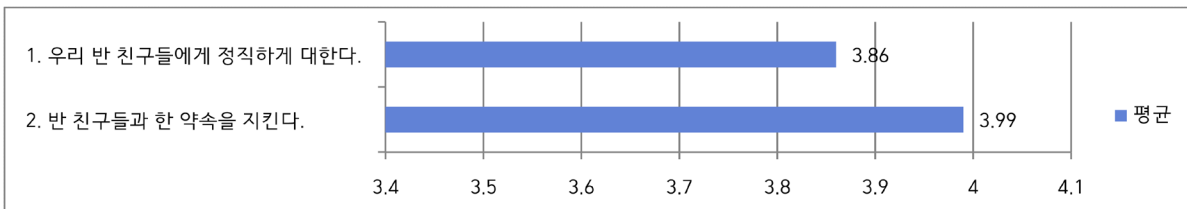
❖ 책임있는 의사결정

- 중학생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은 2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은 평균 3.92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드러났고,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는 3.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57~0.65, 첨도 절댓값은 0.06~0.25로 자료 정규성 충족에 문제가 없었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79로 나타났다.

표 2-15 책임있는 의사결정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1,716	1.00	5.00	3.86	0.96	-0.57	0.06	-	0.79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1,716	1.00	5.00	3.99	0.90	-0.65	0.25	-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1,716	1.00	5.00	3.92	0.84	-0.53	0.18	-	-

그림 2-15 책임있는 의사결정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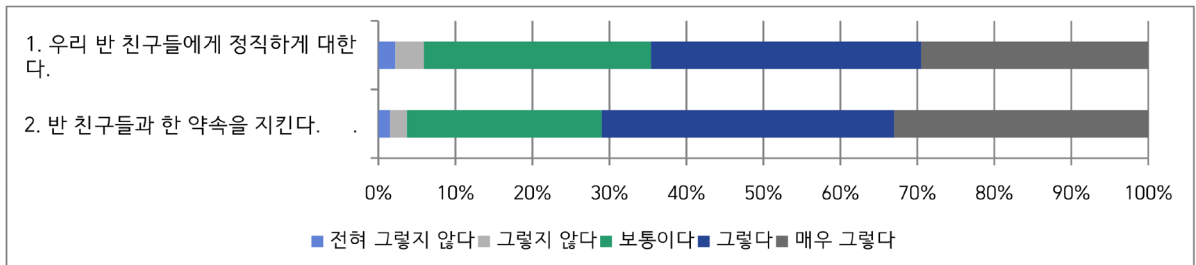


- 중학생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하위 세부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매우 그렇다] 33.0%(566명), [그렇다] 38.0%(652명), [보통이다] 25.3%(435명)이었고,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는 [매우 그렇다] 29.5%(507명), [그렇다] 35.1%(602명), [보통이다] 29.5%(506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16 책임있는 의사결정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37	2.2%	64	3.7%	506	29.5%	602	35.1%	507	29.5%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25	1.5%	38	2.2%	435	25.3%	652	38.0%	566	33.0%

그림 2-16 책임있는 의사결정 비율





Ⅲ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제III장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비교분석

- 이 단락에서는 성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 확인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여,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자기인식 영역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자기개념), 자기인식(정서지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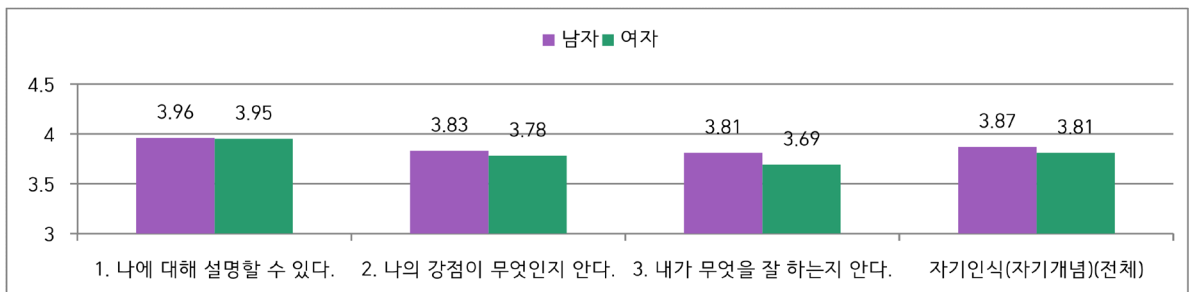
❖ 자기인식(자기개념)

- 중학생의 자기인식(자기개념)의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남자 3.96점, 여자 3.95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199$, $p=0.842$),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는 남자 3.83점, 여자 3.78점이었고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886$, $p=0.376$). 또한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는 남자 3.81점, 여자 3.69점으로 평균 차이는 있었고($t=2.382$, $p=0.017$),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는 남자 3.87점, 여자 3.81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376$, $p=0.169$).

표 3-1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자기개념)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남자	871	3.96	1.00	0.199	0.842	0.009
	여자	845	3.95	0.97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남자	871	3.83	1.07	0.886	0.376	0.046
	여자	845	3.78	1.06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남자	871	3.81	1.09	2.382	0.017	0.128
	여자	845	3.69	1.13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남자	871	3.87	0.92	1.376	0.169	0.061
	여자	845	3.81	0.92			

그림 3-1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자기개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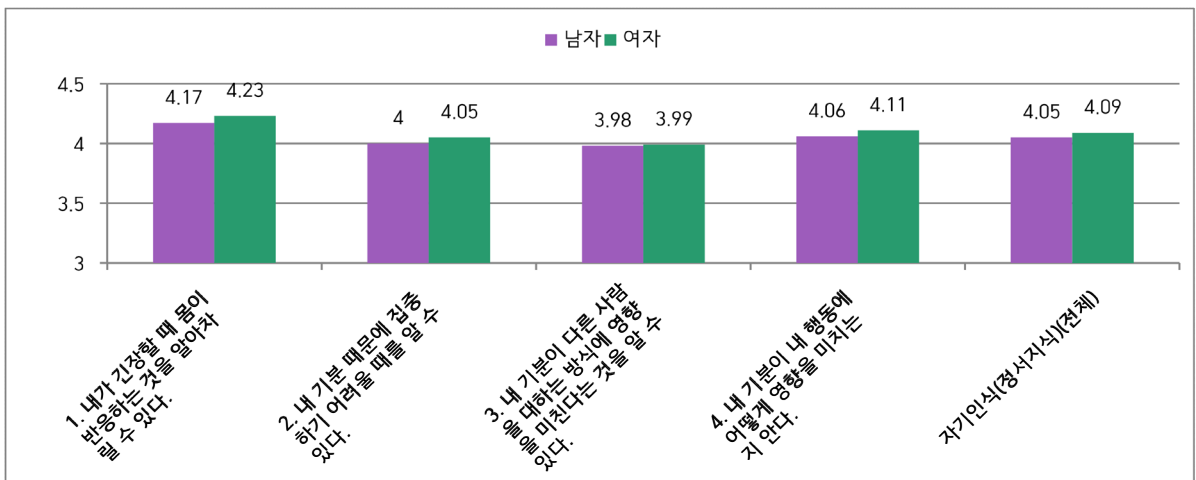
❖ 자기인식(정서지식)

- 중학생의 자기인식(정서지식)의 설문 문항 중에서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남자 4.17점, 여자 4.2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1.304$, $p=0.192$),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는 남자 4.00점, 여자 4.05점이었고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075$, $p=0.282$). 그리고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남자 3.98점, 여자 3.99점이었으며 평균 차이는 없었고($t=-0.222$, $p=0.825$),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는 남자 4.06점, 여자 4.11점이었으며 평균 차이는 없었다($t=-1.315$, $p=0.189$).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는 남자 4.05점, 여자 4.09점이었고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t=-1.251$, $p=0.211$).

표 3-2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정서지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남자	871	4.17	0.89	-1.304	0.192	-0.056
	여자	845	4.23	0.90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남자	871	4.00	0.97	-1.075	0.282	-0.050
	여자	845	4.05	0.94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	871	3.98	0.93	-0.222	0.825	-0.010
	여자	845	3.99	0.94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남자	871	4.06	0.89	-1.315	0.189	-0.056
	여자	845	4.11	0.88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남자	871	4.05	0.71	-1.251	0.211	-0.043
	여자	845	4.09	0.71			

그림 3-2 성별에 따른 자기인식(정서지식) 수준



사회적 인식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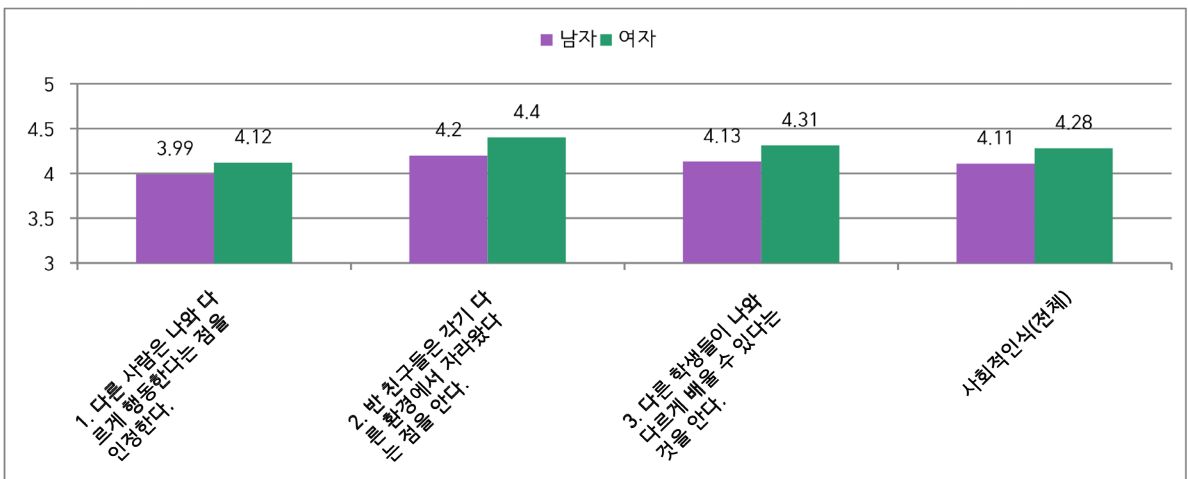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

○ 중학생의 사회적 인식 설문 문항 중에서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남자 3.99점, 여자 4.12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2.705$, $p=0.007$),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는 남자 4.20점, 여자 4.40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4.968$, $p<0.001$). 또한,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남자 4.13점, 여자 4.3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4.148$, $p<0.001$), 사회적 인식(전체)는 남자 4.11점, 여자 4.28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4.586$, $p<0.001$).

표 3-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남자	871	3.99	0.96	-2.705	0.007	-0.125
	여자	845	4.12	0.96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남자	871	4.20	0.89	-4.968	<0.001	-0.204
	여자	845	4.40	0.80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남자	871	4.13	0.89	-4.148	<0.001	-0.176
	여자	845	4.31	0.86			
사회적인식(전체)	남자	871	4.11	0.77	-4.586	<0.001	-0.168
	여자	845	4.28	0.75			

그림 3-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수준



자기관리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정서조절), 자기관리(목표관리), 자기관리(학교 공부)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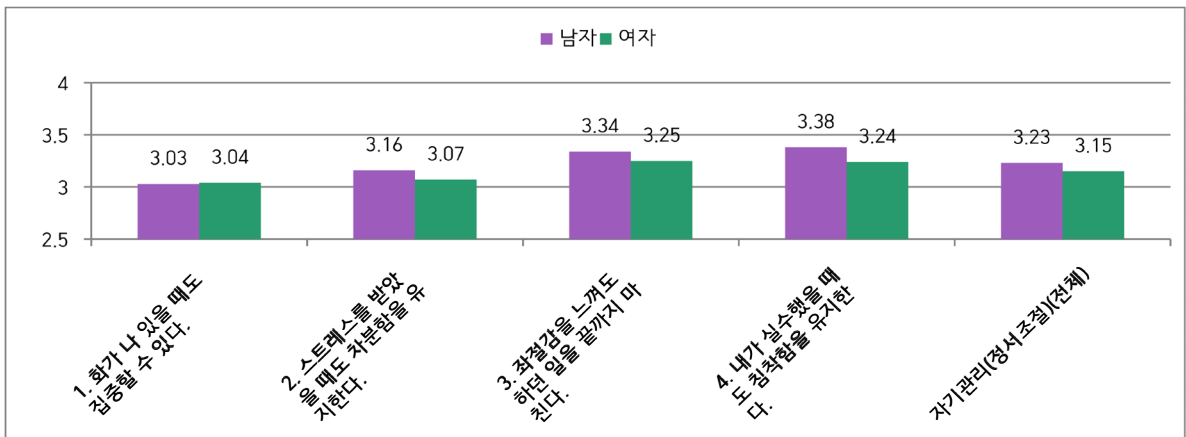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

- 중학생의 자기관리(정서조절) 설문 문항 중에서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는 남자 3.03점, 여자 3.0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164$, $p=0.870$),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는 남자 3.16점, 여자 3.07점이었고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495$, $p=0.135$). 그리고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는 남자 3.34점, 여자 3.25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1.646$, $p=0.100$),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남자 3.38점, 여자 3.24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2.509$, $p=0.012$). 또한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는 남자 3.23점, 여자 3.15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1.605$, $p=0.109$).

표 3-4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정서조절)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남자	871	3.03	1.21	-0.164	0.870	-0.009
	여자	845	3.04	1.14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남자	871	3.16	1.20	1.495	0.135	0.085
	여자	845	3.07	1.16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남자	871	3.34	1.15	1.646	0.100	0.091
	여자	845	3.25	1.15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남자	871	3.38	1.09	2.509	0.012	0.132
	여자	845	3.24	1.08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남자	871	3.23	0.97	1.605	0.109	0.075
	여자	845	3.15	0.95			

그림 3-4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정서조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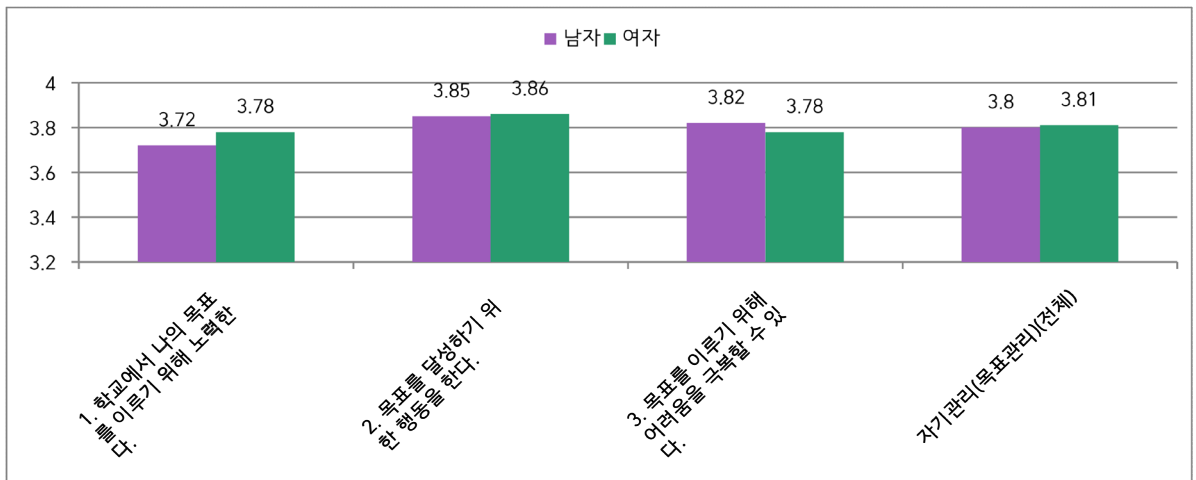
❖ 자기관리(목표관리)

- 중학생의 자기관리(목표관리) 설문 문항 중에서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남자 3.72점, 여자 3.7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1.106$, $p=0.269$),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남자 3.85점, 여자 3.86점이었고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155$, $p=0.877$). 그리고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남자 3.82점, 여자 3.7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0.867$, $p=0.386$),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는 남자 3.80점, 여자 3.81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173$, $p=0.863$).

표 3-5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목표관리)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남자	871	3.72	1.00	-1.106	0.269	-0.054
	여자	845	3.78	1.03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남자	871	3.85	0.93	-0.155	0.877	-0.007
	여자	845	3.86	1.01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남자	871	3.82	0.95	0.867	0.386	0.040
	여자	845	3.78	0.95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남자	871	3.80	0.84	-0.173	0.863	-0.007
	여자	845	3.81	0.90			

그림 3-5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목표관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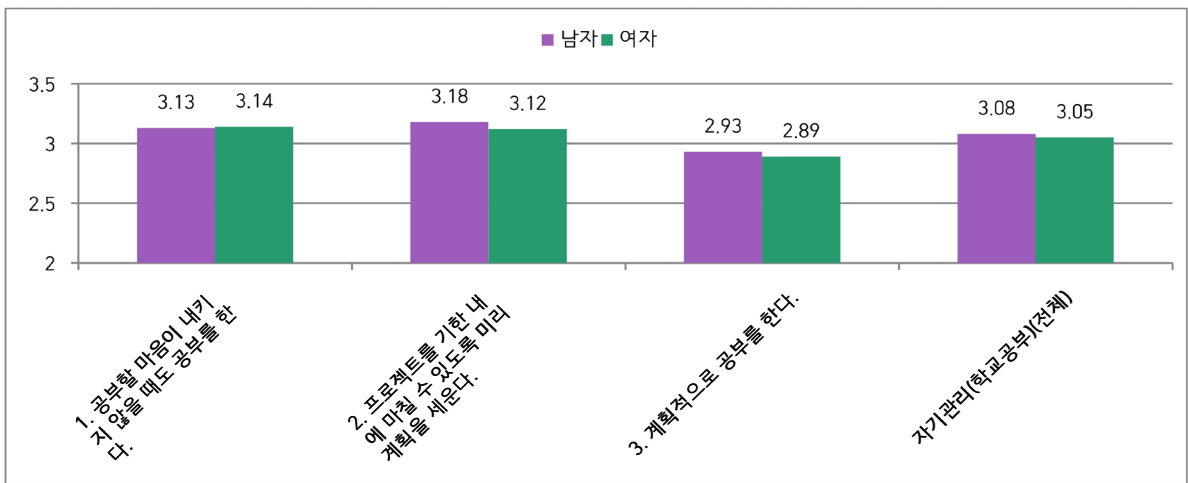
❖ 자기관리(학교공부)

- 중학생의 자기관리(학교공부) 설문 문항 중에서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는 남자 3.13점, 여자 3.1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203$, $p=0.839$),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남자 3.18점, 여자 3.12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0.928$, $p=0.354$). 또한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남자 2.93점, 여자 2.8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704$, $p=0.482$).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는 남자 3.08점, 여자 3.05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559$, $p=0.577$).

표 3-6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학교공부)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남자	871	3.13	1.24	-0.203	0.839	-0.012
	여자	845	3.14	1.25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남자	871	3.18	1.19	0.928	0.354	0.055
	여자	845	3.12	1.26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남자	871	2.93	1.27	0.704	0.482	0.044
	여자	845	2.89	1.29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남자	871	3.08	1.06	0.559	0.577	0.029
	여자	845	3.05	1.08			

그림 3-6 성별에 따른 자기관리(학교공부) 수준



관계기술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관계기술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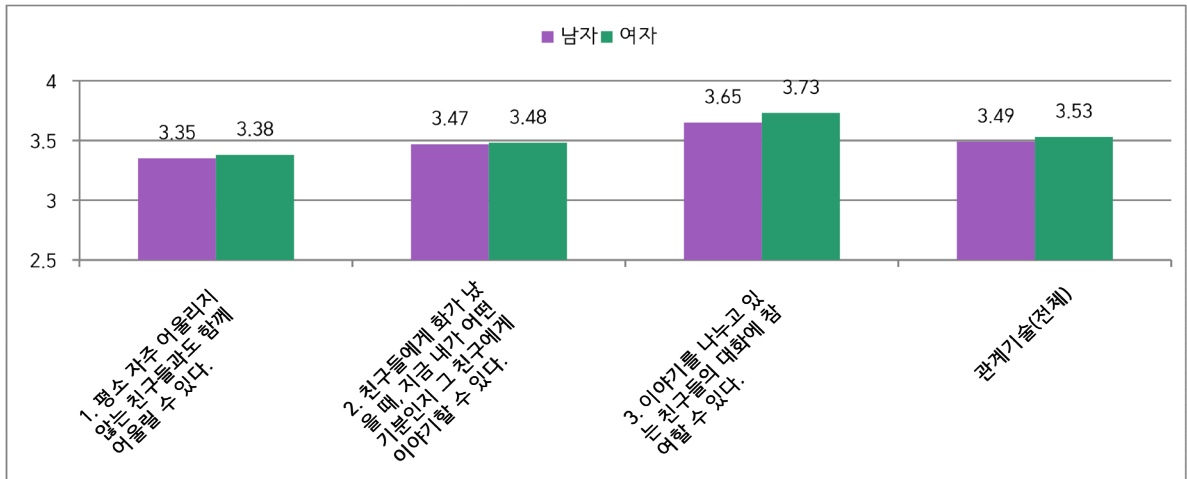
❖ 관계기술

- 중학생의 관계기술 설문 문항 중에서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남자 3.35점, 여자 3.3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576$, $p=0.565$),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남자 3.47점, 여자 3.48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197$, $p=0.844$). 그리고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남자 3.65점, 여자 3.7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1.556$, $p=0.120$). 관계기술(전체)는 남자 3.49점, 여자 3.5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0.919$, $p=0.358$).

표 3-7 성별에 따른 관계기술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남자	871	3.35	1.20	-0.576	0.565	-0.033
	여자	845	3.38	1.19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남자	871	3.47	1.12	-0.197	0.844	-0.011
	여자	845	3.48	1.18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남자	871	3.65	1.08	-1.556	0.120	-0.082
	여자	845	3.73	1.09			
관계기술(전체)	남자	871	3.49	0.95	-0.919	0.358	-0.042
	여자	845	3.53	0.94			

그림 3-7 성별에 따른 관계기술 수준



책임있는 의사결정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책임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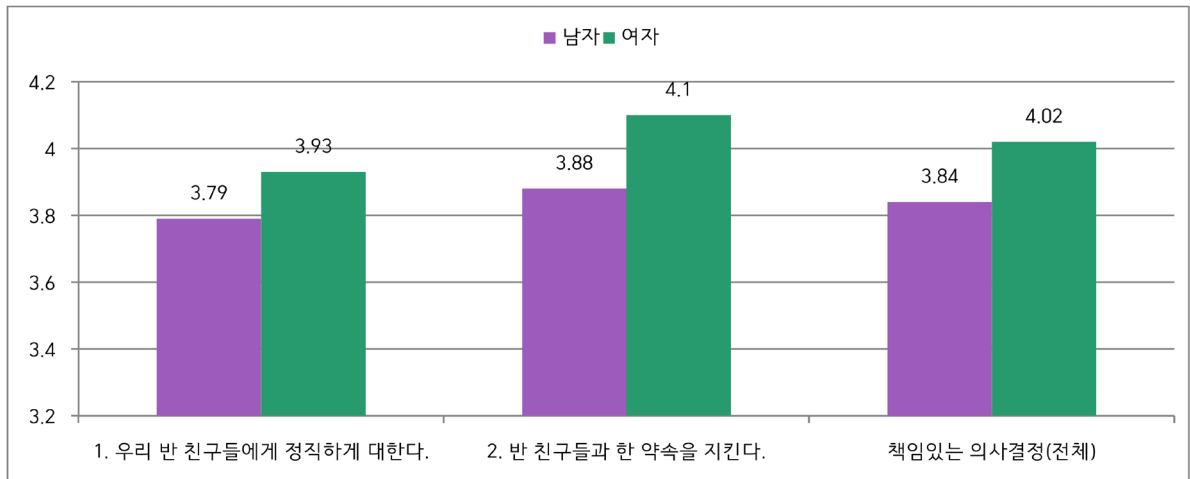
❖ 책임있는 의사결정

○ 중학생의 책임있는 의사결정 설문 문항 중에서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는 남자 3.79점, 여자 3.9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가 있었고($t=-3.046$, $p=0.002$),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남자 3.88점, 여자 4.10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5.154$, $p<0.001$). 또한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은 남자 3.84점, 여자 4.02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4.466$, $p<0.001$).

표 3-8 성별에 따른 책임있는 의사결정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남자	871	3.79	0.96	-3.046	0.002	-0.140
	여자	845	3.93	0.94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남자	871	3.88	0.92	-5.154	<0.001	-0.221
	여자	845	4.10	0.85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남자	871	3.84	0.86	-4.466	<0.001	-0.181
	여자	845	4.02	0.82			


그림 3-8 성별에 따른 책임있는 의사결정 수준





IV

학년별 사회정서 역량 수준 비교 분석



제IV장

학년별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학년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 학년별(1~3학년) 집단 간의 사회정서역량 평균 차이 확인은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시행 후, 사후검정(Post-hoc)으로 Scheffe 검증을 행하였고, 만약에 자료가 이분산인 경우에는 Welch's ANOVA를 한 후, Games-Howell 검증을 진행하였다.

자기인식 영역

❖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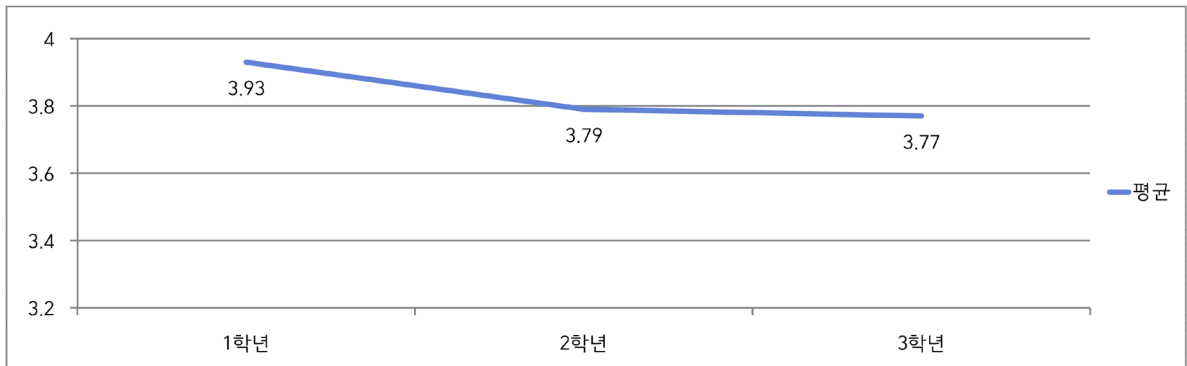
-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93점(N=667), 2학년은 평균 3.79점(N=494), 3학년은 평균 3.77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84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90$,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이 2학년(b)과 3학년(c)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1학년(a)	667	3.93	0.86	1.00	5.00	5.90**	a>b,c
	2학년(b)	494	3.79	0.96	1.00	5.00		
	3학년(c)	555	3.77	0.94	1.00	5.00		
	전체	1,716	3.84	0.92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1$

그림 4-1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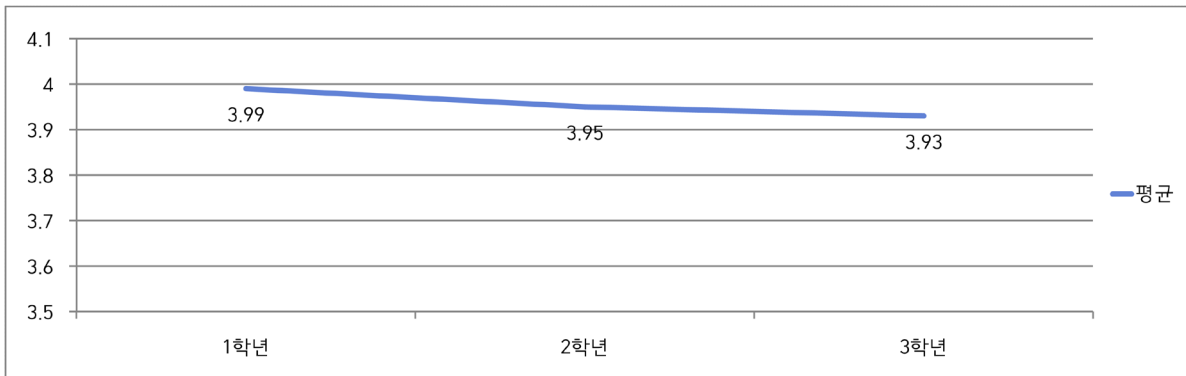
❖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99점, 2학년 3.95점, 3학년 3.93점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3.92)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6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학년(a)	667	3.99	0.96	1.00	5.00	0.63	-
	2학년(b)	494	3.95	1.01	1.00	5.00		
	3학년(c)	555	3.93	0.99	1.00	5.00		
	전체	1,716	3.96	0.98	1.00	5.00	-	-

그림 4-2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1] 평균



❖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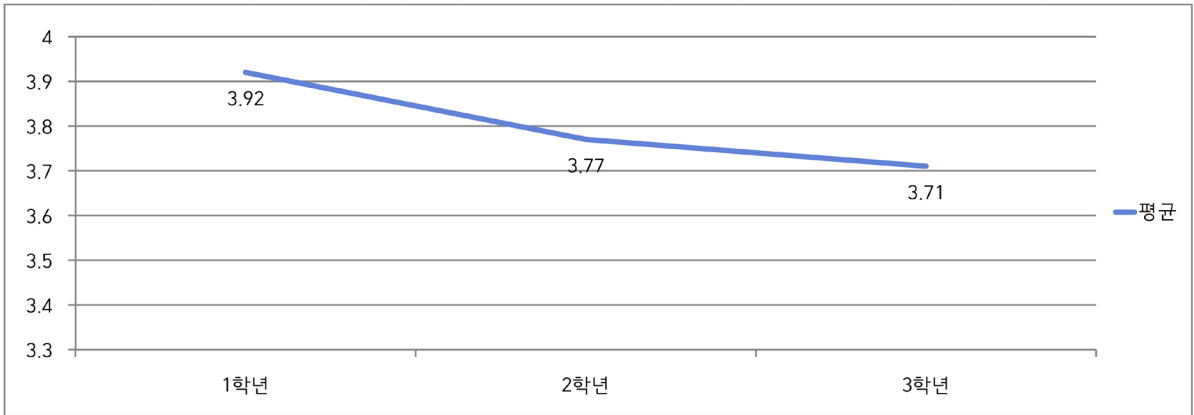
-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92점, 2학년 3.77점, 3학년 3.71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81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92)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6.8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1학년(a)	667	3.92	0.97	1.00	5.00	6.88***	a>b,c
	2학년(b)	494	3.77	1.11	1.00	5.00		
	3학년(c)	555	3.71	1.12	1.00	5.00		
	전체	1,716	3.81	1.06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3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2] 평균



❖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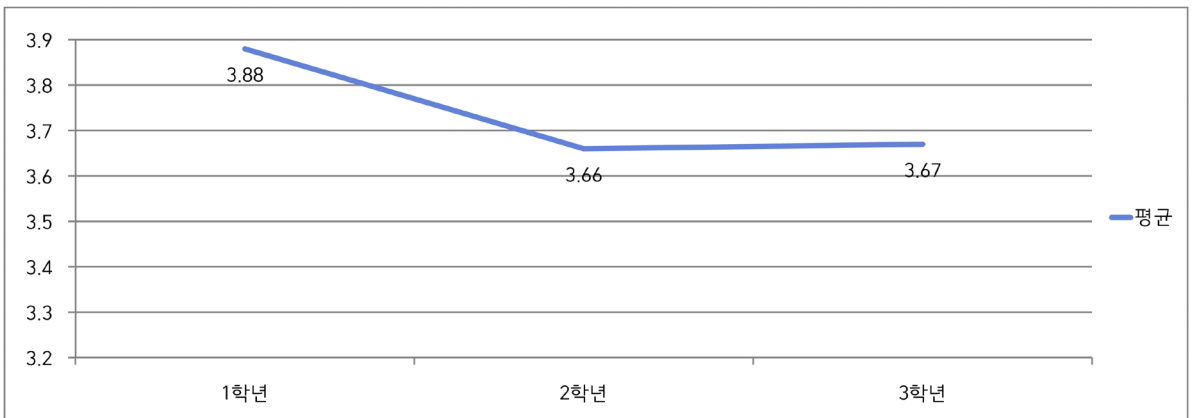
-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88점, 2학년 3.66점, 3학년 3.67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75점으로 드러났다. 1학년의 평균(3.88)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8.1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1학년(a)	667	3.88	1.03	1.00	5.00	8.17***	a>b,c
	2학년(b)	494	3.66	1.16	1.00	5.00		
	3학년(c)	555	3.67	1.15	1.00	5.00		
	전체	1,716	3.75	1.11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4 학년별 자기인식(자기개념)_[문항_3] 평균



❖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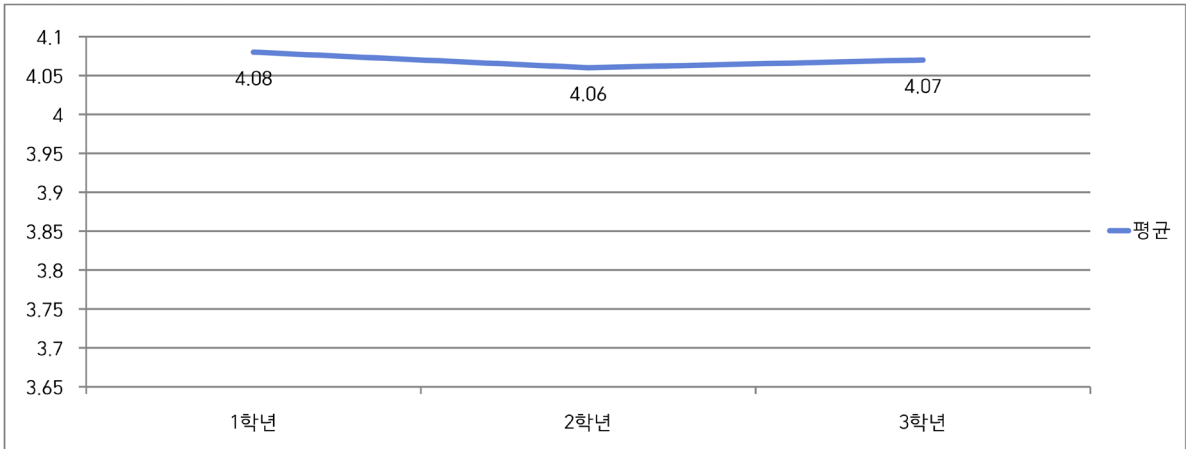
-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은 평균 4.08점(N=667), 2학년은 평균 4.06점(N=494), 3학년은 평균 4.07점(N=555)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07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12$,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5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1학년(a)	667	4.08	0.66	1.25	5.00	0.12	-
	2학년(b)	494	4.06	0.76	1.00	5.00		
	3학년(c)	555	4.07	0.73	1.00	5.00		
	전체	1,716	4.07	0.71	1.00	5.00	-	-

† Welch's ANOVA

그림 4-5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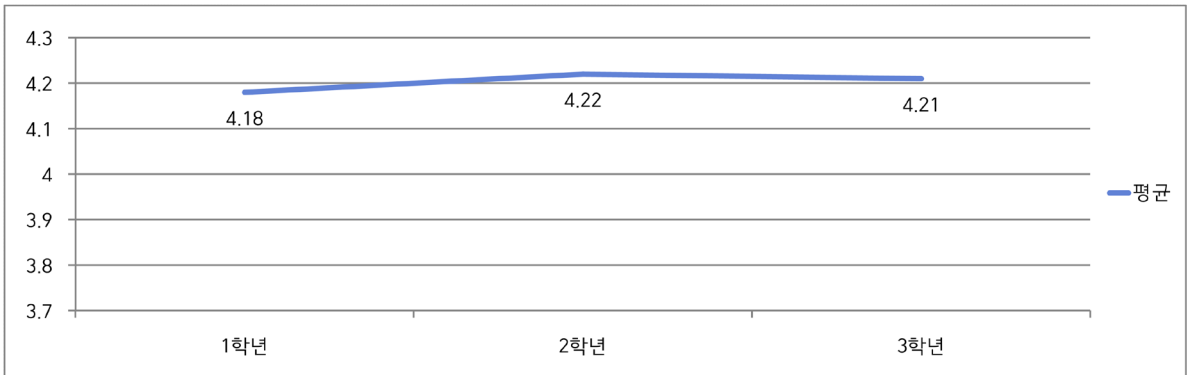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4.18점, 2학년 4.22점, 3학년 4.21점으로 조사되었고, 전체 평균은 4.20점으로 확인되었다. 2학년의 평균(4.22)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및 분석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4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4-6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1학년(a)	667	4.18	0.89	1.00	5.00	0.40	-
	2학년(b)	494	4.22	0.91	1.00	5.00		
	3학년(c)	555	4.21	0.89	1.00	5.00		
	전체	1,716	4.20	0.89	1.00	5.00	-	-

그림 4-6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1]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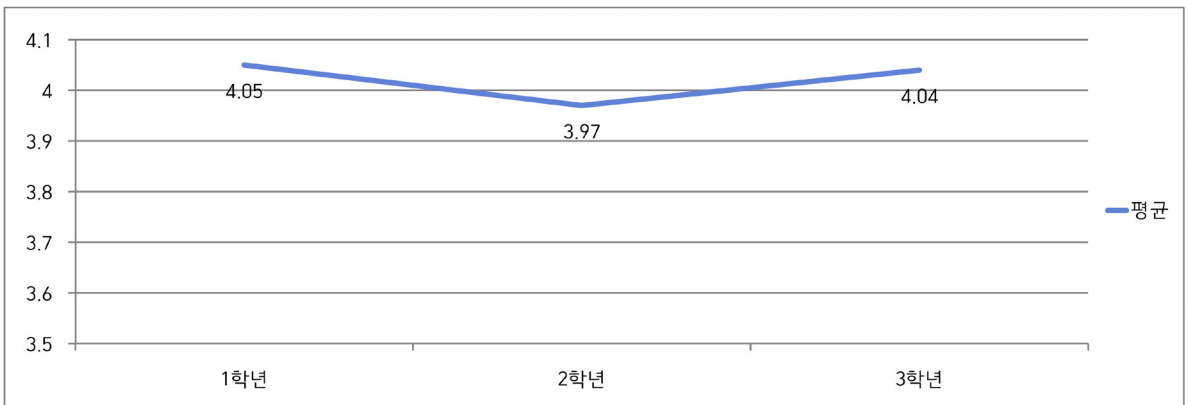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학년 4.05점, 2학년 3.97점, 3학년 4.04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4.02점으로 분석되었다. 1학년의 평균(4.05)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1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2.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1학년(a)	667	4.05	0.92	1.00	5.00	1.19	-
	2학년(b)	494	3.97	1.00	1.00	5.00		
	3학년(c)	555	4.04	0.96	1.00	5.00		
	전체	1,716	4.02	0.96	1.00	5.00	-	-

그림 4-7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2] 평균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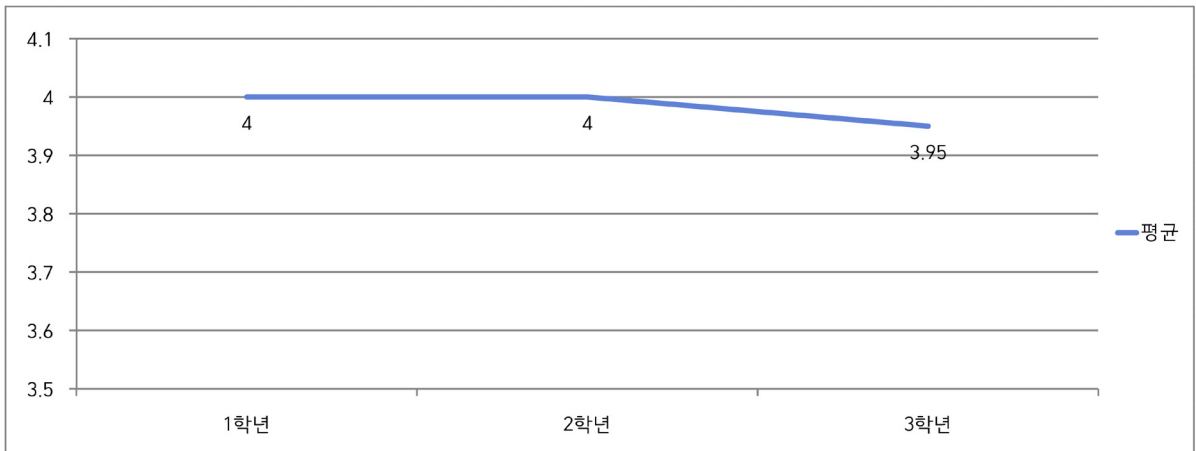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 4.00점, 2학년 4.00점, 3학년 3.95점으로 확인 및 산출되었고, 전체 평균은 3.98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과 2학년의 평균(4.00)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3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8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학년(a)	667	4.00	0.90	1.00	5.00	0.38	-
	2학년(b)	494	4.00	0.92	1.00	5.00		
	3학년(c)	555	3.95	0.99	1.00	5.00		
	전체	1,716	3.98	0.94	1.00	5.00	-	-

† Welch's ANOVA

그림 4-8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3]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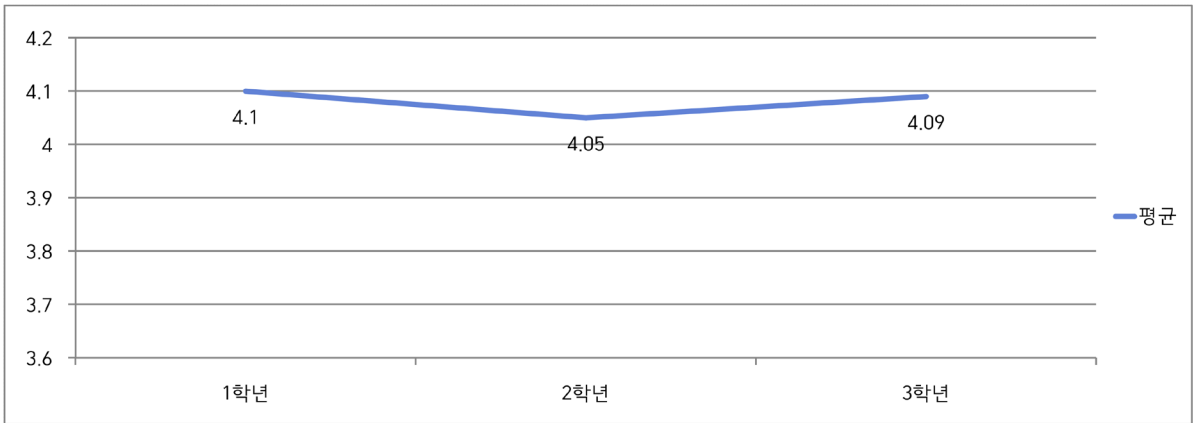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4]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학년 4.10점, 2학년 4.05점, 3학년 4.09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4.08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4.10)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4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4]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4.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1학년(a)	667	4.10	0.85	1.00	5.00	0.49	-
	2학년(b)	494	4.05	0.93	1.00	5.00		
	3학년(c)	555	4.09	0.89	1.00	5.00		
	전체	1,716	4.08	0.88	1.00	5.00	-	-

그림 4-9 학년별 자기인식(정서지식)_[문항_4] 평균



사회적 인식 영역

❖ 사회적 인식(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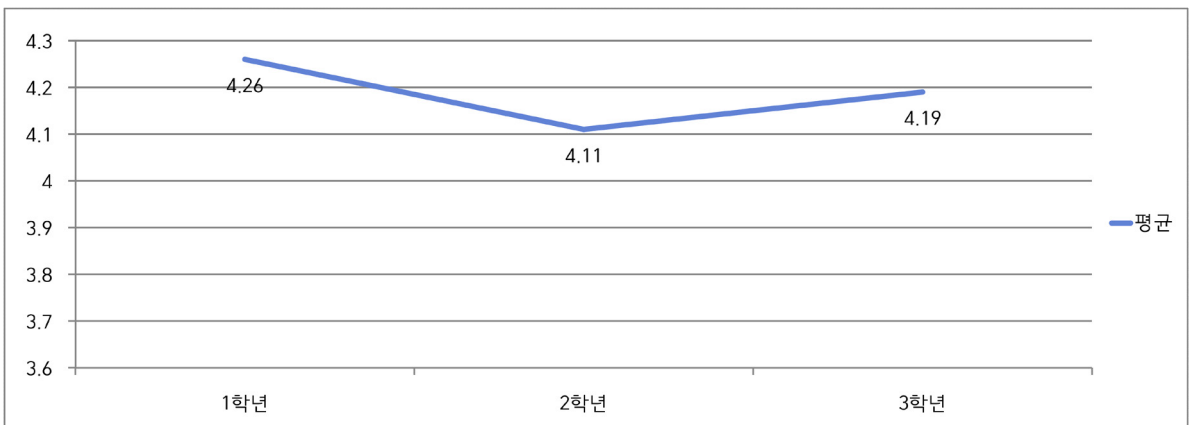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4.26점(N=667), 2학년은 평균 4.11점(N=494), 3학년은 평균 4.19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19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39$,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평균이 2학년(b)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년별 사회적 인식(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사회적 인식(전체)	1학년(a)	667	4.26	0.69	1.00	5.00	5.39**	a>b
	2학년(b)	494	4.11	0.82	1.00	5.00		
	3학년(c)	555	4.19	0.79	1.00	5.00		
	전체	1,716	4.19	0.76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1$

그림 4-10 학년별 사회적 인식(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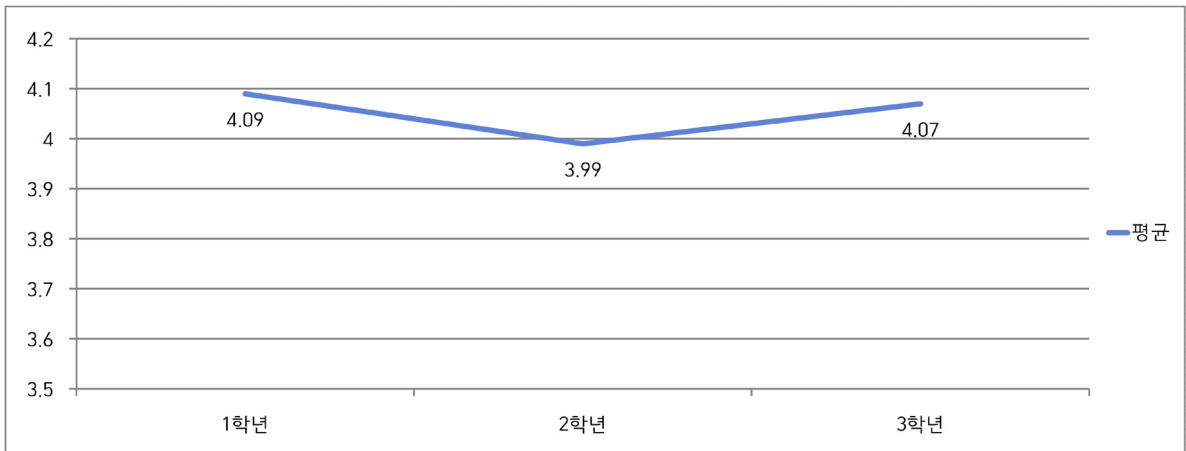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_[문항_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사회적 인식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 4.09점, 2학년 3.99점, 3학년 4.07점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평균은 4.05점으로 드러났다. 1학년의 평균(4.09)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8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표 4-11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1학년(a)	667	4.09	0.94	1.00	5.00	1.83	-
	2학년(b)	494	3.99	1.00	1.00	5.00		
	3학년(c)	555	4.07	0.95	1.00	5.00		
	전체	1,716	4.05	0.96	1.00	5.00	-	-

그림 4-11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1] 평균



❖ 사회적 인식_[문항_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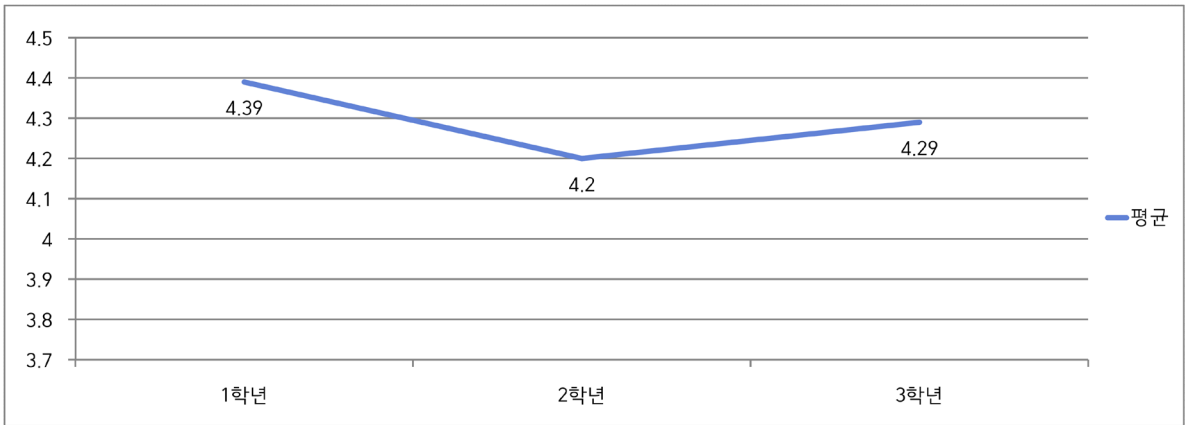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학년 4.39점, 2학년 4.20점, 3학년 4.29점으로 확인되었고, 전체 평균은 4.30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4.39)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6.8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4-12 학년별 사회적 인식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1학년(a)	667	4.39	0.76	1.00	5.00	6.85***	a>b
	2학년(b)	494	4.20	0.96	1.00	5.00		
	3학년(c)	555	4.29	0.87	1.00	5.00		
	전체	1,716	4.30	0.86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12 학년별 사회적 인식_ [문항_2] 평균



❖ 사회적 인식_ [문항_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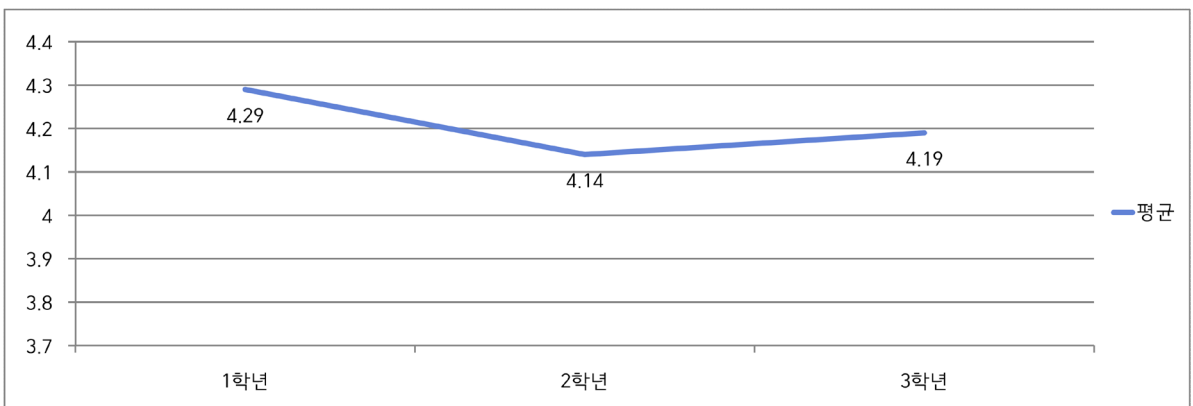
- 사회적 인식_ [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4.29점, 2학년 4.14점, 3학년 4.19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4.22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4.29)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4.61$,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4-13 학년별 사회적 인식_ [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3.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1학년(a)	667	4.29	0.82	1.00	5.00	4.61**	a>b
	2학년(b)	494	4.14	0.93	1.00	5.00		
	3학년(c)	555	4.19	0.90	1.00	5.00		
	전체	1,716	4.22	0.88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1$

그림 4-13 학년별 사회적 인식_ [문항_3] 평균



자기관리 영역

❖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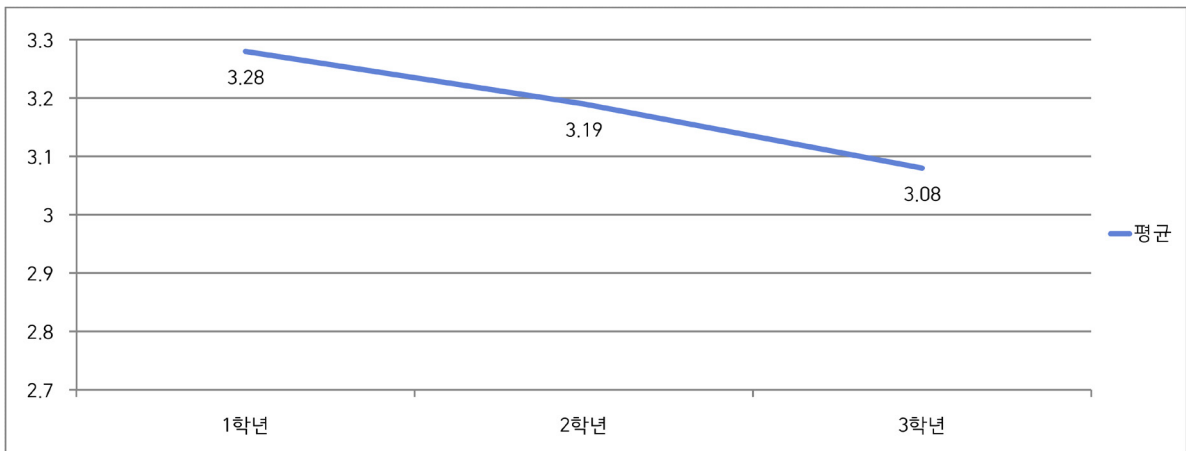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28점(N=667), 2학년은 평균 3.19점(N=494), 3학년은 평균 3.08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19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7.2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평균이 3학년(c)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4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1학년(a)	667	3.28	0.91	1.00	5.00	7.20***	a>c
	2학년(b)	494	3.19	1.01	1.00	5.00		
	3학년(c)	555	3.08	0.98	1.00	5.00		
	전체	1,716	3.19	0.96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14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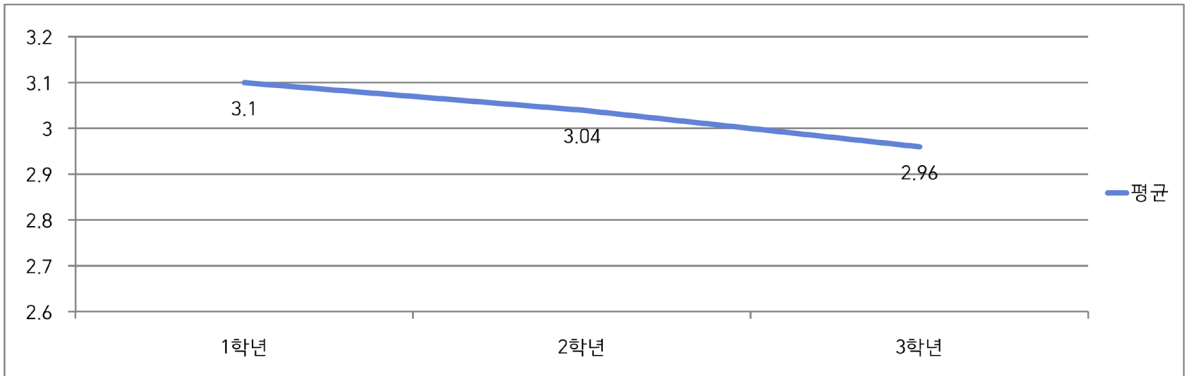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 3.10점, 2학년 3.04점, 3학년 2.96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04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10)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2.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1학년(a)	667	3.10	1.13	1.00	5.00	2.21	-
	2학년(b)	494	3.04	1.21	1.00	5.00		
	3학년(c)	555	2.96	1.20	1.00	5.00		
	전체	1,716	3.04	1.18	1.00	5.00	-	-

그림 4-15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1] 평균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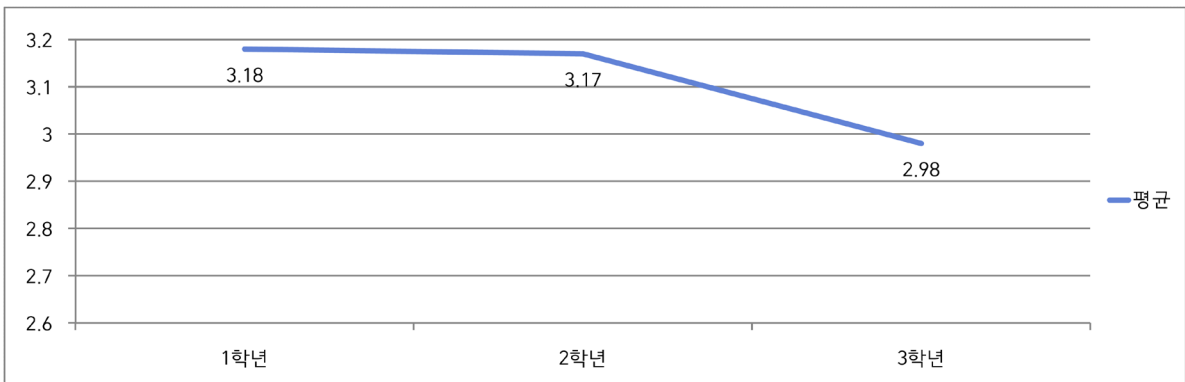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 3.18점, 2학년 3.17점, 3학년 2.9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11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18)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49$,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표 4-16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1학년(a)	667	3.18	1.14	1.00	5.00	5.49**	a,b>c
	2학년(b)	494	3.17	1.19	1.00	5.00		
	3학년(c)	555	2.98	1.20	1.00	5.00		
	전체	1,716	3.11	1.18	1.00	5.00	-	-

** $p<.01$

그림 4-16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2] 평균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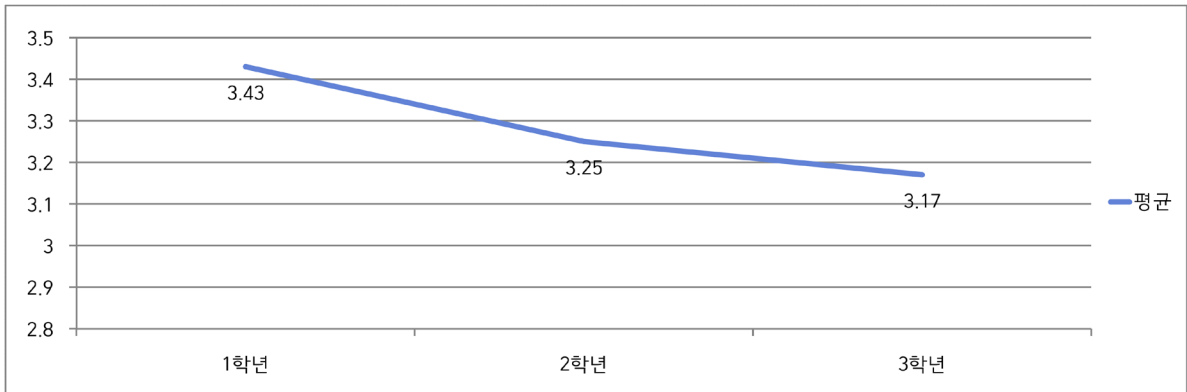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학년 3.43점, 2학년 3.25점, 3학년 3.17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30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43)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8.7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4-17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1학년(a)	667	3.43	1.08	1.00	5.00	8.76***	a>b,c
	2학년(b)	494	3.25	1.19	1.00	5.00		
	3학년(c)	555	3.17	1.18	1.00	5.00		
	전체	1,716	3.30	1.15	1.00	5.00	-	-

*** $p<.001$

그림 4-17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3] 평균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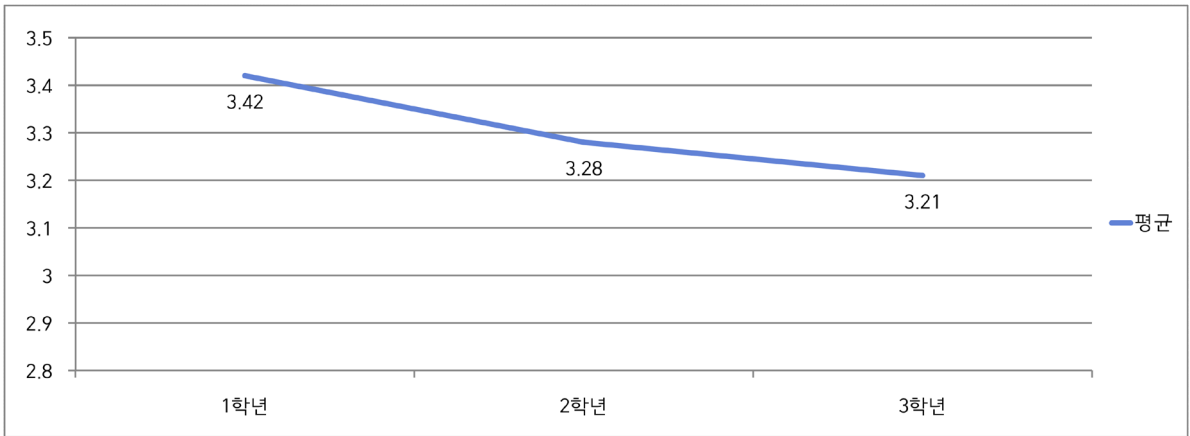
-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4]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 3.42점, 2학년 3.28점, 3학년 3.21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3.31점으로 확인되었다. 1학년의 평균(3.42)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6.04$,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4-18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4]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1학년(a)	667	3.42	1.06	1.00	5.00	6.04**	a>c
	2학년(b)	494	3.28	1.11	1.00	5.00		
	3학년(c)	555	3.21	1.10	1.00	5.00		
	전체	1,716	3.31	1.09	1.00	5.00	-	-

** $p<.01$

그림 4-18 학년별 자기관리(정서조절)_[문항_4] 평균



❖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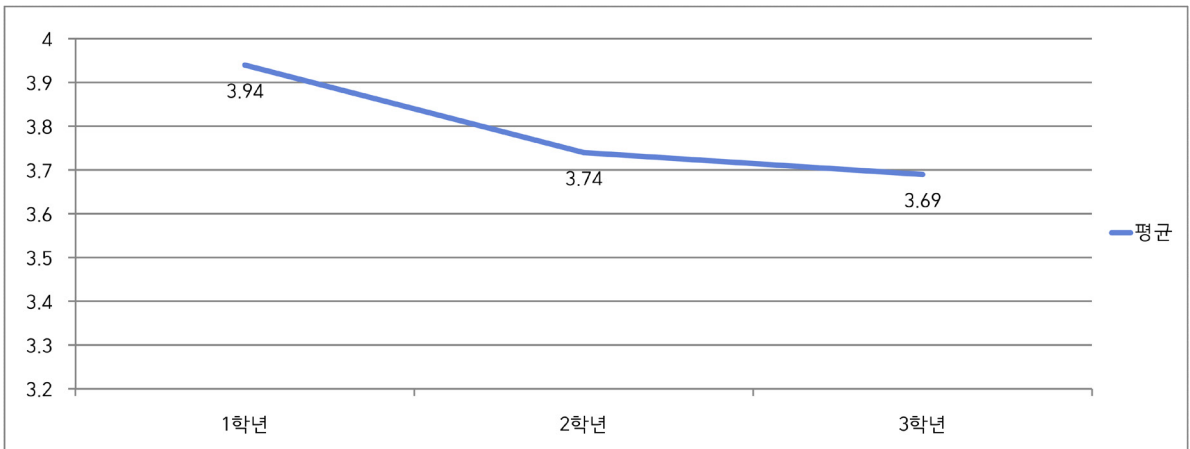
-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94점(N=667), 2학년은 평균 3.74점(N=494), 3학년은 평균 3.69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80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5.3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평균이 2학년(b)과 3학년(c)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1학년(a)	667	3.94	0.79	1.00	5.00	15.37***	a>b,c
	2학년(b)	494	3.74	0.92	1.00	5.00		
	3학년(c)	555	3.69	0.89	1.00	5.00		
	전체	1,716	3.80	0.87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19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 평균



❖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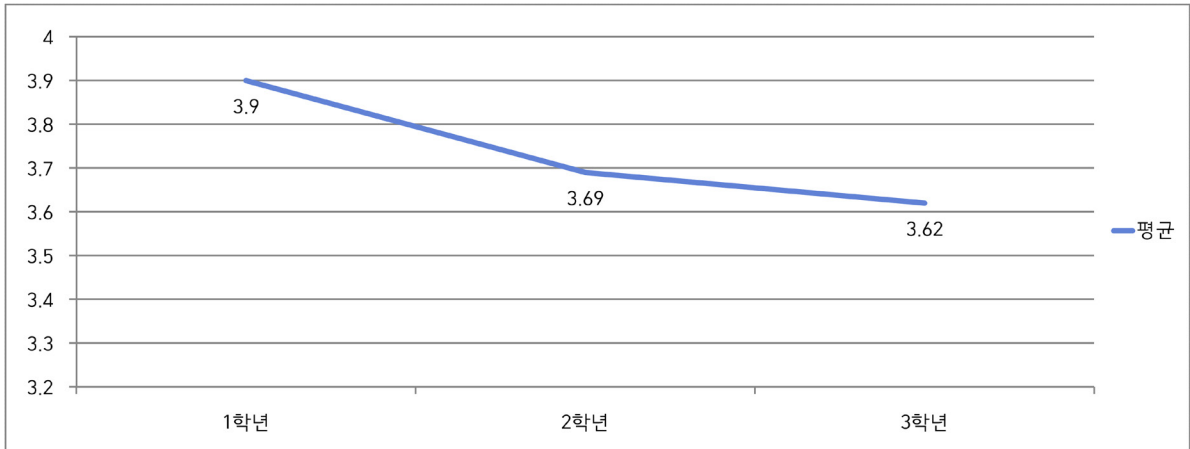
-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90점, 2학년 3.69점, 3학년 3.6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75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90)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3.6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0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1학년(a)	667	3.90	0.92	1.00	5.00	13.62***	a>b,c
	2학년(b)	494	3.69	1.06	1.00	5.00		
	3학년(c)	555	3.62	1.06	1.00	5.00		
	전체	1,716	3.75	1.01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20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1] 평균



❖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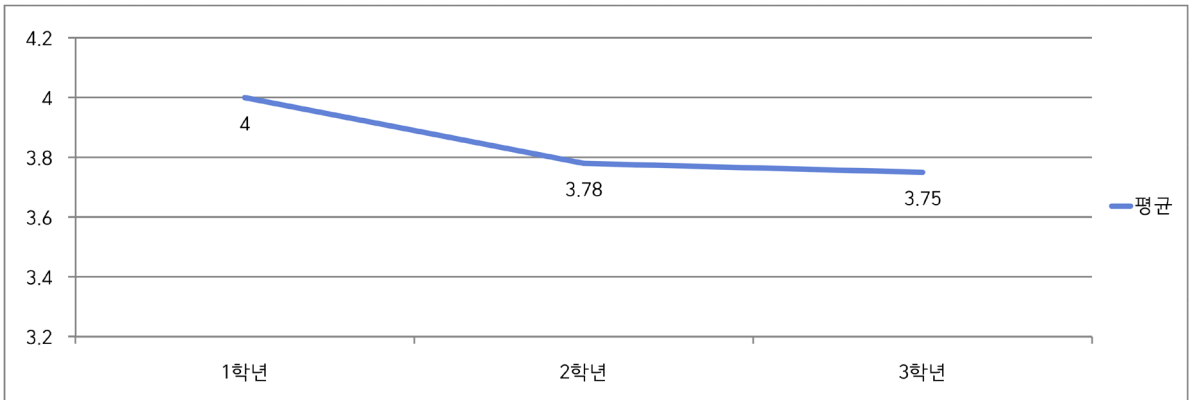
-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학년 4.00점, 2학년 3.78점, 3학년 3.75점으로 드러났고, 전체 평균은 3.86점으로 확인되었다. 1학년의 평균(4.00)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2.4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기초 분석되었다.

표 4-21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1학년(a)	667	4.00	0.90	1.00	5.00	12.42***	a>b,c
	2학년(b)	494	3.78	1.00	1.00	5.00		
	3학년(c)	555	3.75	1.01	1.00	5.00		
	전체	1,716	3.86	0.97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21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2] 평균



❖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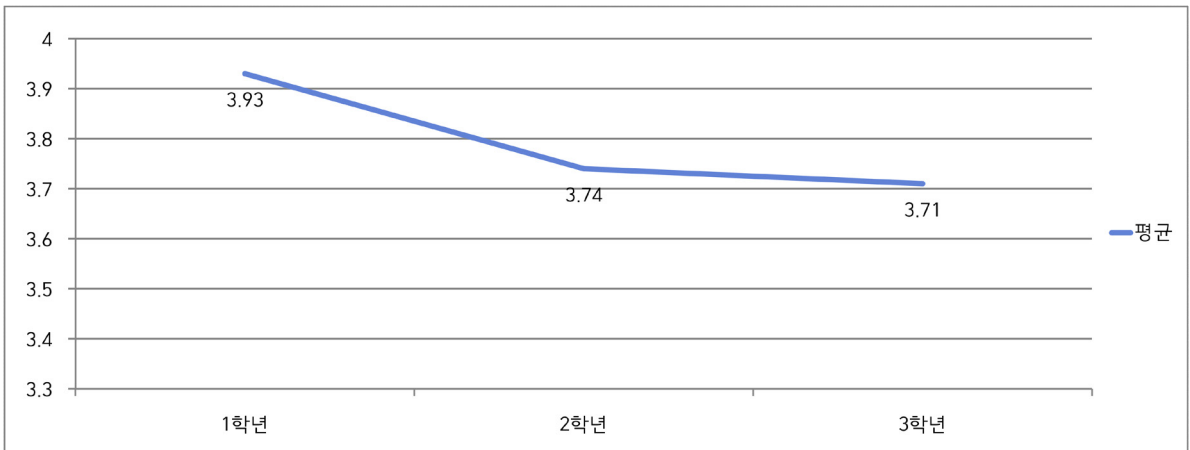
-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93점, 2학년 3.74점, 3학년 3.71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80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93)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9.8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2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3.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1학년(a)	667	3.93	0.90	1.00	5.00	9.82***	a>b,c
	2학년(b)	494	3.74	0.99	1.00	5.00		
	3학년(c)	555	3.71	0.95	1.00	5.00		
	전체	1,716	3.80	0.95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4-22 학년별 자기관리(목표관리)_[문항_3] 평균



❖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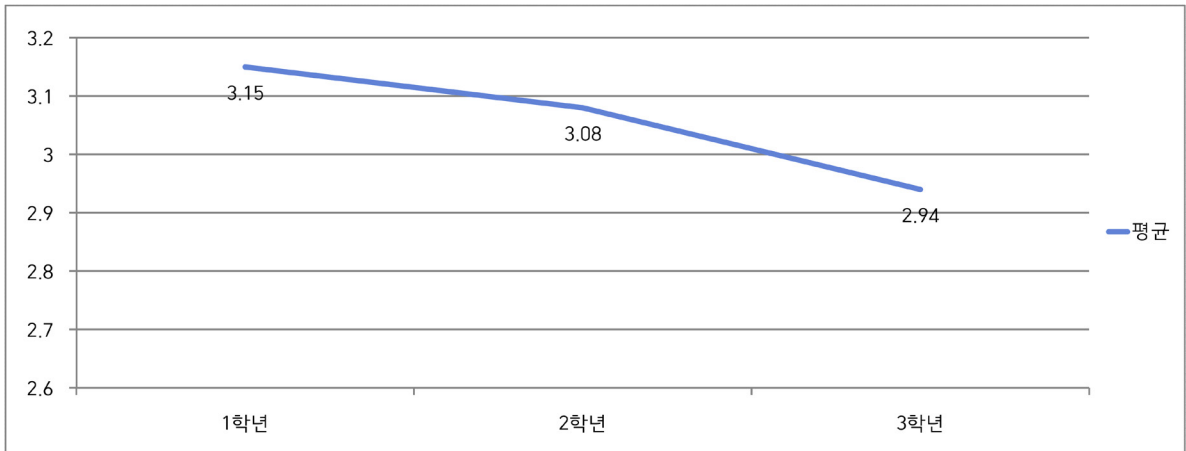
-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15점(N=667), 2학년은 평균 3.08점(N=494), 3학년은 평균 2.94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06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85$,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평균이 3학년(c)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1학년(a)	667	3.15	1.04	1.00	5.00	5.85**	a>c
	2학년(b)	494	3.08	1.10	1.00	5.00		
	3학년(c)	555	2.94	1.06	1.00	5.00		
	전체	1,716	3.06	1.07	1.00	5.00	-	-

** $p<.01$

그림 4-23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 평균



❖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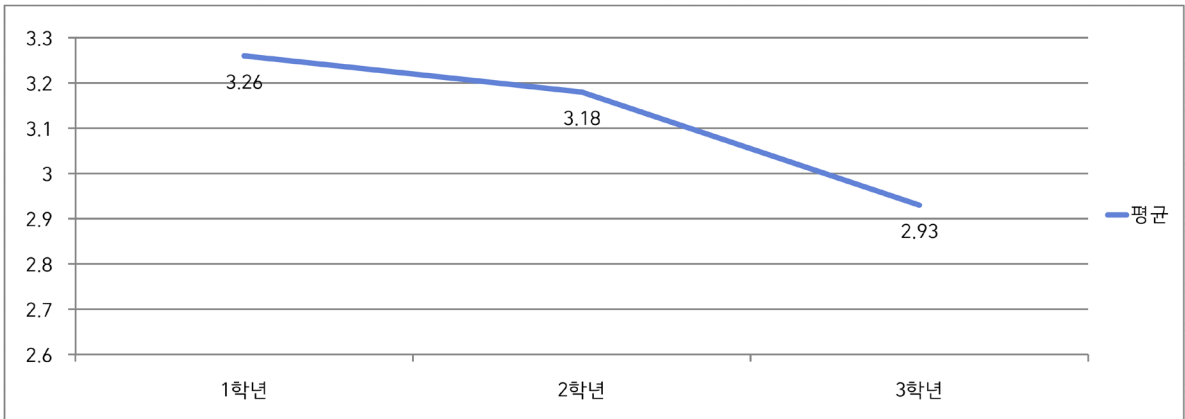
-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26점, 2학년 3.18점, 3학년 2.93점으로 드러났고, 전체 평균은 3.13점으로 확인되었다. 1학년의 평균(3.26)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1.3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4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1학년(a)	667	3.26	1.22	1.00	5.00	11.35***	a,b>c
	2학년(b)	494	3.18	1.25	1.00	5.00		
	3학년(c)	555	2.93	1.25	1.00	5.00		
	전체	1,716	3.13	1.25	1.00	5.00	-	-

*** $p<.001$

그림 4-24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1] 평균



❖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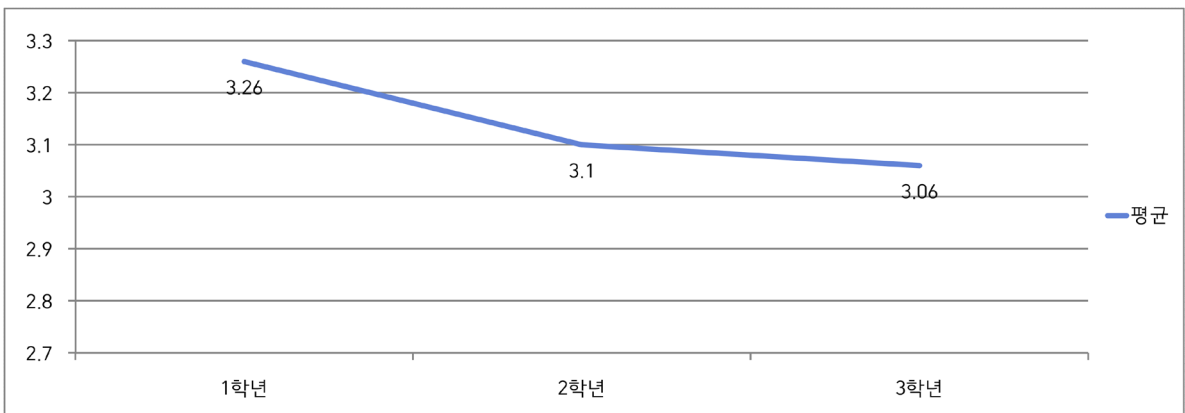
-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학년 3.26점, 2학년 3.10점, 3학년 3.06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15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26)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4.58$,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5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1학년(a)	667	3.26	1.18	1.00	5.00	4.58**	a>c
	2학년(b)	494	3.10	1.27	1.00	5.00		
	3학년(c)	555	3.06	1.23	1.00	5.00		
	전체	1,716	3.15	1.23	1.00	5.00	-	-

** $p<.01$

그림 4-25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2]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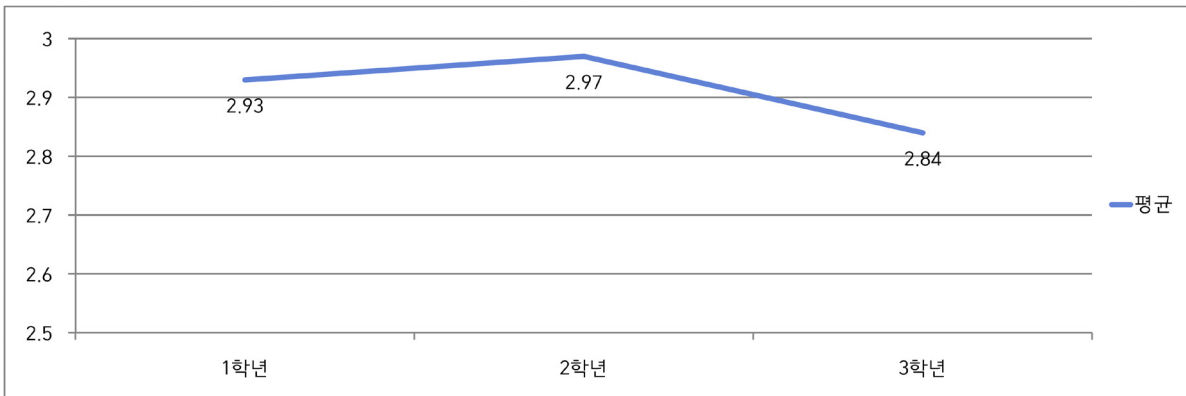
❖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학년 2.93점, 2학년 2.97점, 3학년 2.84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2.91점으로 나타났다. 2학년의 평균(2.97)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4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4-26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1학년(a)	667	2.93	1.28	1.00	5.00	1.44	-
	2학년(b)	494	2.97	1.29	1.00	5.00		
	3학년(c)	555	2.84	1.27	1.00	5.00		
	전체	1,716	2.91	1.28	1.00	5.00	-	-

그림 4-26 학년별 자기관리(학교공부)_[문항_3] 평균



관계기술 영역

❖ 관계기술(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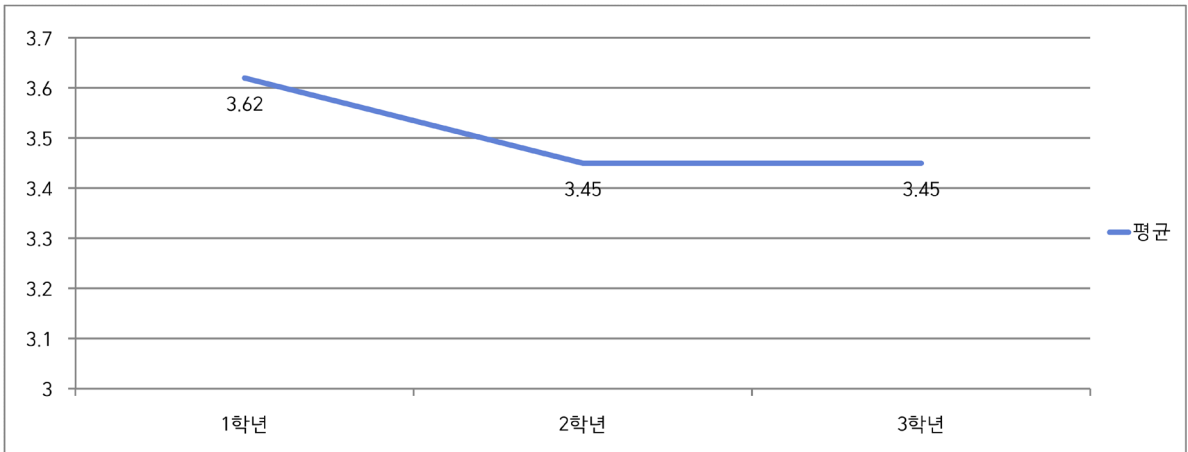
- 관계기술(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62점($N=667$), 2학년은 평균 3.45점($N=494$), 3학년은 평균 3.45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51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6.5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평균이 2학년(b)과 3학년(c)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학년별 관계기술(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관계기술(전체)	1학년(a)	667	3.62	0.91	1.00	5.00	6.55***	a)b,c
	2학년(b)	494	3.45	0.99	1.00	5.00		
	3학년(c)	555	3.45	0.94	1.00	5.00		
	전체	1,716	3.51	0.95	1.00	5.00	-	-

*** $p<.001$

그림 4-27 학년별 관계기술(전체) 평균



❖ 관계기술_ [문항_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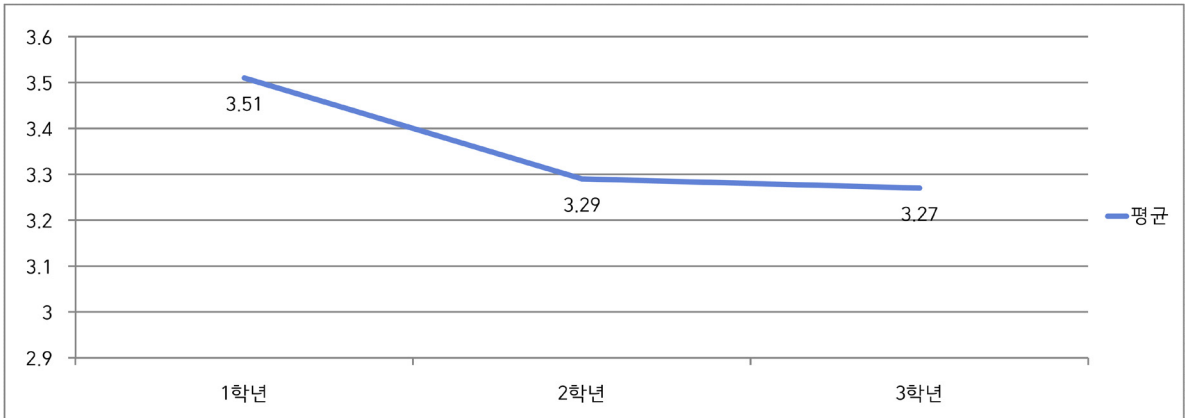
○ 관계기술_ [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학년 3.51점, 2학년 3.29점, 3학년 3.27점으로 드러났고, 전체 평균은 3.37점으로 확인되었다. 1학년의 평균(3.51)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7.4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및 산출되었다.

표 4-28 학년별 관계기술_ [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1학년(a)	667	3.51	1.17	1.00	5.00	7.48***	a>b,c
	2학년(b)	494	3.29	1.24	1.00	5.00		
	3학년(c)	555	3.27	1.18	1.00	5.00		
	전체	1,716	3.37	1.20	1.00	5.00	-	-

*** $p<.001$

그림 4-28 학년별 관계기술_ [문항_1]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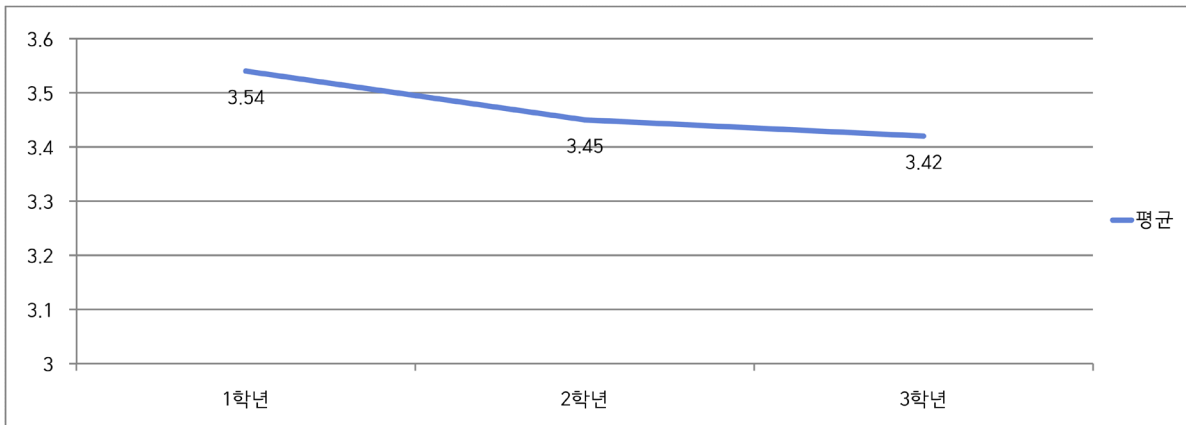


- ❖ 관계기술 [문항_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 관계기술_ [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년 3.54점, 2학년 3.45점, 3학년 3.4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48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3.54)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98$)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표 4-29 학년별 관계기술_ [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1학년(a)	667	3.54	1.13	1.00	5.00	1.98	-
	2학년(b)	494	3.45	1.16	1.00	5.00		
	3학년(c)	555	3.42	1.16	1.00	5.00		
	전체	1,716	3.48	1.15	1.00	5.00	-	-

그림 4-29 학년별 관계기술_ [문항_2]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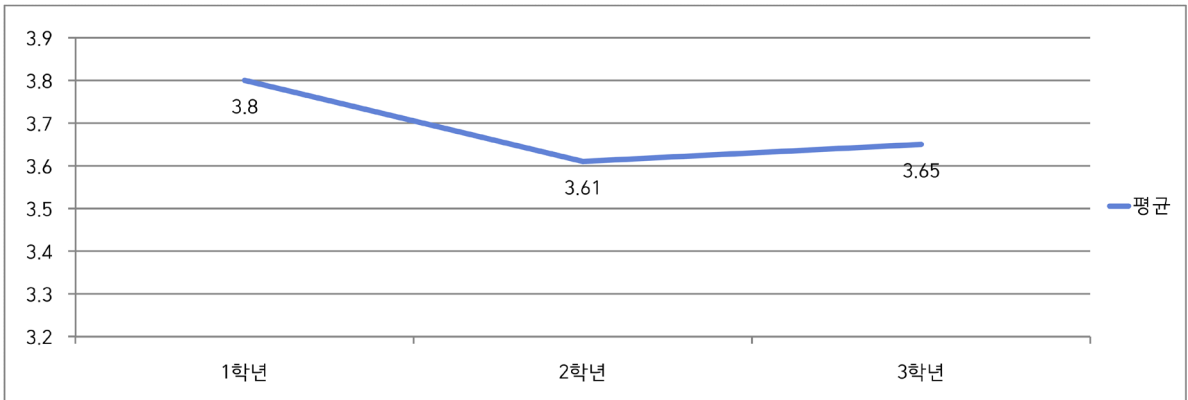
- ❖ 관계기술_ [문항_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 관계기술_ [문항_3]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학년 3.80점, 2학년 3.61점, 3학년 3.65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69점으로 조사되었다. 1학년의 평균(3.80)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15$,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0 학년별 관계기술_ [문항_3]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1학년(a)	667	3.80	1.04	1.00	5.00	5.15**	a)b,c
	2학년(b)	494	3.61	1.14	1.00	5.00		
	3학년(c)	555	3.65	1.09	1.00	5.00		
	전체	1,716	3.69	1.09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1$

그림 4-30 학년별 관계기술_ [문항_3] 평균



책임있는 의사결정

❖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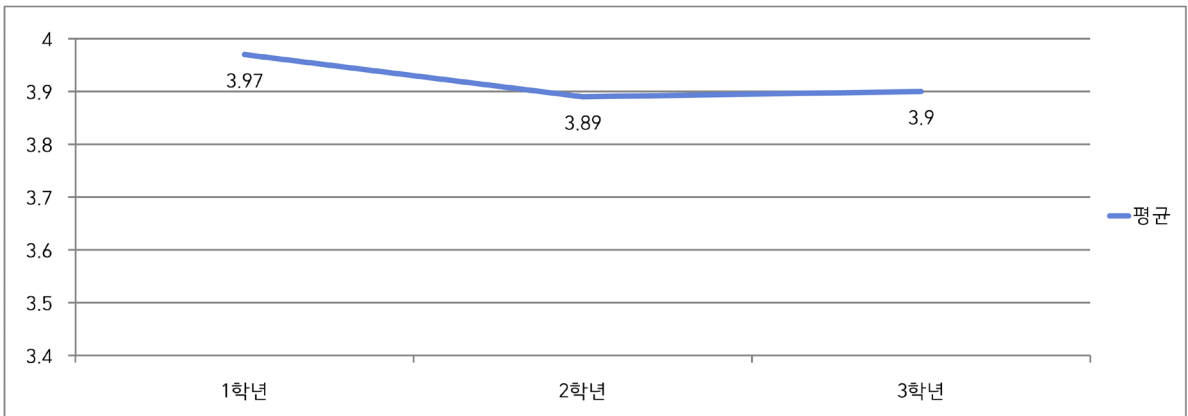
-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97점(N=667), 2학년은 평균 3.89점(N=494), 3학년은 평균 3.90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92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7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1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1학년(a)	667	3.97	0.78	1.00	5.00	1.77	-
	2학년(b)	494	3.89	0.89	1.00	5.00		
	3학년(c)	555	3.90	0.87	1.00	5.00		
	전체	1,716	3.92	0.84	1.00	5.00	-	-

† Welch's ANOVA

그림 4-31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 평균



❖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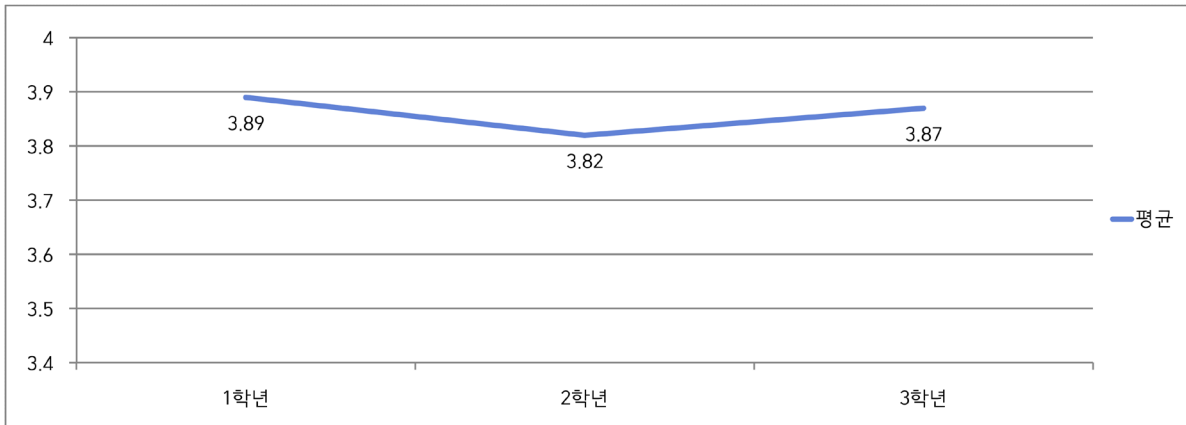
-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1]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 3.89점, 2학년 3.82점, 3학년 3.87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86점으로 도출되었다. 1학년의 평균(3.89)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69$)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및 조사되었다.

표 4-32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1]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1학년(a)	667	3.89	0.89	1.00	5.00	0.69	-
	2학년(b)	494	3.82	1.00	1.00	5.00		
	3학년(c)	555	3.87	1.00	1.00	5.00		
	전체	1,716	3.86	0.96	1.00	5.00	-	-

† Welch's ANOVA

그림 4-32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1] 평균



❖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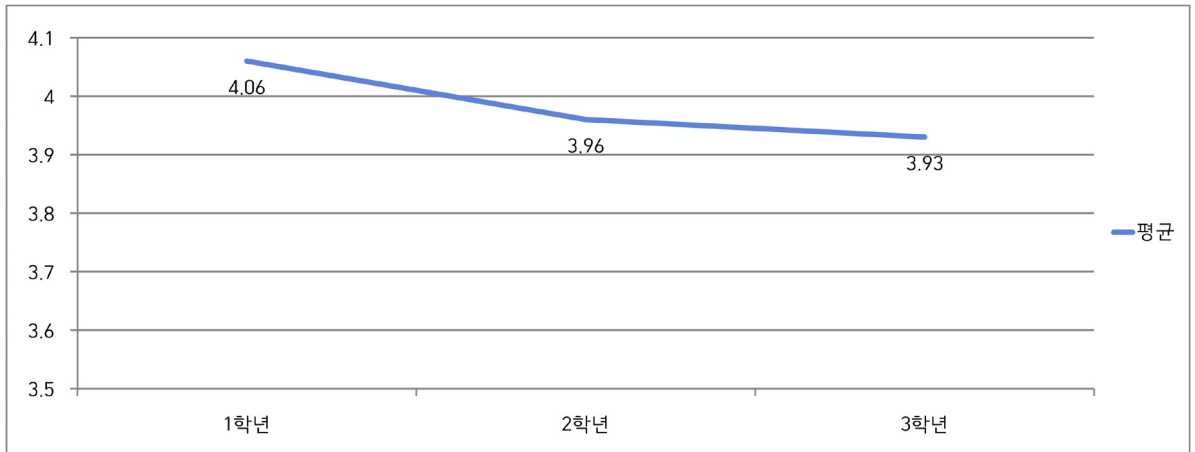
-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2]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학년 4.06점, 2학년 3.96점, 3학년 3.93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평균은 3.99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의 평균(4.06)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3.5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3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2]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1학년(a)	667	4.06	0.84	1.00	5.00	3.54*	a>c
	2학년(b)	494	3.96	0.92	1.00	5.00		
	3학년(c)	555	3.93	0.93	1.00	5.00		
	전체	1,716	3.99	0.90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5$

그림 4-33 학년별 책임있는 의사결정_[문항_2] 평균





V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제 V 장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개요

- 5장에서는 선행연구 등에서 학생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정서역량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인 사회적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의 학생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모양육태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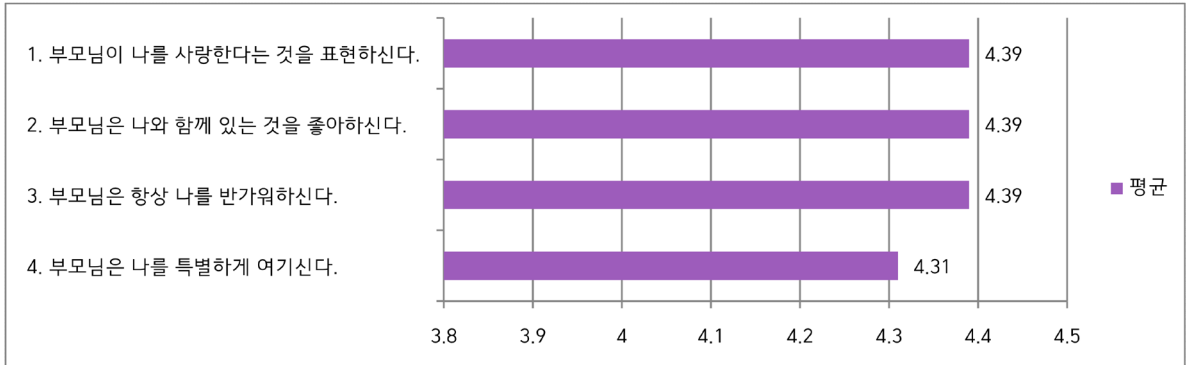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따스함)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따스함)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부모양육태도(따스함)(전체)는 평균 4.37점으로 '그렇다'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는 각 4.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4.31점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1.22~1.47, 첨도 절댓값은 0.86~1.87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4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표 5-1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1,716	1.00	5.00	4.39	0.89	-1.47	1.76	0.92	0.94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1,716	1.00	5.00	4.39	0.85	-1.37	1.62	0.91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1,716	1.00	5.00	4.39	0.86	-1.44	1.87	0.91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1,716	1.00	5.00	4.31	0.94	-1.22	0.86	0.93	
부모양육태도(따스함)	1,716	1.00	5.00	4.37	0.81	-1.34	1.61	-	-

그림 5-1 부모양육태도(파스함)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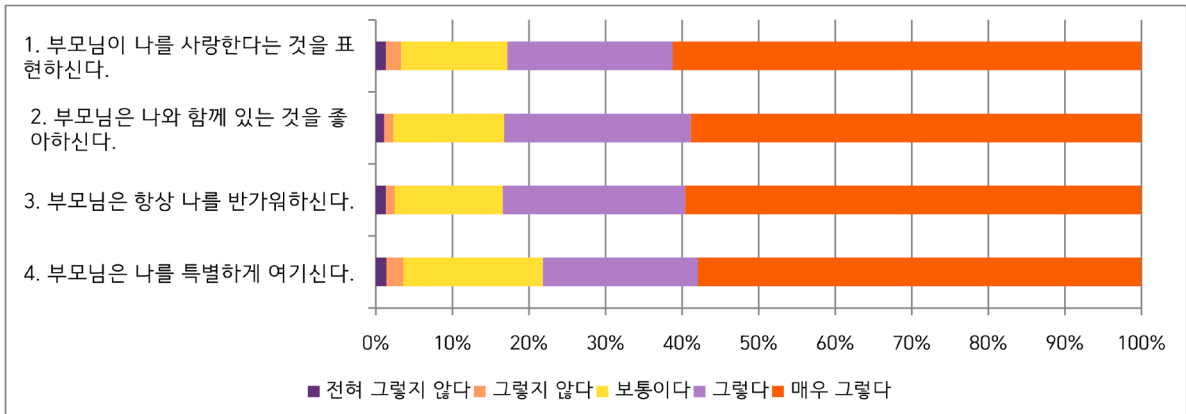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파스함)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알아 보면,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매우 그렇다] 61.2%(1,051명), [그렇다] 21.6%(370명), [보통이다] 13.9%(238명)로 나타났으며,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매우 그렇다] 58.9%(1,010명), [그렇다] 24.4%(418명), [보통이다] 14.5%(249명)로 산출되었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는 [매우 그렇다] 59.6%(1,023명), [그렇다] 23.8%(408명), [보통이다] 14.1%(242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5-2 부모양육태도(파스함)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2	1.3%	35	2.0%	238	13.9%	370	21.6%	1,051	61.2%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19	1.1%	20	1.2%	249	14.5%	418	24.4%	1,010	58.9%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22	1.3%	21	1.2%	242	14.1%	408	23.8%	1,023	59.6%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24	1.4%	38	2.2%	313	18.2%	348	20.3%	993	57.9%

그림 5-2 부모양육태도(파스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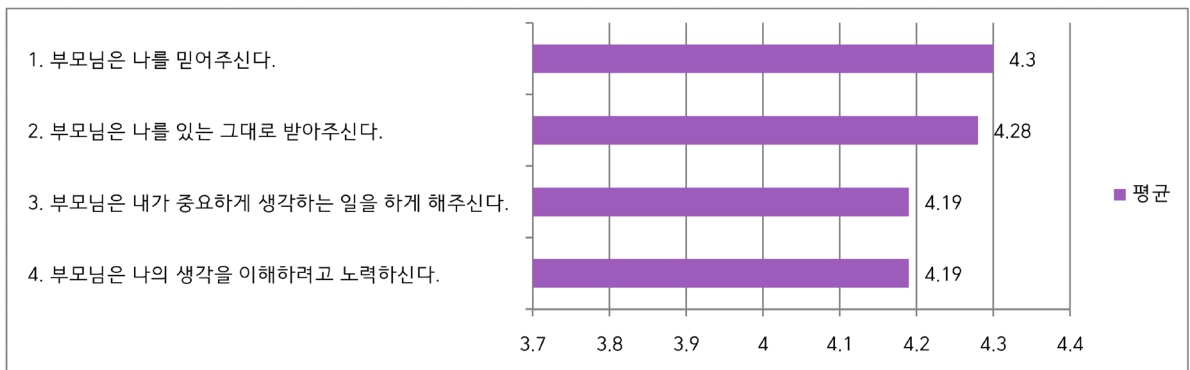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전체)는 평균 4.24점으로 ‘그렇다’ 보다 높으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4.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와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각 4.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1.14~1.33, 첨도 절댓값은 0.65~1.22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2로 나타났다.

표 5-3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1,716	1.00	5.00	4.30	0.96	-1.33	1.22	0.89	0.92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1,716	1.00	5.00	4.28	0.95	-1.24	1.00	0.89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1,716	1.00	5.00	4.19	1.01	-1.14	0.65	0.90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716	1.00	5.00	4.19	1.00	-1.16	0.76	0.90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1,716	1.00	5.00	4.24	0.88	-1.16	0.96	-	-

그림 5-3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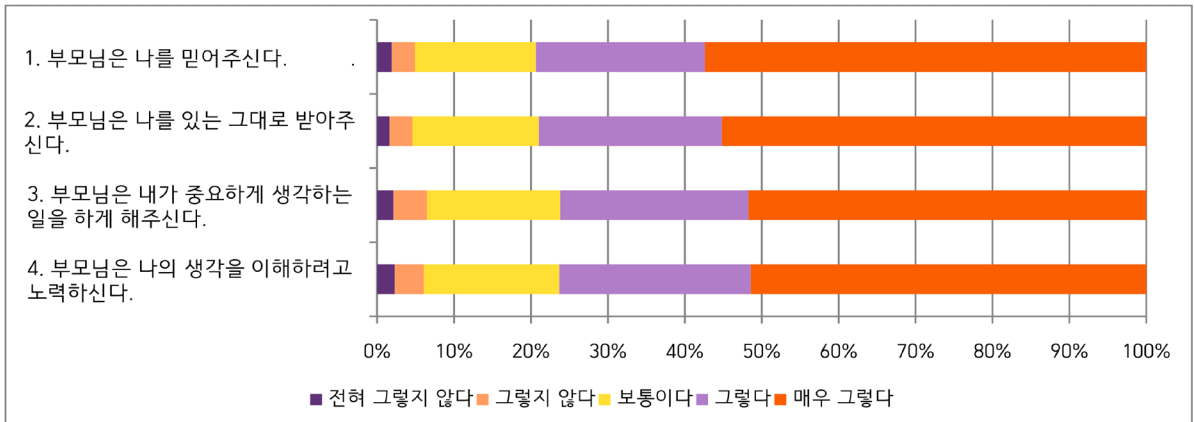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57.3%(984명), [그렇다] 22.0%(378명), [보통이다] 15.7%(270명)로 나타났으며,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55.2%(948명), [그렇다] 23.8%(408명), [보통이다] 16.4%(282명)로 조사되었다.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51.7%(887명), [그렇다] 24.5%(421명), [보통이다] 17.3%(297명)로 나타났다.

표 5-4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32	1.9%	52	3.0%	270	15.7%	378	22.0%	984	57.3%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27	1.6%	51	3.0%	282	16.4%	408	23.8%	948	55.2%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36	2.1%	75	4.4%	297	17.3%	421	24.5%	887	51.7%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39	2.3%	65	3.8%	302	17.6%	427	24.9%	883	51.5%

그림 5-4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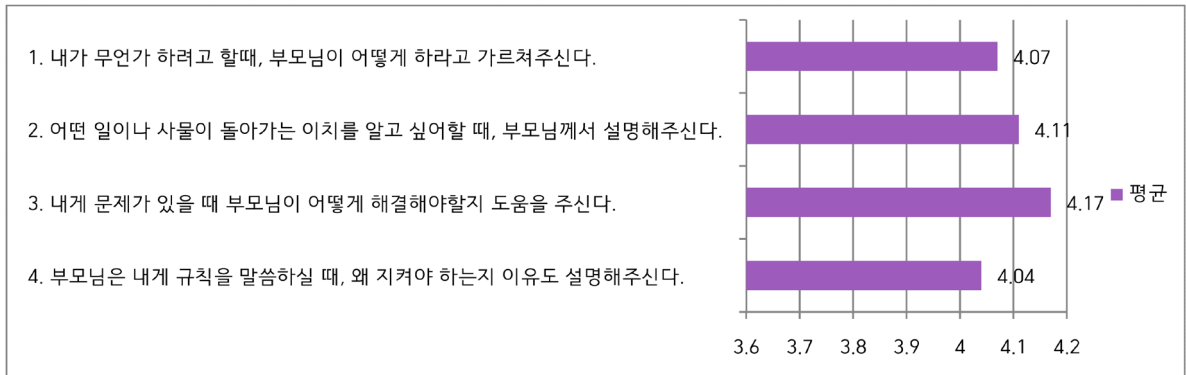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전체)는 평균 4.10점으로 '그렇다'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는 4.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는 4.0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92~1.04, 첨도 절댓값은 0.14~0.57로 자료 정규성은 문제는 없었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1로 확인 및 조사되었다.

표 5-5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	1,716	1.00	5.00	4.07	1.02	-0.93	0.28	0.89	0.91
2.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1,716	1.00	5.00	4.11	1.02	-0.98	0.30	0.87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1,716	1.00	5.00	4.17	0.97	-1.04	0.57	0.86	
4.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1,716	1.00	5.00	4.04	1.06	-0.92	0.14	0.89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1,716	1.00	5.00	4.10	0.90	-0.82	0.13	-	-

그림 5-5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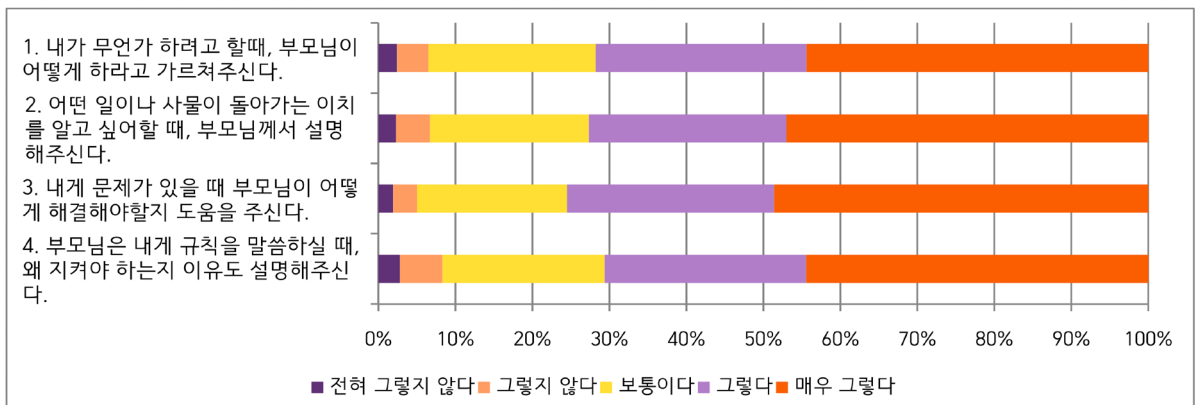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의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8.6%(834명), [그렇다] 26.9%(461명), [보통이다] 19.5%(335명)으로 나타났으며, '2.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7.0%(807명), [그렇다] 25.7%(441명), [보통이다] 20.6%(354명)로 산출되었다. '1.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4.4%(762명), [그렇다] 27.4%(470명), [보통이다] 21.7%(373명)으로 도출되었다.

표 5-6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	41	2.4%	70	4.1%	373	21.7%	470	27.4%	762	44.4%
2.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39	2.3%	75	4.4%	354	20.6%	441	25.7%	807	47.0%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32	1.9%	54	3.1%	335	19.5%	461	26.9%	834	48.6%
4.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48	2.8%	94	5.5%	362	21.1%	449	26.2%	763	44.5%

그림 5-6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비율



교사와의 관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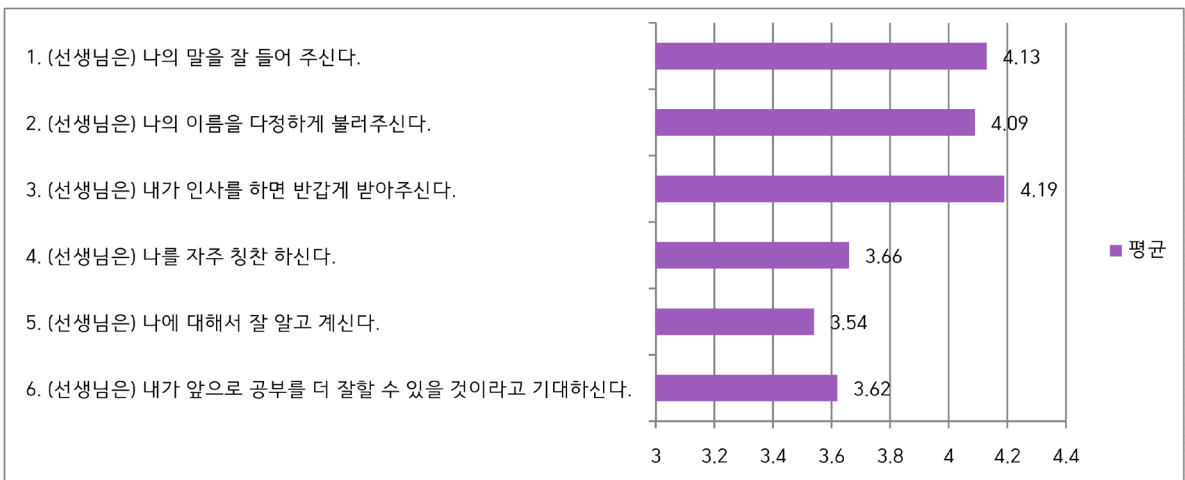
❖ 교사와의 관계

-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는 6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교사와의 관계(전체)는 평균 3.87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4.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3.5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8~1.12, 첨도 절댓값은 0.34~0.90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2로 드러났다.

표 5-7 교사와의 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선생님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1,716	1.00	5.00	4.13	0.96	-1.00	0.62	0.90	0.92
2.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1,716	1.00	5.00	4.09	1.01	-1.00	0.56	0.90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1,716	1.00	5.00	4.19	0.96	-1.12	0.90	0.90	
4. (선생님은)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1,716	1.00	5.00	3.66	1.12	-0.43	-0.47	0.90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1,716	1.00	5.00	3.54	1.10	-0.28	-0.50	0.90	
6.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1,716	1.00	5.00	3.62	1.08	-0.37	-0.34	0.91	
교사와의 관계(전체)	1,716	1.00	5.00	3.87	0.87	-0.63	0.29	-	-

그림 5-7 교사와의 관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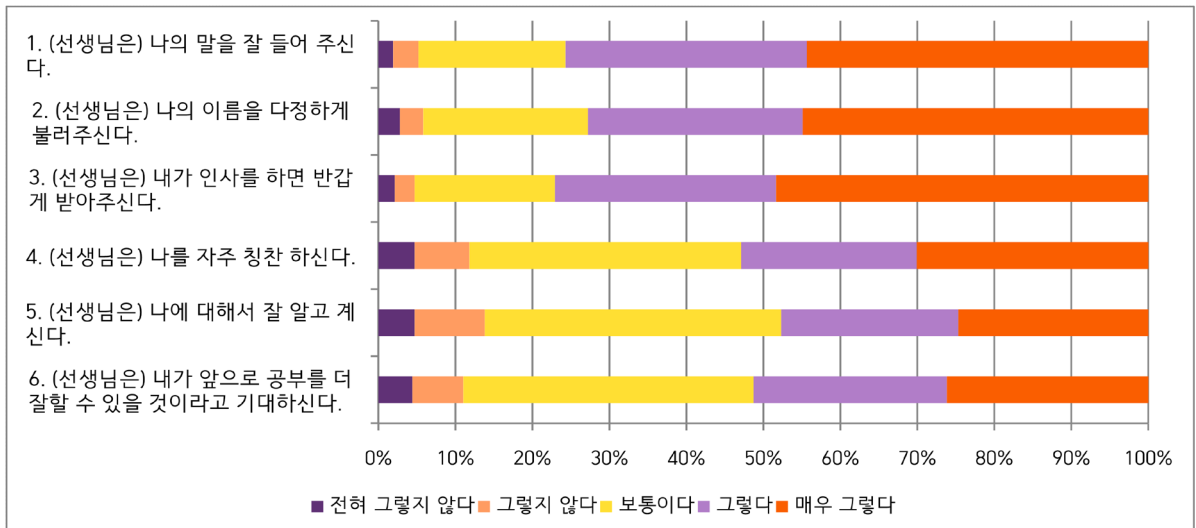


-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8.3%(829명), [그렇다] 28.7%(493명), [보통이다] 18.2%(313명)으로 나타났으며, '1. (선생님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4.4%(762명), [그렇다] 31.4%(538명), [보통이다] 19.1%(328명)로 조사되었다. '2.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는 [매우 그렇다] 44.9%(771명), [그렇다] 27.9%(479명), [보통이다] 21.4%(36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5-8 교사와의 관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선생님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32	1.9%	56	3.3%	328	19.1%	538	31.4%	762	44.4%
2.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48	2.8%	51	3.0%	367	21.4%	479	27.9%	771	44.9%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36	2.1%	45	2.6%	313	18.2%	493	28.7%	829	48.3%
4. (선생님은)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81	4.7%	122	7.1%	606	35.3%	391	22.8%	516	30.1%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81	4.7%	156	9.1%	661	38.5%	394	23.0%	424	24.7%
6.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76	4.4%	113	6.6%	647	37.7%	430	25.1%	450	26.2%

그림 5-8 교사와의 관계 비율



친구관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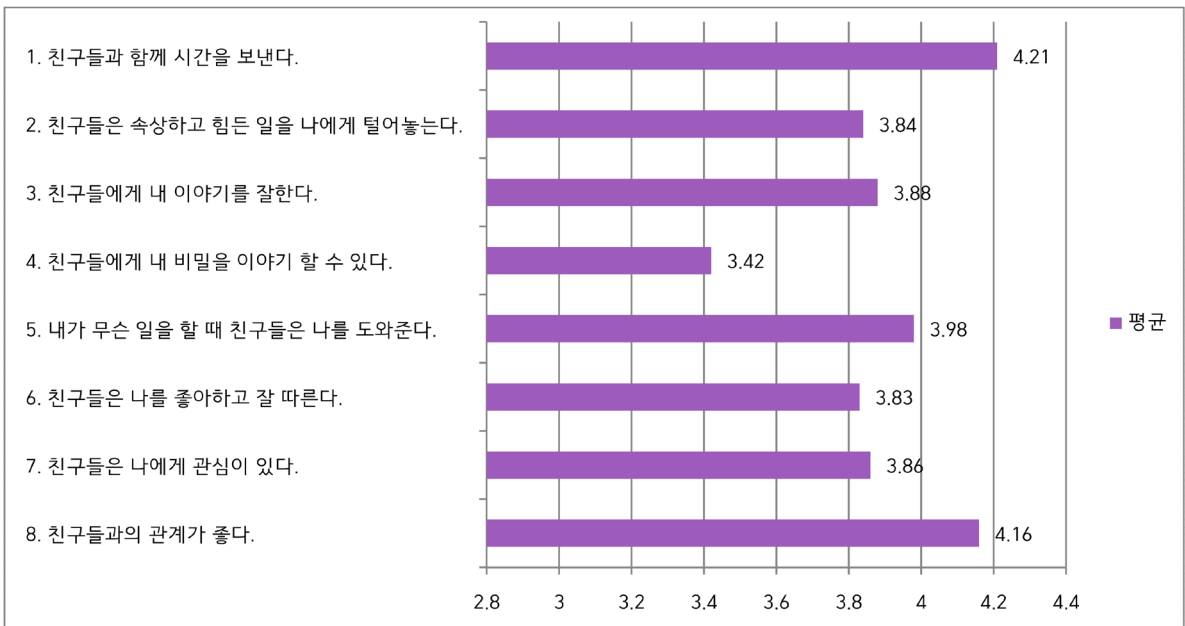
❖ 친구관계

- 중학생의 친구관계는 8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친구관계(전체)는 평균 3.90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4.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3.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40~1.23, 첨도 절댓값은 0.02~1.09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3로 분석되었다.

표 5-9 친구관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1,716	1.00	5.00	4.21	0.98	-1.23	1.09	0.92	0.93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1,716	1.00	5.00	3.84	1.14	-0.75	-0.22	0.92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1,716	1.00	5.00	3.88	1.13	-0.84	0.02	0.92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1,716	1.00	5.00	3.42	1.33	-0.40	-0.93	0.93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1,716	1.00	5.00	3.98	0.98	-0.79	0.31	0.92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1,716	1.00	5.00	3.83	1.02	-0.63	0.06	0.91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1,716	1.00	5.00	3.86	1.00	-0.62	-0.02	0.92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1,716	1.00	5.00	4.16	0.94	-1.02	0.73	0.92	
친구관계(전체)	1,716	1.00	5.00	3.90	0.88	-0.65	0.19	-	-

그림 5-9 친구관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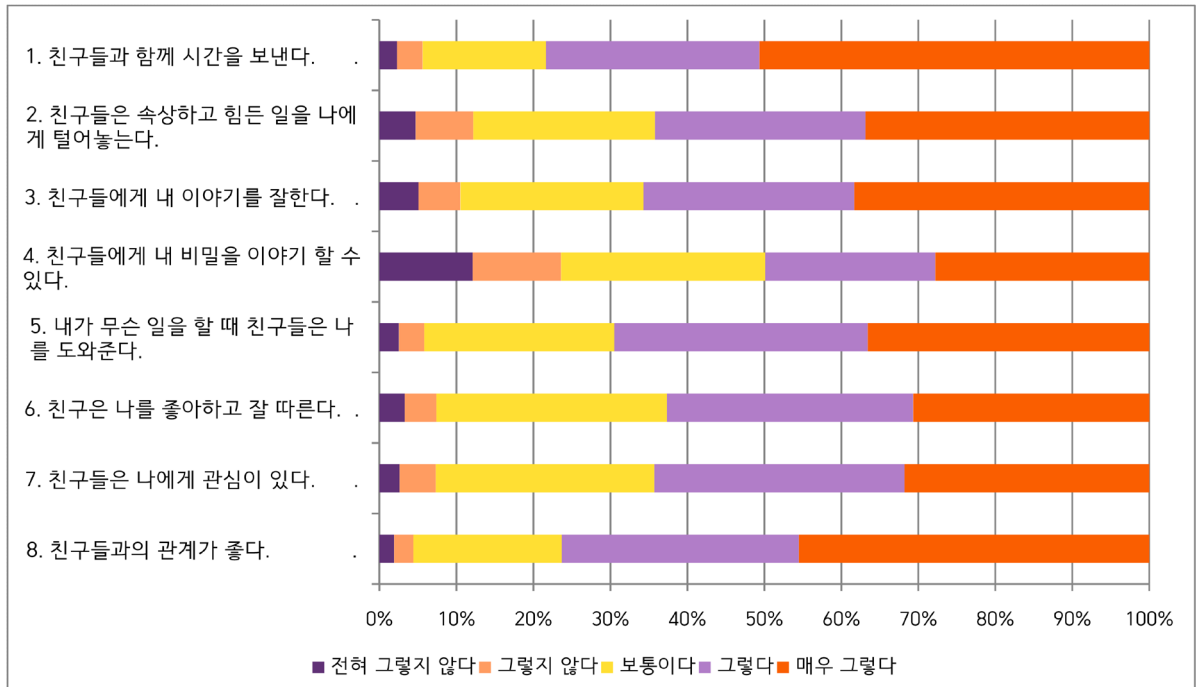


- 중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매우 그렇다] 50.6%(869명), [그렇다] 27.7%(476명), [보통이다] 16.0%(275명)로 나타났으며,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매우 그렇다] 45.5%(780명), [그렇다] 30.8%(529명), [보통이다] 19.3%(332명)로 조사되었다.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는 [매우 그렇다] 36.6%(628명), [그렇다] 32.9%(565명), [보통이다] 24.7%(424명)으로 드러났다.

표 5-10 친구관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39	2.3%	57	3.3%	275	16.0%	476	27.7%	869	50.6%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80	4.7%	128	7.5%	405	23.6%	470	27.4%	633	36.9%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88	5.1%	92	5.4%	408	23.8%	470	27.4%	658	38.3%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208	12.1%	198	11.5%	454	26.5%	379	22.1%	477	27.8%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43	2.5%	56	3.3%	424	24.7%	565	32.9%	628	36.6%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56	3.3%	70	4.1%	514	30.0%	549	32.0%	527	30.7%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45	2.6%	80	4.7%	488	28.4%	558	32.5%	545	31.8%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32	1.9%	43	2.5%	332	19.3%	529	30.8%	780	45.5%

그림 5-10 친구관계 비율



학업열의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열의(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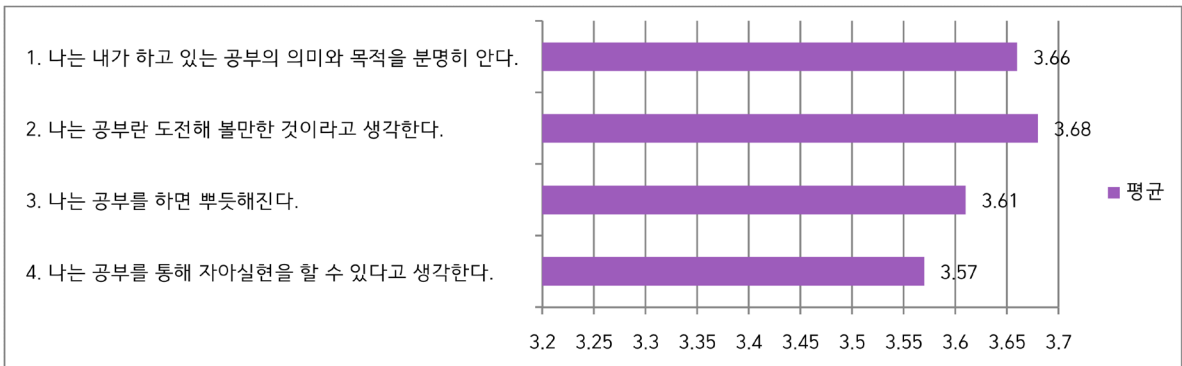
❖ 학업열의(헌신)

- 중학생의 학업열의(헌신)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학업열의(헌신)(전체)는 평균 3.63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3.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3.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41~0.60, 첨도 절댓값은 0.41~0.53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8로 산출되었다.

표 5-11 학업열의(헌신)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1,716	1.00	5.00	3.66	1.15	-0.52	-0.50	0.87	0.88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716	1.00	5.00	3.68	1.16	-0.60	-0.41	0.83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1,716	1.00	5.00	3.61	1.22	-0.57	-0.53	0.86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16	1.00	5.00	3.57	1.15	-0.41	-0.51	0.84	
학업열의(헌신)	1,716	1.00	5.00	3.63	1.01	-0.42	-0.35	-	-

그림 5-11 학업열의(헌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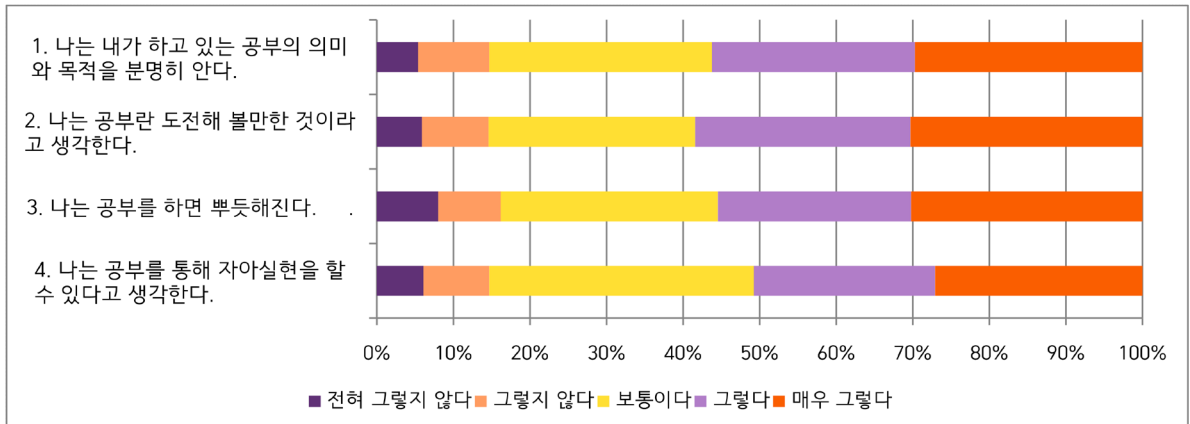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열의(헌신)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매우 그렇다] 30.3%(520명), [그렇다] 28.1%(482명), [보통이다] 27.0%(463명)로 나타났으며,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는 [매우 그렇다] 29.7%(509명), [그렇다] 26.5%(455명), [보통이다] 29.1%(500명)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는 [매우 그렇다] 30.2%(519명), [그렇다] 25.2%(433명), [보통이다] 28.3%(485명)로 확인되었다.

표 5-12 학업열의(헌신)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92	5.4%	160	9.3%	500	29.1%	455	26.5%	509	29.7%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02	5.9%	149	8.7%	463	27.0%	482	28.1%	520	30.3%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138	8.0%	141	8.2%	485	28.3%	433	25.2%	519	30.2%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4	6.1%	148	8.6%	593	34.6%	406	23.7%	465	27.1%

그림 5-12 학업열의(헌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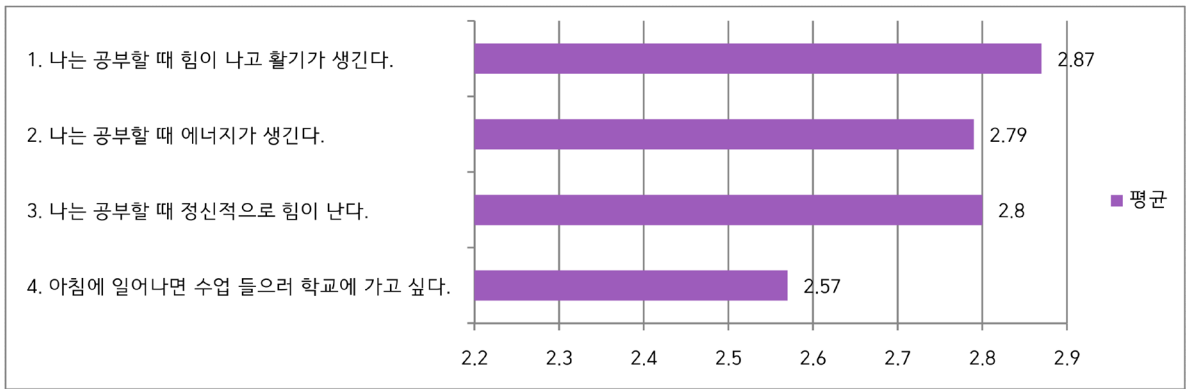
❖ 학업열의(활기)

- 중학생의 학업열의(활기)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학업열의(활기)(전체)는 평균 2.76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낮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는 2.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는 2.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17~0.43, 첨도 절댓값은 0.95~0.99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3로 나타났다.

표 5-13 학업열의(활기)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1,716	1.00	5.00	2.87	1.31	0.17	-0.97	0.90	0.93
2.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1,716	1.00	5.00	2.79	1.32	0.28	-0.95	0.89	
3.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1,716	1.00	5.00	2.80	1.33	0.24	-0.99	0.90	
4.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1,716	1.00	5.00	2.57	1.37	0.43	-0.97	0.95	
학업열의(활기)	1,716	1.00	5.00	2.76	1.21	0.32	-0.77	-	-

그림 5-13 학업열의(활기)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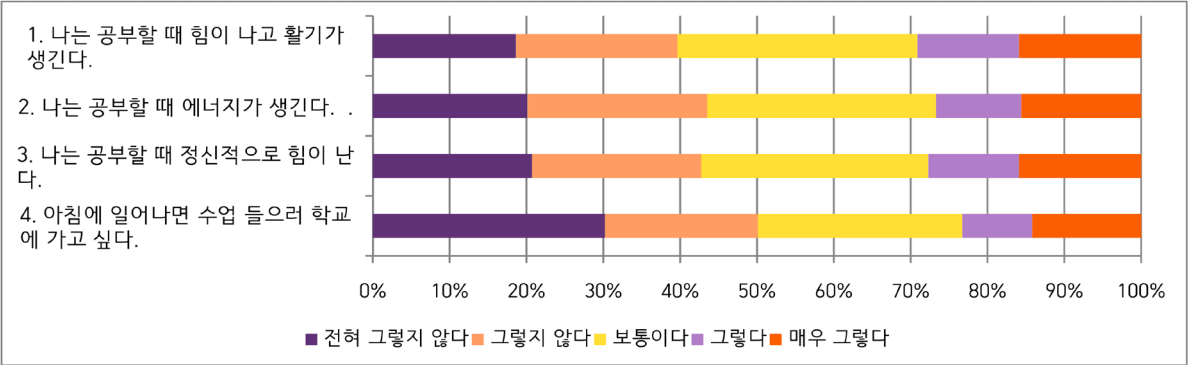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열의(활기)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는 [매우 그렇다] 15.9%(272명), [그렇다] 13.2%(227명), [보통이다] 31.2%(536명)로 나타났으며, ‘3.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는 [매우 그렇다] 15.9%(272명), [그렇다] 11.8%(203명), [보통이다] 29.5%(507명)로 조사되었다. ‘2.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는 [매우 그렇다] 15.6%(268명), [그렇다] 11.1%(191명), [보통이다] 29.8%(511명)으로 산출되었다.

표 5-14 학업열의(활기)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320	18.6%	361	21.0%	536	31.2%	227	13.2%	272	15.9%
2.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345	20.1%	401	23.4%	511	29.8%	191	11.1%	268	15.6%
3.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356	20.7%	378	22.0%	507	29.5%	203	11.8%	272	15.9%
4.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519	30.2%	342	19.9%	456	26.6%	156	9.1%	243	14.2%

그림 5-14 학업열의(활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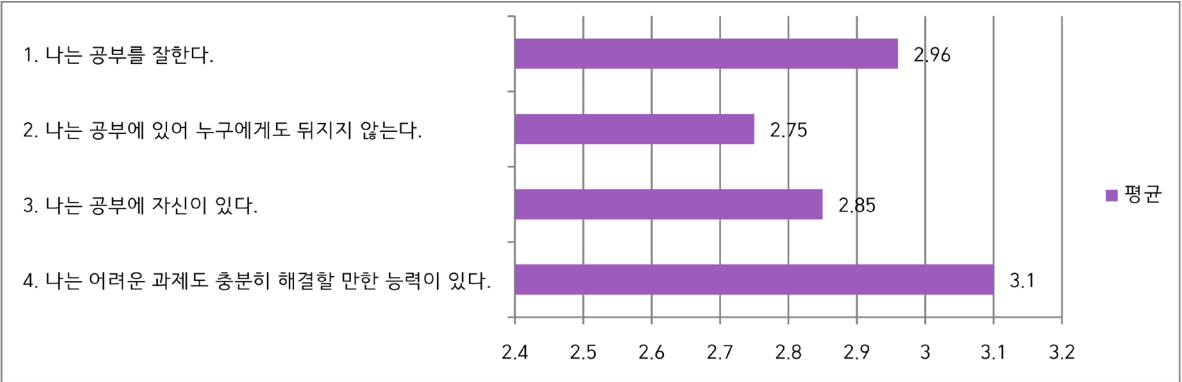
❖ 학업열의(효능감)

○ 중학생의 학업열의(효능감)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되었다. 학업열의(효능감)(전체)는 평균 2.92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낮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3.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2.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2.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2~0.25, 첨도 절댓값은 0.91~1.00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3로 나타났다.

표 5-15 학업열의(효능감)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1,716	1.00	5.00	2.96	1.28	0.02	-0.91	0.91	0.93
2.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1,716	1.00	5.00	2.75	1.31	0.25	-0.93	0.91	
3.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1,716	1.00	5.00	2.85	1.32	0.15	-1.00	0.90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1,716	1.00	5.00	3.10	1.27	-0.06	-0.93	0.93	
학업열의(효능감)	1,716	1.00	5.00	2.92	1.18	0.15	-0.79	-	-

그림 5-15 학업열의(효능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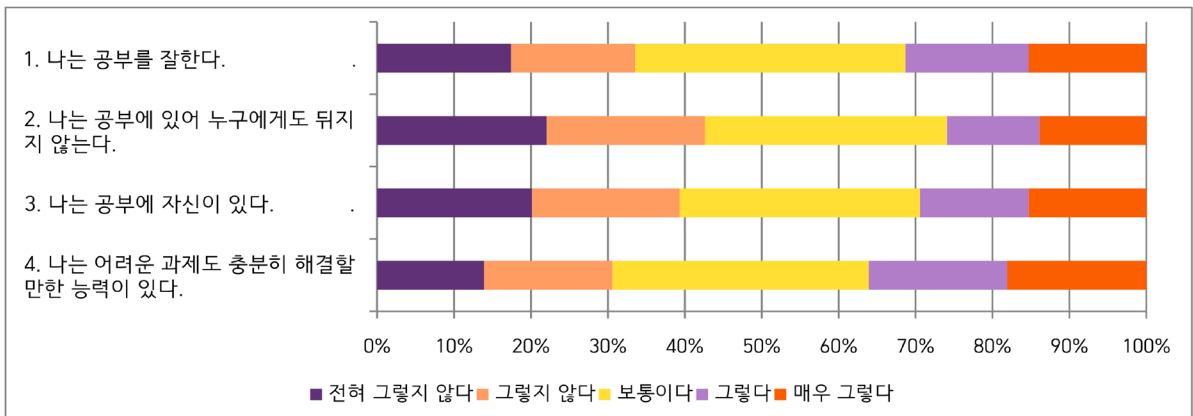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열의(효능감)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 18.1%(311명), [그렇다] 18.0%(309명), [보통이다] 33.3%(571명)로 나타났으며, ‘1.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매우 그렇다] 15.3%(263명), [그렇다] 16.0%(275명), [보통이다] 35.1%(603명)로 조사되었다. ‘3.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 15.3%(263명), [그렇다] 14.1%(242명), [보통이다] 31.2%(536명)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표 5-16 학업열의(효능감)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298	17.4%	277	16.1%	603	35.1%	275	16.0%	263	15.3%
2.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378	22.0%	354	20.6%	539	31.4%	206	12.0%	239	13.9%
3.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345	20.1%	330	19.2%	536	31.2%	242	14.1%	263	15.3%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239	13.9%	286	16.7%	571	33.3%	309	18.0%	311	18.1%

그림 5-16 학업열의(효능감) 비율



❖ 학업열의(몰두)

- 중학생의 학업열의(몰두)는 4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 및 측정되었다. 학업열의(몰두)(전체)는 평균 3.07점으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3.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는 2.7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03~0.68, 첨도 절댓값은 0.25~1.04로 자료 정규성은 만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87로 드러났다.

표 5-17 학업열의(몰두)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 Cronbach's α	Cronbach's α
1.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1,716	1.00	5.00	2.83	1.24	0.25	-0.80	0.83	0.87
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1,716	1.00	5.00	2.74	1.27	0.29	-0.85	0.80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1,716	1.00	5.00	3.65	1.17	-0.68	-0.25	0.85	
4.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1,716	1.00	5.00	3.03	1.32	-0.03	-1.04	0.83	
학업열의(몰두)	1,716	1.00	5.00	3.07	1.06	0.05	-0.48	-	-

○ 중학생의 학업열의(몰두)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살펴 보면,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매우 그렇다] 27.8%(477명), [그렇다] 31.8%(545명), [보통이다] 25.8%(442명)로 나타났으며, ‘4.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는 [매우 그렇다] 17.8%(305명), [그렇다] 18.2%(312명), [보통이다] 30.3%(520명)로 조사되었다. ‘1.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매우 그렇다] 13.5%(232명), [그렇다] 13.1%(224명), [보통이다] 32.5%(557명)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5-17 학업열의(몰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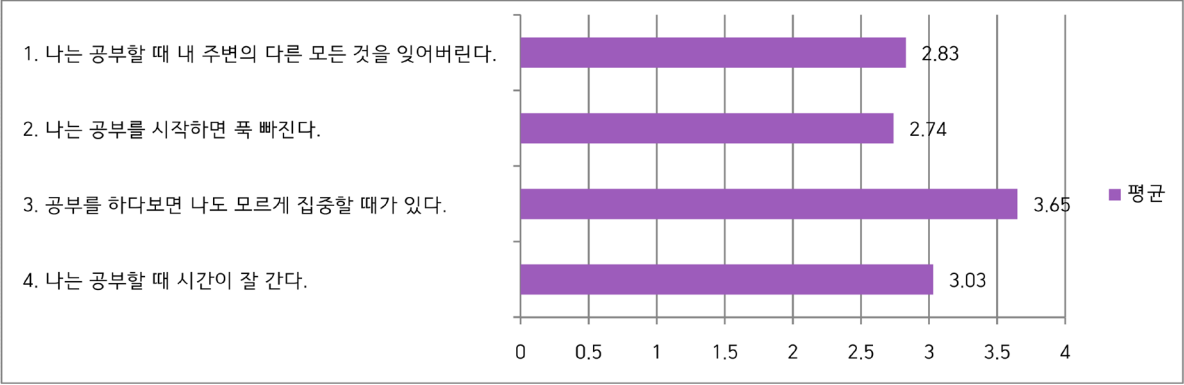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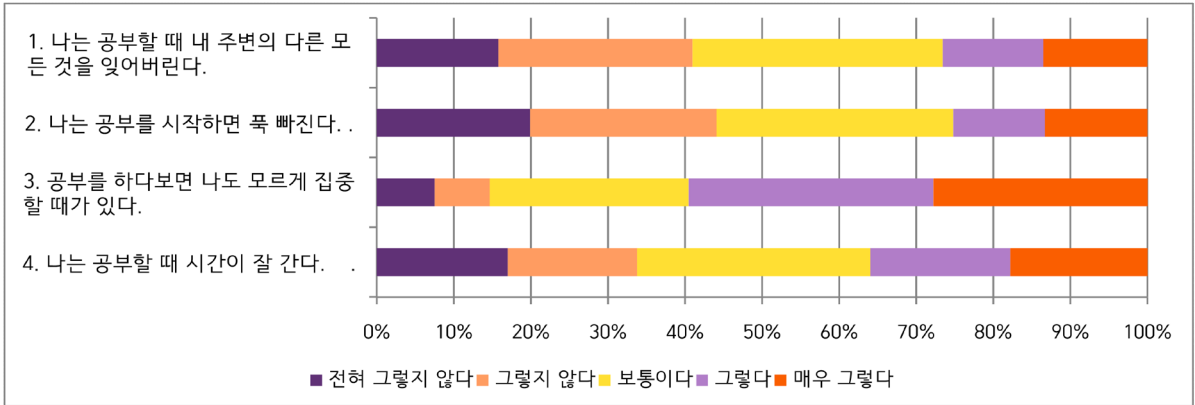


표 5-18 학업열의(몰두)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271	15.8%	432	25.2%	557	32.5%	224	13.1%	232	13.5%
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341	19.9%	416	24.2%	527	30.7%	204	11.9%	228	13.3%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128	7.5%	124	7.2%	442	25.8%	545	31.8%	477	27.8%
4.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291	17.0%	288	16.8%	520	30.3%	312	18.2%	305	17.8%

그림 5-18 학업열의(몰두) 비율



삶의 만족도 영역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하위 설문 문항별 기술통계 및 신뢰도, 전체 평균, 점수 순에 따른 응답 비율 및 인원 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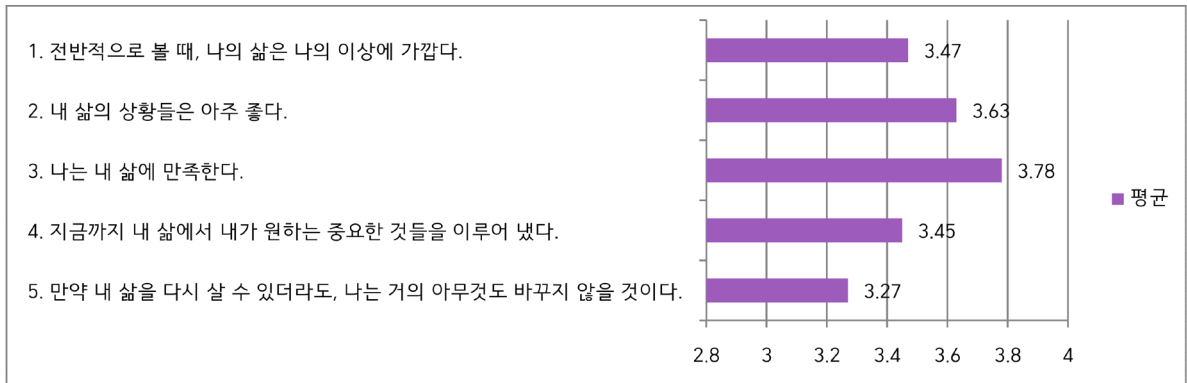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5개의 하위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삶의 만족도(전체)는 평균 3.52점으로 ‘보통이다’보다 높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3.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는 3.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설문 문항의 왜도 절댓값은 0.24~0.67, 첨도 절댓값은 0.28~1.16로 자료 정규성은 충족하였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는 0.91로 드러났다.

표 5-19 삶의 만족도 기술통계 및 신뢰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Cronbach's α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1,716	1.00	5.00	3.47	1.16	-0.31	-0.60	0.89	0.91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1,716	1.00	5.00	3.63	1.14	-0.45	-0.52	0.87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1,716	1.00	5.00	3.78	1.13	-0.67	-0.28	0.88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1,716	1.00	5.00	3.45	1.16	-0.30	-0.66	0.88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716	1.00	5.00	3.27	1.39	-0.24	-1.16	0.91	
삶의 만족도	1,716	1.00	5.00	3.52	1.02	-0.29	-0.52	-	-

그림 5-19 삶의 만족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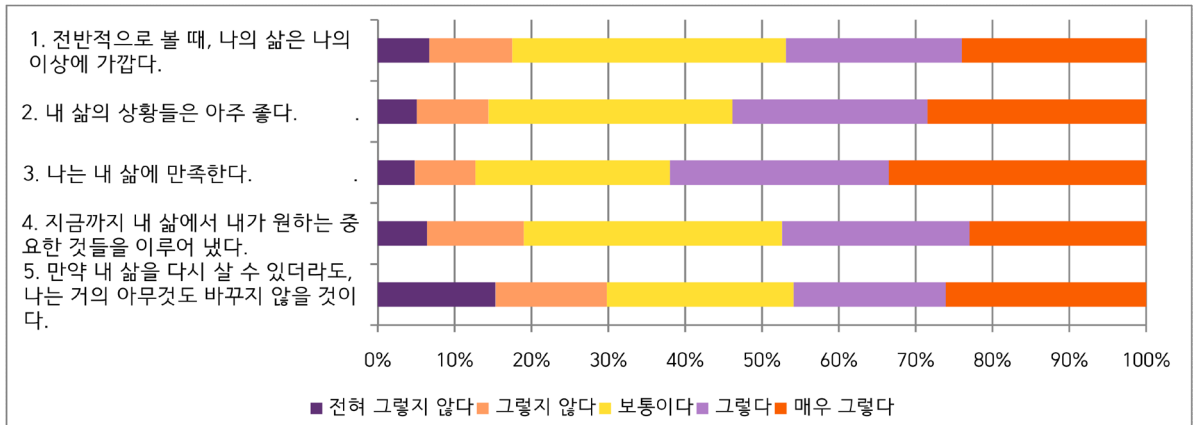


○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하위 설문 문항에 대해 점수 순으로 응답 비율 및 인원을 확인하면,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매우 그렇다] 33.5%(575명), [그렇다] 28.5%(489명), [보통이다] 25.3%(435명)로 나타났으며,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는 [매우 그렇다] 28.5%(489명), [그렇다] 25.4%(436명), [보통이다] 31.8%(545명)로 조사되었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는 [매우 그렇다] 24.0%(412명), [그렇다] 22.9%(393명), [보통이다] 35.6%(61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5-20 삶의 만족도 빈도분석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	N	%	N	%	N	%	N	%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115	6.7%	185	10.8%	611	35.6%	393	22.9%	412	24.0%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87	5.1%	159	9.3%	545	31.8%	436	25.4%	489	28.5%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82	4.8%	135	7.9%	435	25.3%	489	28.5%	575	33.5%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110	6.4%	216	12.6%	576	33.6%	419	24.4%	395	23.0%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263	15.3%	249	14.5%	417	24.3%	339	19.8%	448	26.1%

그림 5-20 삶의 만족도 비율





VI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제 VI 장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 비교분석

- 이 단락에서는 성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 확인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를 시행하였고,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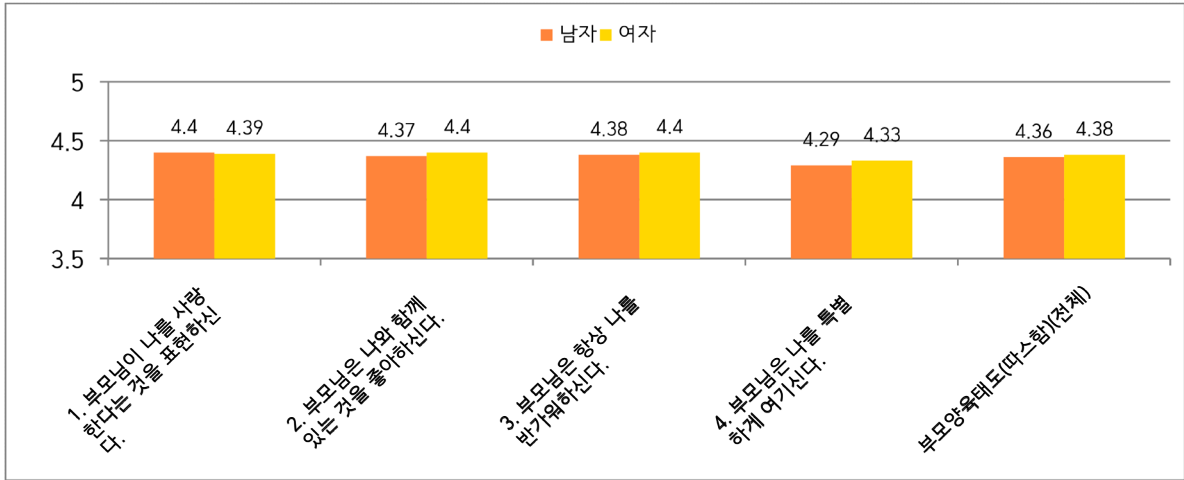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 영역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하였다.
- ❖ 부모양육태도(따스함)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설문 문항 중에서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는 남자 4.40점, 여자 4.3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291$, $p=0.771$),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남자 4.37점, 여자 4.40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679$, $p=0.497$). 또한,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는 남자 4.38점, 여자 4.40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424$, $p=0.672$),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남자 4.29점, 여자 4.3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825$, $p=0.409$). 부모양육태도(따스함)(전체)는 남자 4.36점, 여자 4.3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0.450$, $p=0.653$).

표 6-1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남자	871	4.40	0.88	0.291	0.771	0.013
	여자	845	4.39	0.90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남자	871	4.37	0.85	-0.679	0.497	-0.028
	여자	845	4.40	0.86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남자	871	4.38	0.87	-0.424	0.672	-0.018
	여자	845	4.40	0.86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남자	871	4.29	0.92	-0.825	0.409	-0.037
	여자	845	4.33	0.95			
부모양육태도(따스함)(전체)	남자	871	4.36	0.80	-0.450	0.653	-0.018
	여자	845	4.38	0.82			

그림 6-1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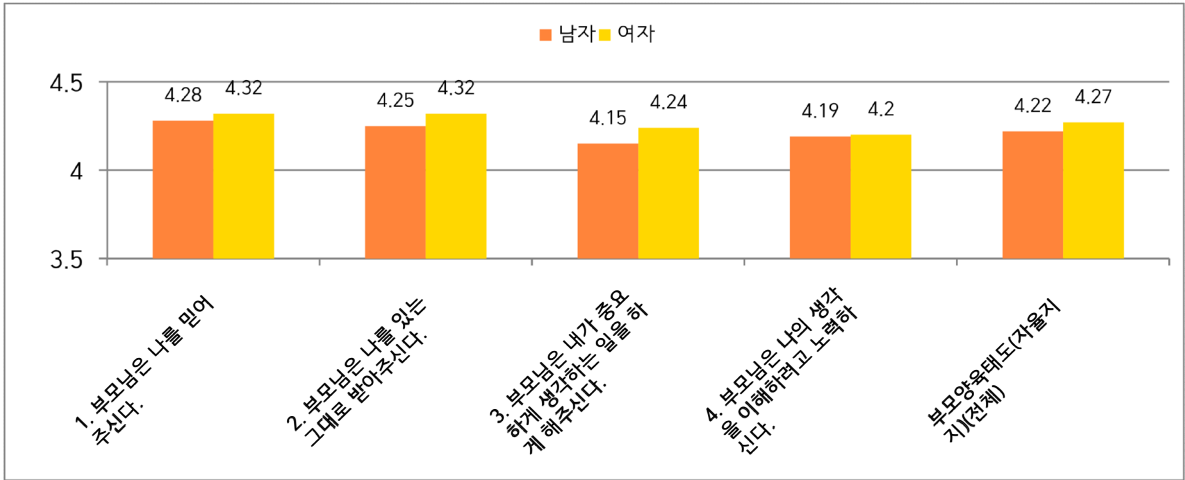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설문 문항 중에서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남자 4.28점, 여자 4.32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0.896$, $p=0.371$),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남자 4.25점, 여자 4.32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588$, $p=0.112$). 그리고,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남자 4.15점, 여자 4.2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1.750$, $p=0.080$),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남자 4.19점, 여자 4.20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362$, $p=0.718$).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전체)는 남자 4.22점, 여자 4.27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t=-1.279$, $p=0.201$).

표 6-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남자	871	4.28	0.97	-0.896	0.371	-0.042
	여자	845	4.32	0.96			
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남자	871	4.25	0.94	-1.588	0.112	-0.073
	여자	845	4.32	0.95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남자	871	4.15	1.02	-1.750	0.080	-0.085
	여자	845	4.24	1.00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남자	871	4.19	1.00	-0.362	0.718	-0.018
	여자	845	4.20	1.01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전체)	남자	871	4.22	0.88	-1.279	0.201	-0.054
	여자	845	4.27	0.88			

그림 6-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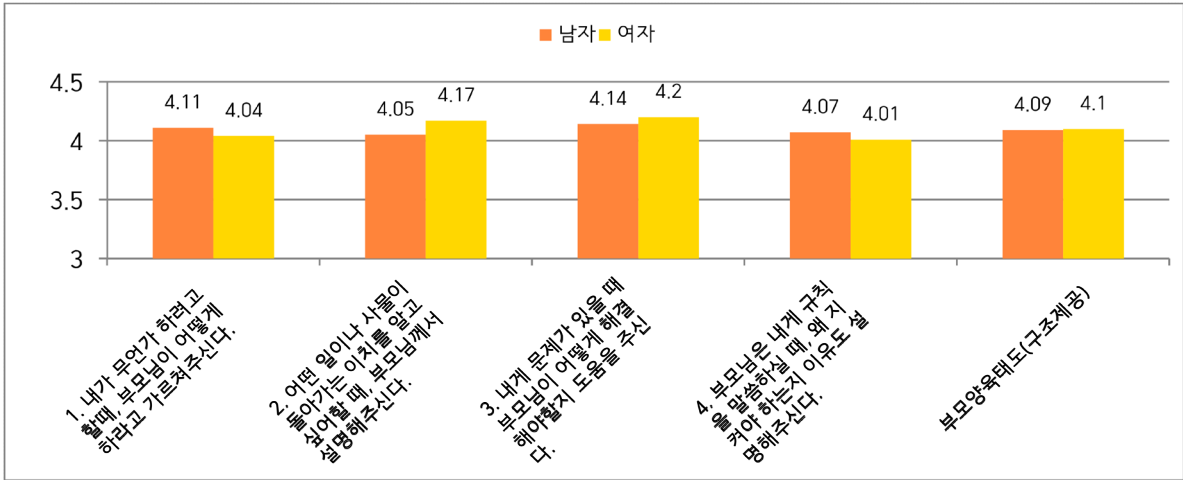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설문 문항 중에서 ‘1.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는 남자 4.11점, 여자 4.0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1.472$, $p=0.141$), ‘2.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는 남자 4.05점, 여자 4.17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2.479$, $p=0.013$), 또한,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는 남자 4.14점, 여자 4.20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1.178$, $p=0.239$), ‘4.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는 남자 4.07점, 여자 4.01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137$, $p=0.256$).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전체)는 남자 4.09점, 여자 4.10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0.270$, $p=0.787$).

표 6-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	남자	871	4.11	0.96	1.472	0.141	0.072
	여자	845	4.04	1.07			
2.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남자	871	4.05	1.03	-2.479	0.013	-0.122
	여자	845	4.17	1.01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남자	871	4.14	0.94	-1.178	0.239	-0.055
	여자	845	4.20	1.00			
4.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남자	871	4.07	1.02	1.137	0.256	0.058
	여자	845	4.01	1.10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전체)	남자	871	4.09	0.88	-0.270	0.787	-0.012
	여자	845	4.10	0.92			

그림 6-3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수준



교사와의 관계 영역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 교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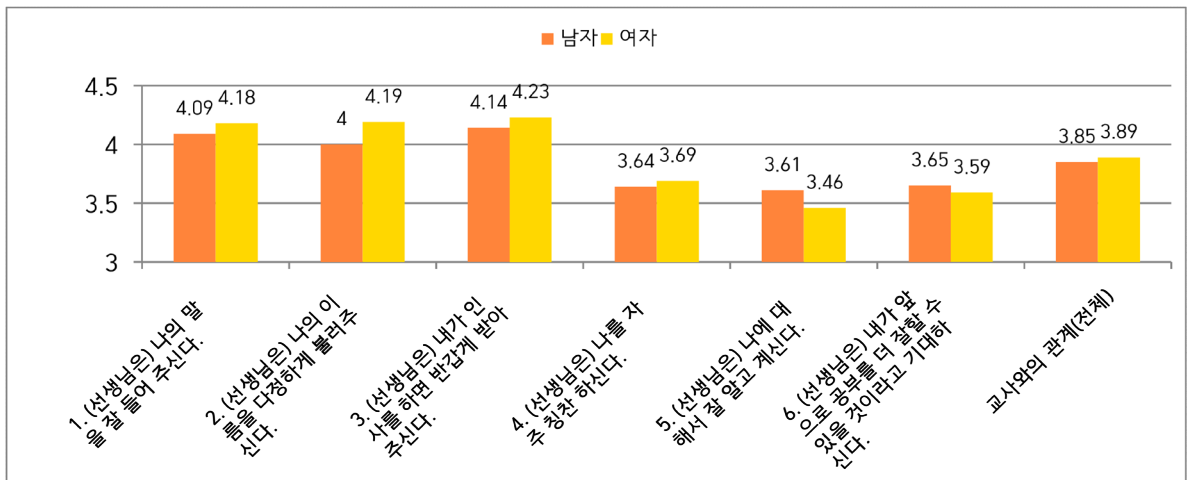
-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 설문 문항 중에서 ‘1. (선생님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는 남자 4.09점, 여자 4.1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1.954$, $p=0.051$), ‘2.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는 남자 4.00점, 여자 4.19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3.935$, $p<0.001$). 또한,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남자 4.14점, 여자 4.23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2.081$, $p=0.038$), ‘4. (선생님은) 나를 자주 칭찬하신다.’는 남자 3.64점, 여자 3.6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783$, $p=0.434$).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남자 3.61점, 여자 3.46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2.773$, $p=0.006$), ‘6.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는 남자 3.65점, 여자 3.5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231$, $p=0.218$).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전체)는 남자 3.85점, 여자 3.8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0.831$, $p=0.406$).

표 6-4 성별에 따른 교사와의 관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선생님은)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남자	871	4.09	0.99	-1.954	0.051	-0.090
	여자	845	4.18	0.92			
2. (선생님은)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남자	871	4.00	1.05	-3.935	<0.001	-0.192
	여자	845	4.19	0.97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남자	871	4.14	0.99	-2.081	0.038	-0.097
	여자	845	4.23	0.93			
4. (선생님은)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남자	871	3.64	1.14	-0.783	0.434	-0.042
	여자	845	3.69	1.1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남자	871	3.61	1.08	2.773	0.006	0.147
	여자	845	3.46	1.11			
6.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남자	871	3.65	1.08	1.231	0.218	0.064
	여자	845	3.59	1.07			
교사와의 관계(전체)	남자	871	3.85	0.90	-0.831	0.406	-0.035
	여자	845	3.89	0.84			

그림 6-4 성별에 따른 교사와의 관계 수준



친구관계 영역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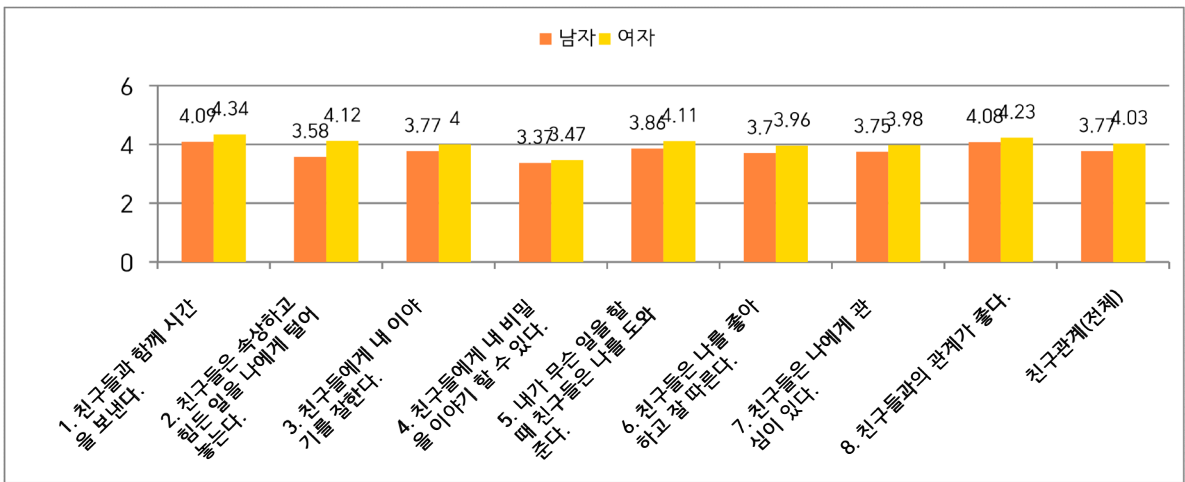
❖ 친구관계

○ 중학생의 친구관계 설문 문항 중에서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남자 4.09점, 여자 4.34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5.236$, $p<0.001$),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는 남자 3.58점, 여자 4.12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10.230$, $p<0.001$). 그리고,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는 남자 3.77점, 여자 4.00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4.347$, $p<0.001$),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남자 3.37점, 여자 3.47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710$, $p=0.087$).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는 남자 3.86점, 여자 4.1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5.300$, $p<0.001$),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는 남자 3.70점, 여자 3.96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5.135$, $p<0.001$).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남자 3.75점, 여자 3.98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4.908$, $p<0.001$),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남자 4.08점, 여자 4.23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3.178$, $p=0.002$). 친구관계(전체)는 남자 3.77점, 여자 4.03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6.029$, $p<0.001$).

표 6-5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남자	871	4.09	1.03	-5.236	<0.001	-0.245
	여자	845	4.34	0.91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남자	871	3.58	1.19	-10.230	<0.001	-0.546
	여자	845	4.12	1.01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남자	871	3.77	1.13	-4.347	<0.001	-0.237
	여자	845	4.00	1.13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남자	871	3.37	1.32	-1.710	0.087	-0.109
	여자	845	3.47	1.33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남자	871	3.86	1.00	-5.300	<0.001	-0.250
	여자	845	4.11	0.96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남자	871	3.70	1.04	-5.135	<0.001	-0.250
	여자	845	3.96	0.97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남자	871	3.75	1.02	-4.908	<0.001	-0.236
	여자	845	3.98	0.97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남자	871	4.08	0.97	-3.178	0.002	-0.145
	여자	845	4.23	0.92			
친구관계(전체)	남자	871	3.77	0.90	-6.029	<0.001	-0.252
	여자	845	4.03	0.83			

그림 6-5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수준



학업열의 영역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헌신), 학업열의(활기), 학업열의(효능감), 학업열의(몰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조사하였다.

❖ 학업열의(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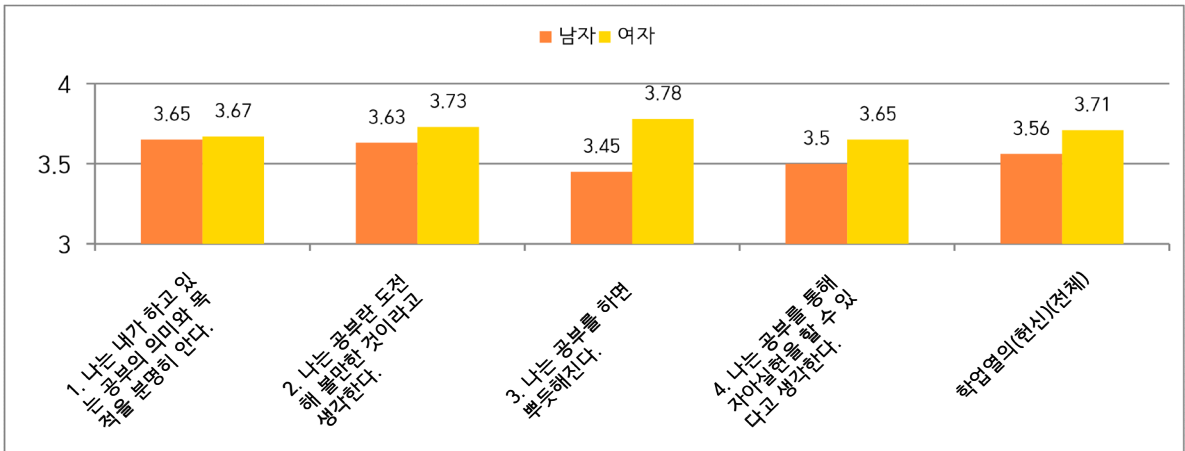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열의(헌신)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

히 안다.’는 남자 3.65점, 여자 3.67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421$, $p=0.674$), ‘2. 나는 공부란 도전에 불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남자 3.63점, 여자 3.7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842$, $p=0.066$). 그리고,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는 남자 3.45점, 여자 3.78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5.594$, $p<0.001$),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남자 3.50점, 여자 3.65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666$, $p=0.008$). 학업열의(헌신)(전체)는 남자 3.56점, 여자 3.7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및 조사되었다($t=-3.092$, $p=0.002$).

표 6-6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헌신)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남자	871	3.65	1.15	-0.421	0.674	-0.023
	여자	845	3.67	1.16			
2. 나는 공부란 도전에 불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자	871	3.63	1.17	-1.842	0.066	-0.103
	여자	845	3.73	1.16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남자	871	3.45	1.26	-5.594	<0.001	-0.326
	여자	845	3.78	1.15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자	871	3.50	1.18	-2.666	0.008	-0.148
	여자	845	3.65	1.12			
학업열의(헌신)(전체)	남자	871	3.56	1.04	-3.092	0.002	-0.150
	여자	845	3.71	0.98			

그림 6-6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헌신) 수준



❖ 학업열의(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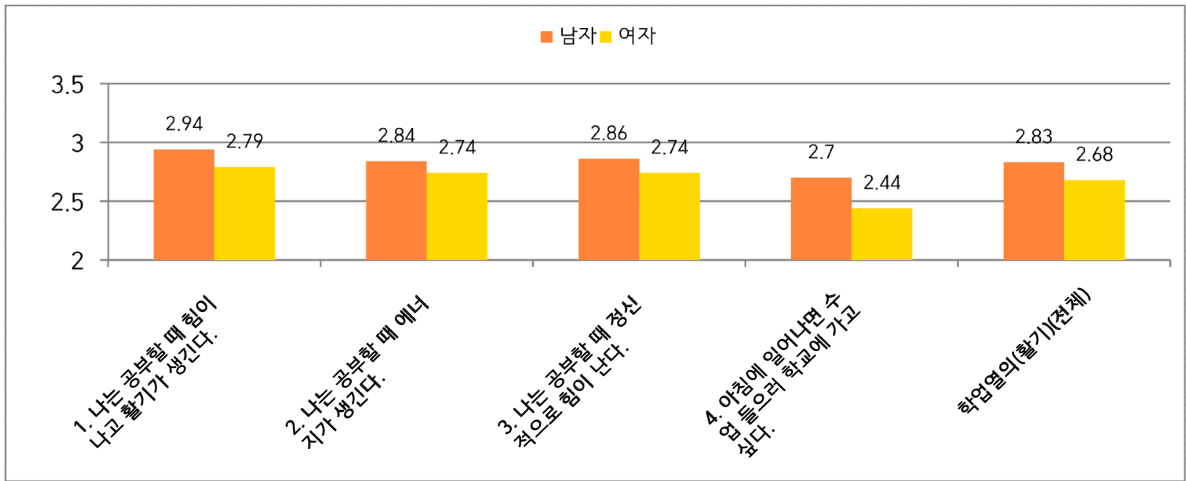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열의(활기)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는 남자 2.94점, 여자 2.79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2.286$, $p=0.022$), ‘2.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는 남자 2.84점, 여자 2.7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570$, $p=0.117$). 게다가, ‘3.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는 남자 2.86점, 여자 2.7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t=1.786$, $p=0.074$), ‘4.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는 남자 2.70점, 여자 2.44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3.979$, $p<0.001$). 학업열의(활기)(전체)는 남자 2.83점, 여자 2.68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55$, $p=0.008$).

표 6-7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활기)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남자	871	2.94	1.32	2.286	0.022	0.144
	여자	845	2.79	1.29			
2.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남자	871	2.84	1.32	1.570	0.117	0.100
	여자	845	2.74	1.31			
3.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남자	871	2.86	1.33	1.786	0.074	0.114
	여자	845	2.74	1.32			
4.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남자	871	2.70	1.39	3.979	<0.001	0.263
	여자	845	2.44	1.34			
학업열의(활기)(전체)	남자	871	2.83	1.23	2.655	0.008	0.155
	여자	845	2.68	1.19			

그림 6-7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활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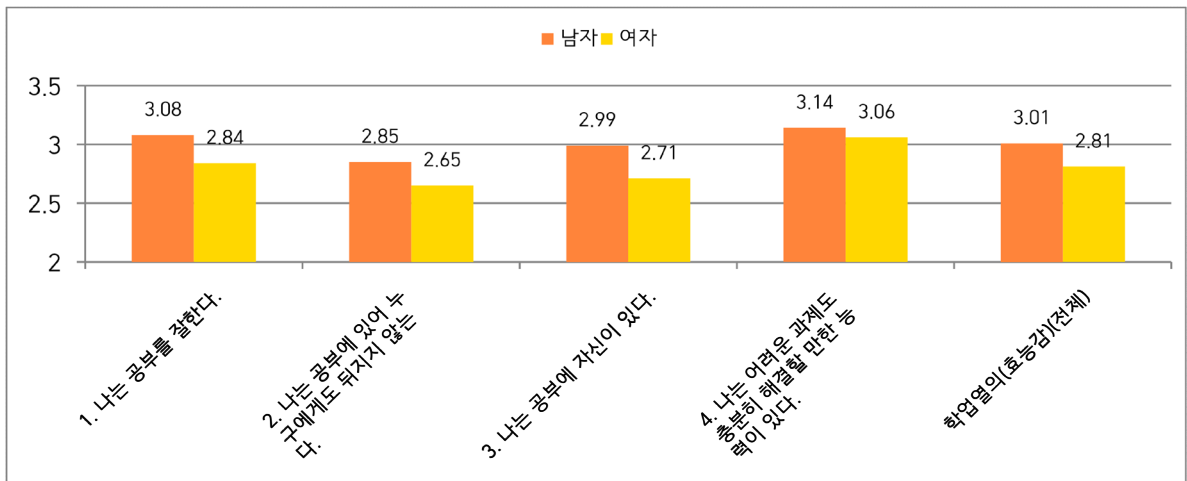
❖ 학업열의(효능감)

- 중학생의 학업열의(효능감)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남자 3.08점, 여자 2.84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3.934$, $p<0.001$), ‘2.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남자 2.85점, 여자 2.65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3.161$, $p=0.002$). 그리고, ‘3.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는 남자 2.99점, 여자 2.7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4.424$, $p<0.001$),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남자 3.14점, 여자 3.06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261$, $p=0.207$). 학업열의(효능감)(전체)는 남자 3.01점, 여자 2.8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다($t=3.518$, $p<0.001$).

표 6-8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효능감)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남자	871	3.08	1.27	3.934	<0.001	0.241
	여자	845	2.84	1.27			
2.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남자	871	2.85	1.31	3.161	0.002	0.199
	여자	845	2.65	1.30			
3.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남자	871	2.99	1.29	4.424	<0.001	0.280
	여자	845	2.71	1.32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남자	871	3.14	1.27	1.261	0.207	0.077
	여자	845	3.06	1.27			
학업열의(효능감)(전체)	남자	871	3.01	1.18	3.518	<0.001	0.199
	여자	845	2.81	1.17			

그림 6-8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효능감) 수준



❖ 학업열의(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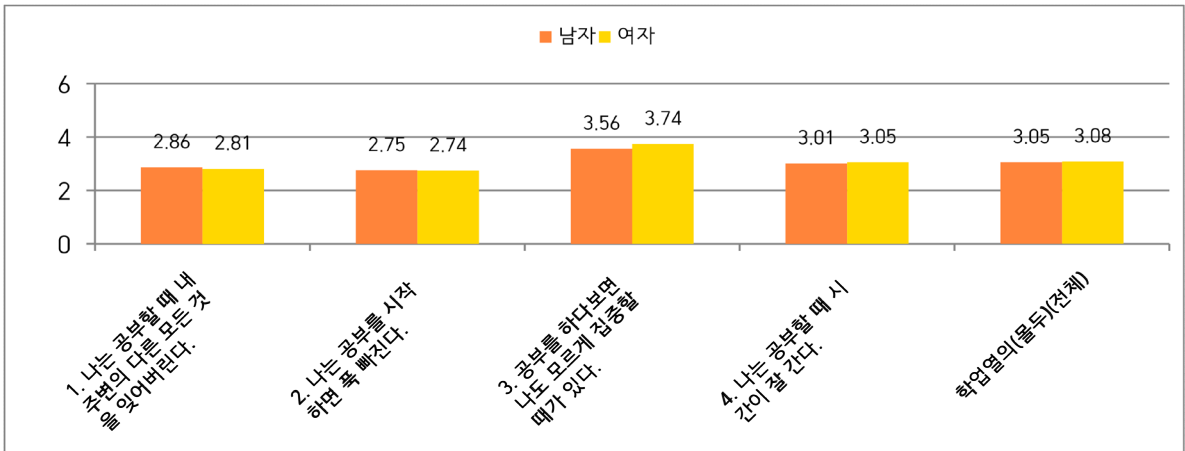
- 중학생의 학업열의(몰두)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남자 2.86점, 여자 2.81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905$, $p=0.366$), ‘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푹 빠진다.’는 남자 2.75점, 여자 2.74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239$, $p=0.811$). 또한,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남자 3.56점, 여자 3.74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3.219$, $p=0.001$), ‘4.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는 남자 3.01점, 여자 3.05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490$, $p=0.624$). 학업열의(몰두)(전체)는 남자 3.05점, 여자 3.0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t=-0.707$, $p=0.480$).

표 6-9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몰두)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남자	871	2.86	1.23	0.905	0.366	0.054
	여자	845	2.81	1.24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남자	871	2.75	1.29	0.239	0.811	0.015
	여자	845	2.74	1.26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남자	871	3.56	1.19	-3.219	0.001	-0.182
	여자	845	3.74	1.15			
4.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남자	871	3.01	1.30	-0.490	0.624	-0.031
	여자	845	3.05	1.33			
학업열의(몰두)(전체)	남자	871	3.05	1.07	-0.707	0.480	-0.036
	여자	845	3.08	1.04			

그림 6-9 성별에 따른 학업열의(몰두) 수준



삶의 만족도 영역

-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세부적으로는 하위 설문 문항별 성별에 따른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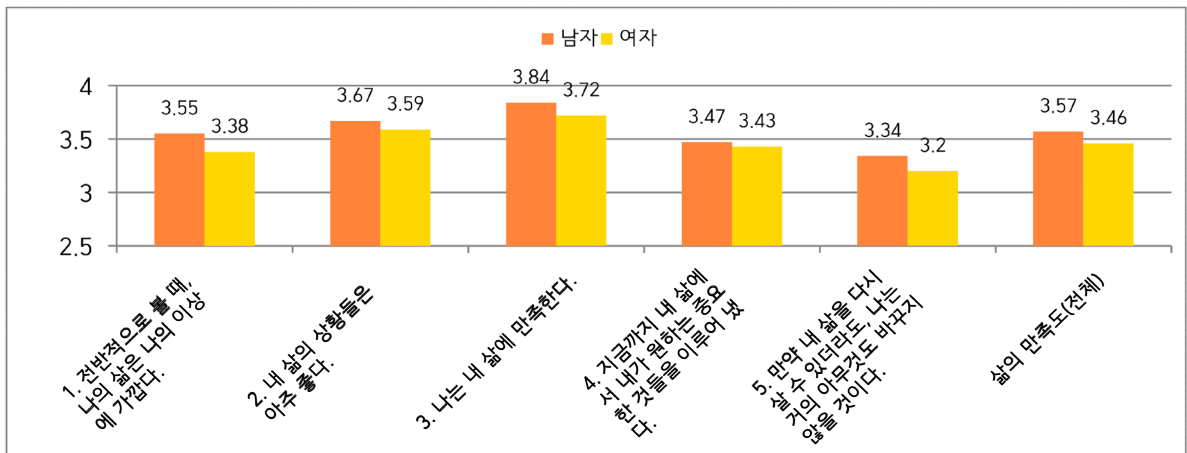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

-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설문 문항 중에서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는 남자 3.55점, 여자 3.38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고($t=2.915$, $p=0.004$),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는 남자 3.67점, 여자 3.5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1.542$, $p=0.123$). 또한,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남자 3.84점, 여자 3.72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으며($t=2.167$, $p=0.030$),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는 남자 3.47점, 여자 3.4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다($t=0.610$, $p=0.542$).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는 남자 3.34점, 여자 3.20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2.106$, $p=0.035$). 삶의 만족도(전체)는 남자 3.57점, 여자 3.46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t=2.194$, $p=0.028$).

표 6-10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비교 분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평균차이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남자	871	3.55	1.15	2.915	0.004	0.163
	여자	845	3.38	1.16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남자	871	3.67	1.13	1.542	0.123	0.085
	여자	845	3.59	1.14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남자	871	3.84	1.13	2.167	0.030	0.119
	여자	845	3.72	1.14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남자	871	3.47	1.16	0.610	0.542	0.034
	여자	845	3.43	1.16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남자	871	3.34	1.38	2.106	0.035	0.141
	여자	845	3.20	1.39			
삶의 만족도(전체)	남자	871	3.57	1.02	2.194	0.028	0.108
	여자	845	3.46	1.02			

그림 6-10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수준





VII

학년별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제 VII 장

학년별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학년별 조사결과 비교분석

- 이 단락에서는 중학생 학년별(1~3학년) 집단 간의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차이 확인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 후, 사후검정(Post-hoc)으로 Scheffe 검증을 행하였고, 만약에 자료가 이분산인 경우에는 Welch's ANOVA를 한 후, Games-Howell 검증을 수행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영역

❖ 부모양육태도(따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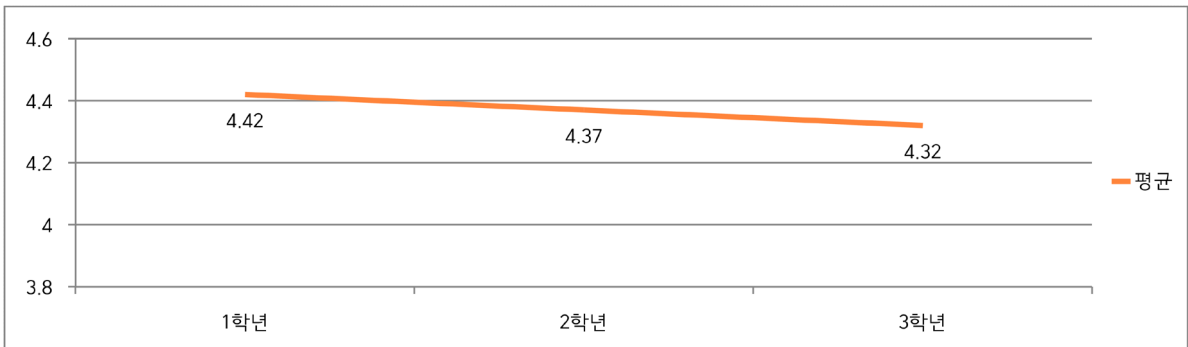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따스함)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4.42점(N=667), 2학년은 평균 4.37점(N=494), 3학년은 평균 4.32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37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2.4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년 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모든 학년에서 유사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표 7-1 학년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부모양육태도(따스함)	1학년(a)	667	4.42	0.76	1.00	5.00	2.43	-
	2학년(b)	494	4.37	0.85	1.00	5.00		
	3학년(c)	555	4.32	0.84	1.00	5.00		
	전체	1,716	4.37	0.81	1.00	5.00	-	-

† Welch's ANOVA

그림 7-1 학년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평균



❖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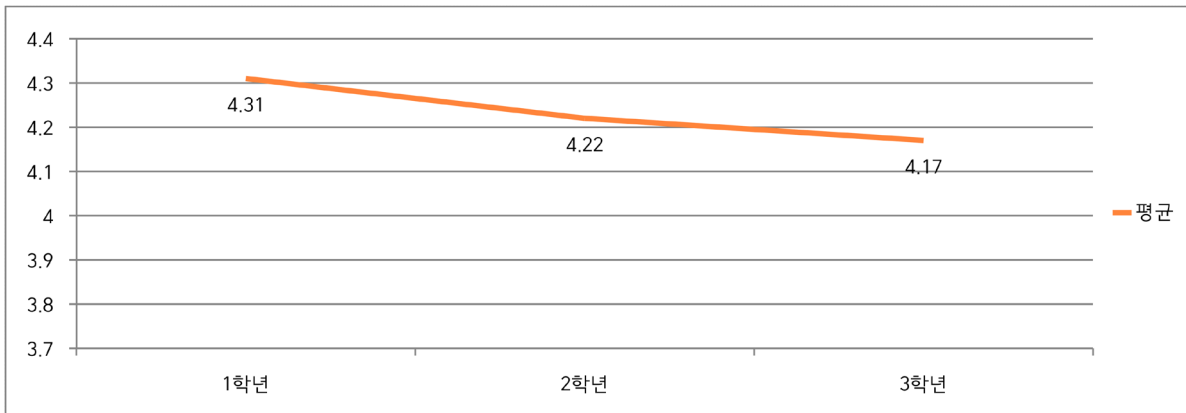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은 평균 4.31점(N=667), 2학년은 평균 4.22점(N=494), 3학년은 평균 4.17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24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4.2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점수가 3학년(c)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2학년은 다른 학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2 학년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1학년(a)	667	4.31	0.80	1.00	5.00	4.23*	a>c
	2학년(b)	494	4.22	0.91	1.00	5.00		
	3학년(c)	555	4.17	0.93	1.00	5.00		
	전체	1,716	4.24	0.88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5$

그림 7-2 학년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평균



❖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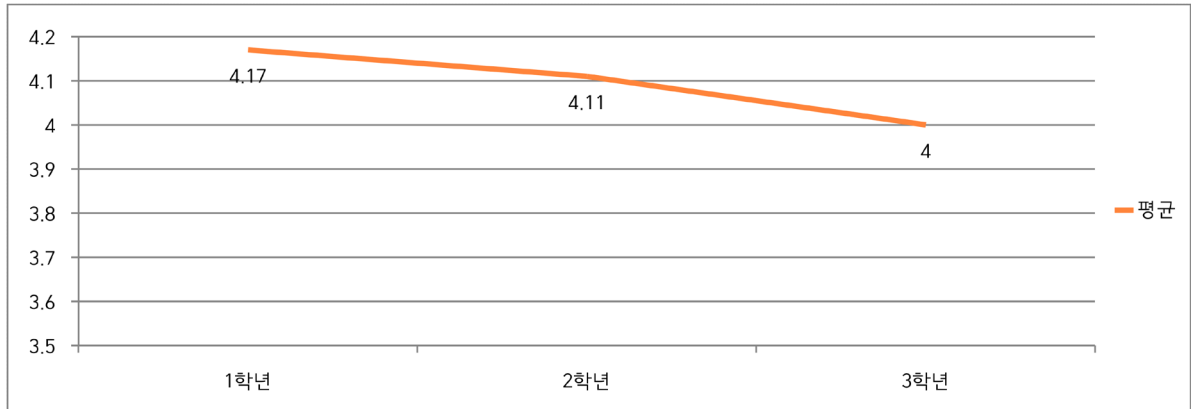
-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4.17점(N=667), 2학년은 평균 4.11점(N=494), 3학년은 평균 4.00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10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93$,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점수가 3학년(c)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점수는 1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2학년은 다른 학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3 학년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1학년(a)	667	4.17	0.85	1.00	5.00	5.93**	a>c
	2학년(b)	494	4.11	0.93	1.00	5.00		
	3학년(c)	555	4.00	0.93	1.00	5.00		
	전체	1,716	4.10	0.90	1.00	5.00	-	-

** $p < .01$

그림 7-3 학년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평균



교사와의 관계 영역

❖ 교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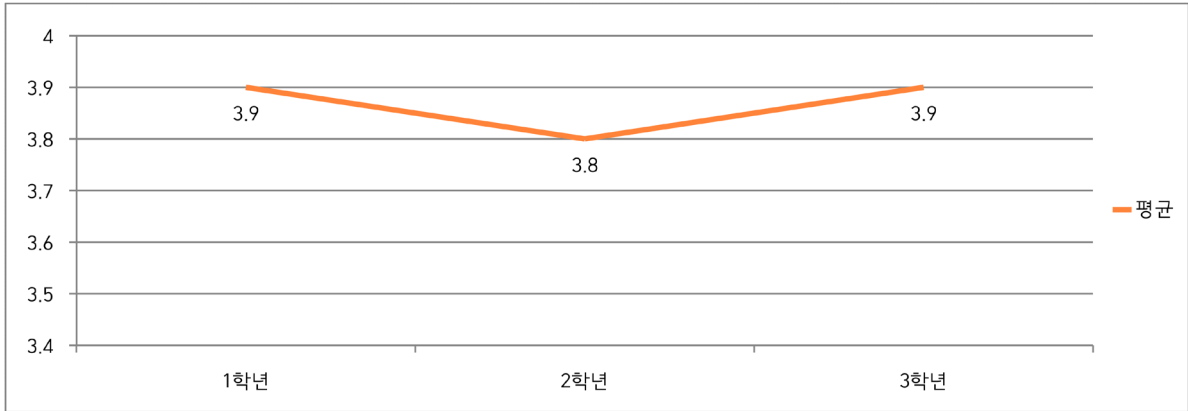
-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1학년은 평균 3.90점(N=667), 2학년은 평균 3.80점(N=494), 3학년은 평균 3.90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87점으로 확인되었고,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2.0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 점수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모든 학년이 유사한 수준의 교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4 학년별 교사와의 관계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교사와의 관계	1학년(a)	667	3.90	0.83	1.00	5.00	2.00	-
	2학년(b)	494	3.80	0.95	1.00	5.00		
	3학년(c)	555	3.90	0.84	1.00	5.00		
	전체	1,716	3.87	0.87	1.00	5.00	-	-

† Welch's ANOVA

그림 7-4 학년별 교사와의 관계 평균



친구관계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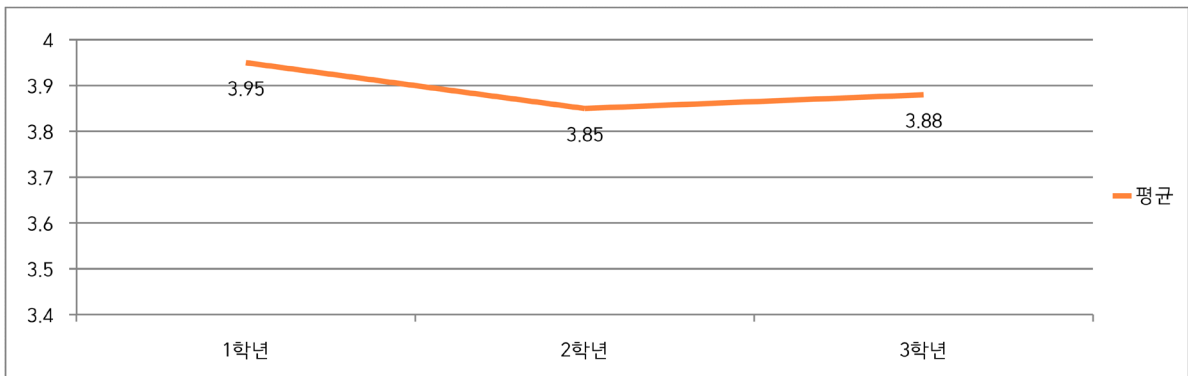
❖ 친구관계

- 친구관계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95점(N=667), 2학년은 평균 3.85점(N=494), 3학년은 평균 3.88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90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2.30$,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친구관계 점수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7-5 학년별 친구관계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친구관계	1학년(a)	667	3.95	0.83	1.00	5.00	2.30	-
	2학년(b)	494	3.85	0.91	1.00	5.00		
	3학년(c)	555	3.88	0.89	1.00	5.00		
	전체	1,716	3.90	0.88	1.00	5.00	-	-

그림 7-5 학년별 친구관계 평균



학업열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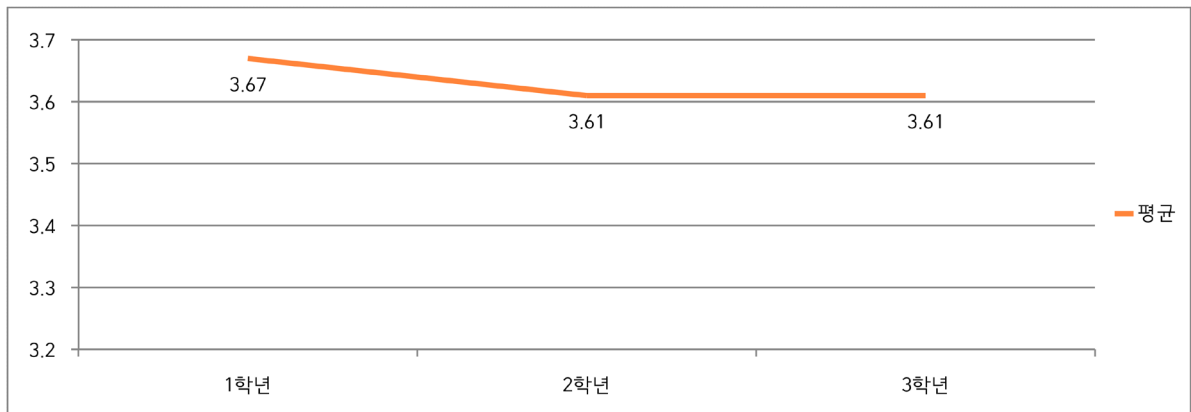
❖ 학업열의(헌신)

- 학업열의(헌신)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은 평균 3.67점(N=667), 2학년은 평균 3.61점(N=494), 3학년은 평균 3.61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63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7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열의(헌신) 점수는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모든 학년이 유사한 수준의 학업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다.

표 7-6 학년별 학업열의(헌신)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학업열의(헌신)	1학년(a)	667	3.67	0.98	1.00	5.00	0.74	-
	2학년(b)	494	3.61	1.01	1.00	5.00		
	3학년(c)	555	3.61	1.05	1.00	5.00		
	전체	1,716	3.63	1.01	1.00	5.00	-	-

그림 7-6 학년별 학업열의(헌신)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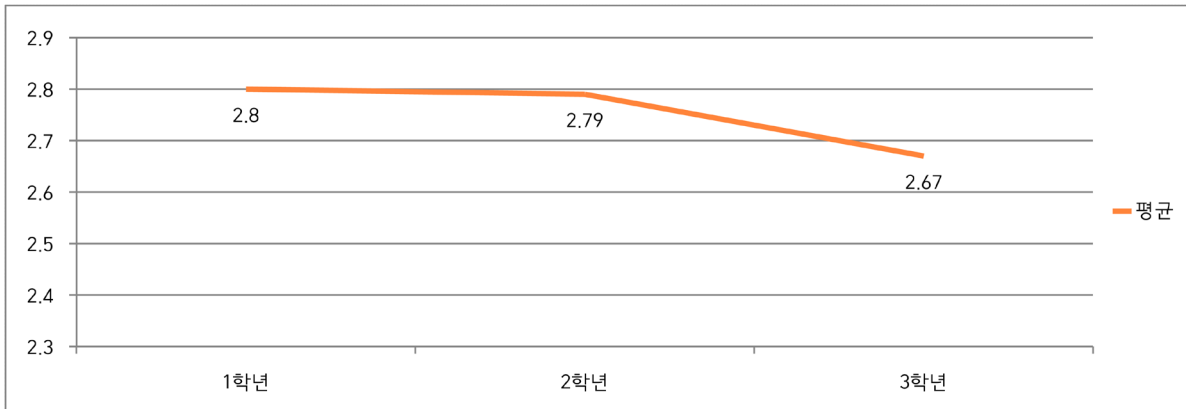
❖ 학업열의(활기)

- 학업열의(활기)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1학년은 평균 2.80점(N=667), 2학년은 평균 2.79점(N=494), 3학년은 평균 2.67점(N=555)으로 확인되었고,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2.76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9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7 학년별 학업열의(활기)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학업열의(활기)	1학년(a)	667	2.80	1.19	1.00	5.00	1.91	-
	2학년(b)	494	2.79	1.23	1.00	5.00		
	3학년(c)	555	2.67	1.22	1.00	5.00		
	전체	1,716	2.76	1.21	1.00	5.00	-	-

그림 7-7 학년별 학업열의(활기) 평균



❖ 학업열의(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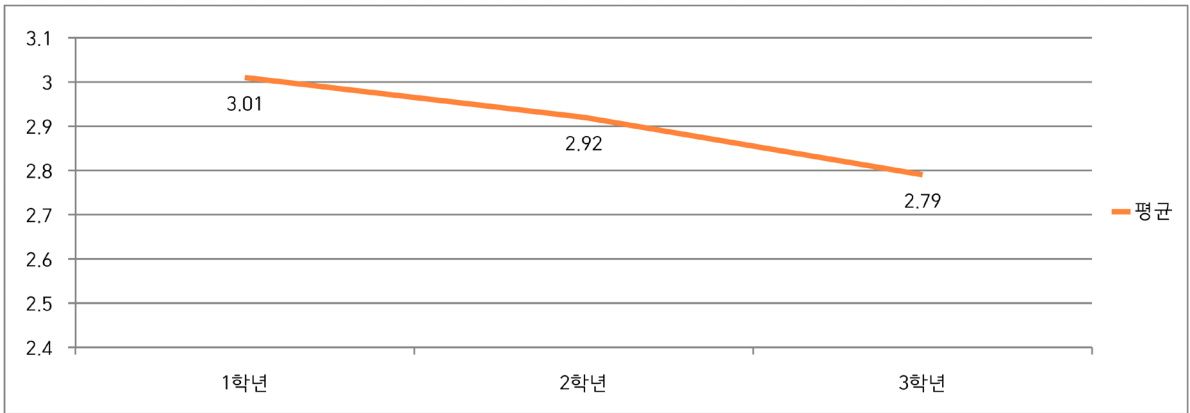
- 학업열의(효능감)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01점(N=667), 2학년은 평균 2.92점(N=494), 3학년은 평균 2.79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2.92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5.50,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hoc 분석 결과, 1학년(a)이 3학년(c)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8 학년별 학업열의(효능감)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학업열의(효능감)	1학년(a)	667	3.01	1.15	1.00	5.00	5.50**	a>c
	2학년(b)	494	2.92	1.18	1.00	5.00		
	3학년(c)	555	2.79	1.19	1.00	5.00		
	전체	1,716	2.92	1.18	1.00	5.00	-	-

** $p<.01$

그림 7-8 학년별 학업열의(효능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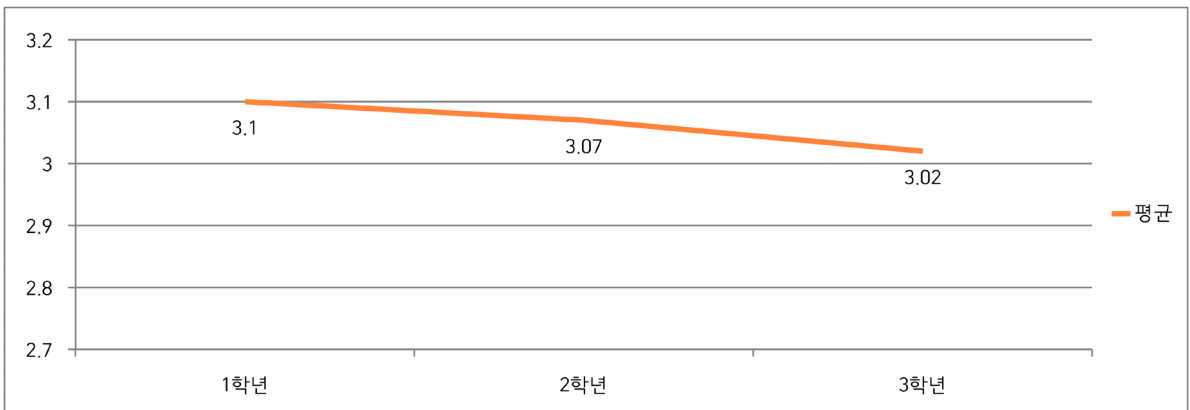
❖ 학업열의(몰두)

- 학업열의(몰두)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1학년은 평균 3.10점(N=667), 2학년은 평균 3.07점(N=494), 3학년은 평균 3.02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07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0.9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년 간 학업에 몰두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7-9 학년별 학업열의(몰두)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Post-hoc
학업열의(몰두)	1학년(a)	667	3.10	1.04	1.00	5.00	0.99	-
	2학년(b)	494	3.07	1.07	1.00	5.00		
	3학년(c)	555	3.02	1.06	1.00	5.00		
	전체	1,716	3.07	1.06	1.00	5.00	-	-

그림 7-9 학년별 학업열의(몰두) 평균



삶의 만족도 영역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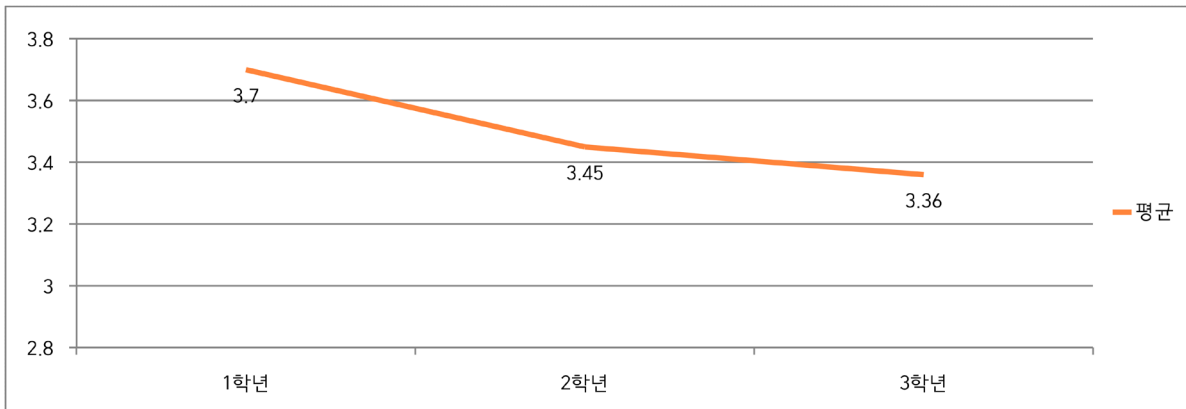
-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은 평균 3.70점(N=667), 2학년은 평균 3.45점(N=494), 3학년은 평균 3.36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52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F=19.46$,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후 분석 결과 1학년(a)의 삶의 만족도가 2학년(b)과 3학년(c)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1학년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7-10 학년별 삶의 만족도 비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 [†]	Post-hoc
삶의 만족도	1학년(a)	667	3.70	0.95	1.00	5.00	19.46***	a>b,c
	2학년(b)	494	3.45	1.05	1.00	5.00		
	3학년(c)	555	3.36	1.05	1.00	5.00		
	전체	1,716	3.52	1.02	1.00	5.00	-	-

† Welch's ANOVA/Games-Howell 사후검정 / *** $p<.001$

그림 7-10 학년별 삶의 만족도 평균





VIII

심화 분석1: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사회정서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제VIII장

심화 분석1: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사회정서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서론

❖ 연구 필요성

-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2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PISA)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23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일부 과목의 성취 수준 개선 및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추이가 일부 완화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학생 대상 3수준 이상(보통, 우수) 비율은 국어 61.2, 수학 49.0, 영어 62.9로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퍼센트를 보였으나, 특히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전년 대비 7.0%p 상승하였고, 1수준(기초학력 미달)은 2.8%p 감소하여 학생의 학업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다(교육부, 202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업열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95), 이러한 문제는 부모의 기대압박, 과도한 입시경쟁, 학업관련 스트레스, 수업 이해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김혜원 외, 2016:106-110; 이의빈 외, 2022; 장윤옥 외, 2017; 이현아 외, 2013:585-591),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안녕과 학습동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동문, 2023; 조가람, 2016).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몰입도 하락시켜 장기적인 학습성과에도 악영향을 준다(강지혜, 2022:33-41; 김은정 외, 2015:377-380; 하채연, 2013).
- 특히 학교의 대학 입시 중심의 경쟁적 분위기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나, 사회정서적 안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학업열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김진아, 2015:365-370; 이경미 외, 2020:1254-1259).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하고 성숙한 발달을 방해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 및 흥미를 잃게 만든다(박영순 외, 2015:138-141; 권대훈, 2019:675-678).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청소년의 사회정서 문제로 인한 자살, 학업 스트레스, 주변인과의 관계성 문제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사회정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담당 부서를 신설하였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청소년들을 사회정서 함양 및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발, 성장지원, 정신건강 정책 마련, 교육환경 보호, 심리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 2023a).

- 학업열의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배경인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등이 학업열의에 큰 영향변인으로 작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원례 외, 2022:68-69; 임효진 외, 2020: 116-121; 유다미 외, 2015:224-231; 임선아 외, 2022:167-170; 민미희, 2022:8-13; 김희연 외, 2020:509-511).
-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지만, 부모의 친밀하고 지지적이며 이해심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생들의 사회정서 수준을 높여 학업에 더 몰입하도록 도우며(김형석 외, 2022:241-247; Yang et al., 2021:297-301; 이원례 외, 2022:68-69),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교사-학생 관계 형성은 학습 동기를 촉진하고(최유림 외, 2024:15-19), 좋은 친구관계는 상호 이해 및 개인적 생각 공유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여 학업 활동에서도 상호 도움을 제공한다(Damon, 1977; Bukowski et al., 1989; 김지연 외, 2023:1628-1630).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의 배경은 학업 열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상호 영향관계 작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경험 욕구를 강화한다(유미영 외, 2010:925-930; 유다미 외, 2015:224-231; 장수연 외, 2020:217-218).
- 또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수준은 학업열의에 직접적인 설명변인 또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하채연, 2013; 박종열, 2020:73-86; 최록빈, 2024:28-41), 사회정서와 관련한 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요인들은 청소년들을 학습환경에 잘 적응시켜 학업몰입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인 학업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Oberle et al., 2014; CASEL, 2020; 강지혜, 2022:33-41).
- 그러나 부모양육태도, 교사 및 친구 관계,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한 종합적인 구조적 영향관계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정민희, 2020; 임효진 외, 2020:115-121; 최록빈, 2024:28-41).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대한 설명변인과 매개변인 간에 어떠한 효과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 및 학업에 대한 전인적 발달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하고, 사회정서적 안녕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고려한 교육적 접근 방안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 연구문제

- 이번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첫째,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가?
- 둘째,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은 매개기능을 하는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학업열의

- 학업열의란 학업의 수행 및 성취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의 긍정적인 인식을 기초로 한 학습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고, 학업열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헌신, 활기, 몰두라고 할 수 있으며 (Schaufeli et al., 2002a; 이자영 외, 2012), Fredricks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학업열의와 관련하여 본인이 원하는 성취 수준 및 학습결과를 위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 및 과정에 참여하는 노력을 지칭하였고 학습에 대한 동기화된 상태 및 긍정적인 자세라고 언급하였다.
- 세부적 하위요인인 헌신은 학업에 대해 자신감, 내부 열정, 도전 및 가치의 경험이라 설명할 수 있고, 활기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지속력 및 회복력을 뜻하며, 몰두는 다른 방해요소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학업에 대한 집중력이라 할 수 있다(Schaufeli et al., 2002b).

❖ 부모양육태도

-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본인의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행동이라 개념 정의하였고, Schaefer(1959)의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에 대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타내는 보편적인 행동패턴이라 설명하였으며, 행동양상을 자율적 적대적 태도 및 통제적 적대적 태도, 애정적 자율적 태도와 애정적 통제적 태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어린시절 아동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인식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가치 및 평가가 가능하고, 미래의 다양한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andura, 1986; Erikson, 1968). 특히 청소년 시기에 양육자와 대상자와의 유대관계는 아동의 전 생애를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고,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로부터 아동의 자율적인 발달이 가능하다(Bowlby, 1980).
- Baumrind(1971)는 부모양육태도를 세부적인 유형으로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으로 구분하였고, 타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수용-거부 및 지배-복종의 두 개념으로 설정하기도 하였다(Symonds, 1949).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가정의 사회적 수준, 분위기, 자녀요소 등의 다양한 외부환경에서 종합적으로 구성 및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Watson, 1988).
- 바람직하고 높은 수준으로 형성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릇 및 창의적 성격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며(박은주, 2023), 성장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및 삶의 목표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경, 2017:28-32). 또한 양육태도가 애정적으로 강화되면 청소년 본인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이성주 외, 2019), 특히 최근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진 외, 2016:41-43).

❖ 교사와의 관계

-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상호지지 및 신뢰하는 심리 공간이라 지칭할 수 있고, 특히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삶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Pianta, 1999), 유사한 용어인 교사지지의 경우 Trickett et al.(1973)의 연구에서는 교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이 스스로 교사가 도우며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학생 행동은 교사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사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학생관계는 상호 영향 및 의존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Wubbels et al., 1988). 교사와의 관계의 하위 구성요인에 대해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 및 타당화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신뢰성, 수용성, 접근가능성, 민감성의 4개의 세부요인으로 설정하고 있고(김종백 외, 2009),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친밀 또는 원활하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강화, 낮은 학업성취, 학교 활동 미참여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irch et al., 1997).

❖ 친구관계

- 친구관계에 대해 Damon(1977)의 연구에서는 친구란 상호 이해 및 개인적 생각을 공유하며, 비밀 및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도와주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고, 타 선행연구에서는 친구관계란 아동청소년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형성을 위하여 또래들과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킨 것이라 개념 정의하고 있다(Perry et al., 1984). 또한 친구관계를 아동 간에 상호 선택이 필요하며, 관심, 애정, 정보 및 흥미 등을 공유하는 독특한 애착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Bukowski et al., 1989; Hartup, 1983).
- 친구관계 하위 요인과 관련하여 Friendship Quality Scale(FQS) 타당화 연구에서는 동료애, 안정감, 친밀감, 갈등, 도움의 세부요인으로 구분하고 있고(유고은 외, 2015), 김은정(2010)은 친구관계 질 척도 연구에서 ‘도움과 안내’, ‘친밀한 상호교류’, ‘동반과 오락’, ‘갈등 해결’, ‘갈등과 배반’, ‘인정과 배려’의 총 6개 세부적인 친구관계의 역할로 정립하고 있다.

❖ 사회정서역량

-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의 등장으로 주목하게 된 개념으로, ‘사회정서학습’이란 모든 아동청소년 및 성인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정서관리, 개인 또는 집단 목표성취, 공감능력 향상, 주변과의 지지적 관계 구축, 배려 및 책임있는 의사결정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습득하는 과정이라 정의되고(CASEL, 2015), ‘사회정서역량’이란 개인의 성공 및 성장발달, 공동체 발전에 기여, 원만한 관계 구축, 책임감 있는 결정,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 및 정서능력의 종합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Denham et al., 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 CASEL의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요소로, 자기인식(자신감, 자기효능감, 정서인식, 자기지각, 강점 인식), 사회인식(다양성, 타인 존중, 조망수용, 공감), 자기관리(스트레스 조절, 자기훈련, 충동통제, 자기동기화, 조직화, 목표설정), 관계관리(사회적 참여, 의사소통, 관계 형

성, 팀워크), 책임있는 의사결정(상황 분석, 문제 확인, 문제해결방안 모색, 평가와 반성, 책임감)으로 구분된다(CASEL, 2015, 2020).

- 청소년에게 있어 사회정서역량 함양은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연, 2023:1627-1630; 김춘화 외, 2015:110-111; 김별아 외, 2021:165-169).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고 노력하는 다양한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며(최은지 외, 2020:201-210; Bornstein et al., 2010; Biglan et al., 2004), 학교 내에서의 학습응집력 강화를 통해 또래괴롭힘 방어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녀, 2022:300). 또한 아동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역량은 도전적인 과제와 관련한 인내심 강화와 학업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상승시켜 최종적으로 높은 학업성취 목표에 도달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한우진 외, 2019:103-110; Oberle et al., 2014).

❖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와의 관계

-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역량의 구조적 영향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알아보면, 초등학교 대 상 연구에서 부모양육행동 중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김단비 외, 2018:85-90),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와 따뜻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정서역량을 고역량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김형석 외, 2021:149-153, 2022:241-247). 타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즉 애정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및 성취적 양육태도가 전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도미향 외, 2004:81-82), 부모의 코칭역량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인 긍정심리 자본과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정 외, 2023; 고현 외, 2020:337-341). 또한 중국 중학교 3학년 대상 연구에서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Yang et al., 2021:297-301).
-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전연구를 탐색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중학교 패널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생의 학업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최혜선 외, 2021:111-116; 정문경, 2022:810-811), 따스함, 자율성지지 및 구조제공의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이원례 외, 2022:68-69). 반면에 중학생의 높은 수준의 부모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정은혜 외, 2021:78-80).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은 학업열의와 높은 상관관계성을 보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면 학업열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명 외, 2022:52-54),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인 것으로 규명되었다(김남희 외, 2023:635-639; 임효진 외, 2020:116-121; 유미영 외, 2010:925-930). 또한 중학생 1학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학생 및 여학생 전부에게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어 성별과 관계

없이 부모양육태도는 학생 학업과 깊은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최유림 외, 2024:15-19).

- 그러므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정하였다.

(H1)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2)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교사와의 관계와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와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와 사회정서역량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타 연구를 확인하면, 중학교 대상의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바람직한 사회정서역량 형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고(김형석 외, 2021:149-153),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에 핵심적인 예측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문재영 외, 2022:82-83). 교사-유아의 관계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일수록 사회·정서적 행동에서 친사회성 강화, 고립-위축성 해소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기금심, 2004:30-36), 초등교사의 사회정서역량 수준에 따라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 및 개선하는 역할을 하며(고국영 외, 2015:229-234), 또한 중국 중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21:297-301).
-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친밀하면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임선아 외, 2022:167-170), 교사애착은 중학생의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업무기력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은혜 외, 2021:78-80). 또한 서울, 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는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관계성(교사-학생)은 학습몰입과 깊은 상관관계성이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유다미 외, 2015:224-231), 교사 및 학생과의 관계가 바람직하고 높은 수준이면 초등학생의 학업열의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고(임효진 외, 2020:118-119), 특히 중학생의 교사관계는 남학생 및 여학생 전부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학업열의와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최유림 외, 2024:15-19).
-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와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 탐색을 통하여 다음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H3)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4)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친구관계와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와의 관계

-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정서역량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은,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중에서 친구관계 수준이 높으면 바람직한 사회정서역량 형성을 강화하는 정적 영향을 미치며(장은지 외, 2022:68-70), 한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회정서역량과 정적 상관관계성이 있어 또래관계 형성이 사회정서역량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지연 외, 2023:1628-1630).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 프로파일 연구에서는 원활한 친구관계 형성이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역량의 집단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형석 외, 2021:149-153),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및 회복 탄력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오중근, 2021).
- 친구관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타 연구를 확인하면, 중학생의 친구관계는 남학생 및 여학생 전부의 학업열의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최유림 외, 2024:15-1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학교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친구관계 형성은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민미희, 2022:8-13). 또한 중학생의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주어 무기력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장수연 외, 2020:217-218), 또래애착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주었으며(배현민 외, 2018: 85-86), 타 연구에서도 또래애착은 초등학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희연 외, 2020:509-511).
- 따라서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 확인을 통하여, 아래의 연구가설을 확정하였다.

(H5)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6) 친구관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사회정서역량과 학업열의와의 관계

-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타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회관계 및 정서문제에 따라 학업열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임선아 외, 2022:167-170), 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존중감은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정 외, 2015:377-380). 또한 대학생의 바람직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역량 형성은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강지혜, 2022:33-41), 초등학교의 정서지능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하채연, 2013).
- 따라서 사회정서역량이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대한 이전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정하였다.

(H7)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기능이 확인된 선행연구를 탐색하면, 부모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는 사회정서적인 요소인 그릿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하위요인의 매개역할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임효진 외, 2020:115-12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종열, 2020:73-86). 또한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및 사회적 자원은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기초로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록빈, 2024:28-41; 정민희, 2020).
-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 변인 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탐색을 통해 다음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 (H8)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을 매개역할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9)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을 매개역할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10)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역량을 매개역할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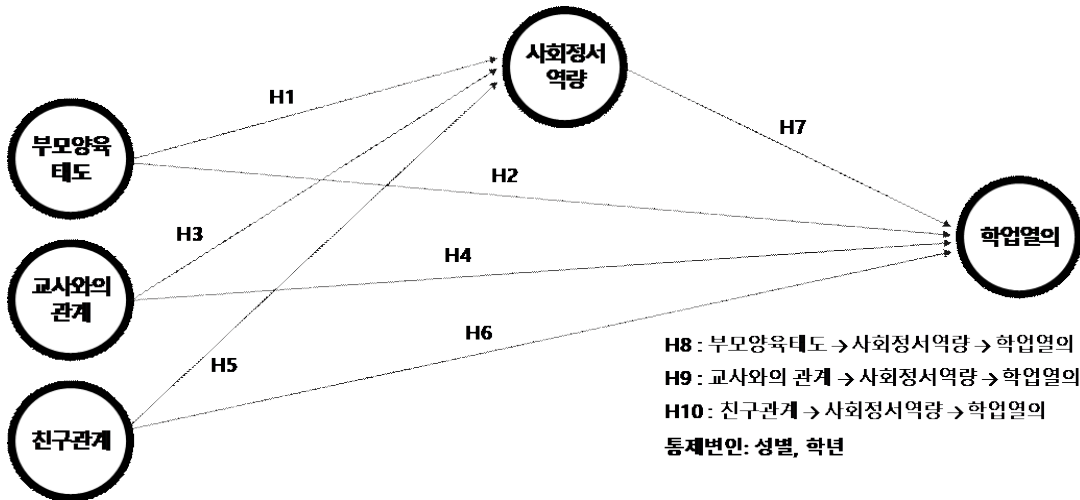
❖ 통제변인,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차이

- 통제변인으로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사회정서역량 또는 학업열의에 차이를 보이는 이전연구를 확인해 보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애정적, 자율적, 성취적)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정서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도미향 외, 2004:81-82), 유아 대상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특성을 살펴본 결과, 친사회성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대-공격성의 경우 남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기금심, 2004:30-36). 또한 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은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장은지 외, 2022:68-70),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은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었다(김대명 외, 2022:52-54).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열의 변화궤적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업열의의 초기값, 선형변화율, 이차변화율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최유림 외, 2024:10-19), 타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진학하면서 학업열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효진 외, 2020:119-121).

❖ 연구모델

-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와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아래의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그림 8-1 연구 모델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 변인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1)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2) 교사와의 관계와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며, (3) 친구관계와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4)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5) 최종적으로,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와 학업열의 간의 경로에서 사회정서역량이 매개기능을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시행한 「학생의 사회적 지지,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수준 파악 및 구조적 영향관계」와 관련하여 2024년 6월 5일~14일 간 조사에서의 경북지역 소재의 5개교 중학생 청소년 1,71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1학년 667명, 2학년 494명, 3학년 555명이었으며, 해당 조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와 관련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세부적으로는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한

여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에 대한 문항,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취, 밝은 호명, 인사, 칭찬, 앞, 공부 기대감의 연구문항, 친구관계와 관련한 시간공유, 고민상담, 이야기, 비밀공유, 도와줌, 친밀감, 관심, 관계성에 대한 측정문항,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연구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문항에 대한 조사방식은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전문 사이트인 유레카(Eureka)에서 조사 설문지를 작성 및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링크와 QR코드를 제공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 본 연구대상자(N=1,716)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는 871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845명으로 49.2% 비율을 보여, 성별 비율은 남녀가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년별 분포를 알아보면, 1학년 667명(38.9%), 2학년 494명(28.8%), 3학년 555명(32.3%)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1,716명 중에서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연구 측정도구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외생변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를 선택하였으며, 학업열의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 부모양육태도

- 부모양육태도는 김태명 외(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KA)’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항목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개의 문항은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의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신뢰도 높은 0.917로 나타났다.

■ 교사와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는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연구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척도는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청취, 밝은 호명, 인사, 칭찬, 앞, 공부 기대감 등을 평가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0.924로 나타났다.

■ 친구관계

- 친구관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등의 시간공유, 고민상담, 이야기, 비밀공유, 도와줌, 친밀감, 관심, 관계성에 대한 총 8개의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을 확인하였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935이었다.

■ 사회정서역량

- 사회정서역량 척도는 이정렬 외(2023)가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인식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사회적 인식에서는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자기관리에서는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등의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846 신뢰도로 확인하였다.

■ 학업열의

- 학업열의는 이자영 외(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해당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신', '활기', '효능감', '몰두'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문항은 학습에 대한 태도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헌신 요인에서는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항을 통해 학습의 의미와 목적 인식, 도전 의식, 자아실현 등을 다루고 있다. 활기 요인에서는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등의 문항으로 공부 시 활력과 에너지, 수업참여 의욕을 측정하고 있다. 효능감 요인은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등의 문항을 통해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과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몰두 요인에서는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등의 문항으로 학습 시 몰입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를 나타내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0.898이었다.

■ 자료 분석

-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및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8.0, Stata 16.0, SAS와 Smart-PLS 3.0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분포와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설명변인, 피설명변인, 그리고 매개변인의 자료 구조와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은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정규 분포를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네 번째로, 연구모델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 PLS)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PLS-SEM은 내생 잠재변인의 오차항을 최소화하고 설명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경로계수를 추정하여 탐색적 연구에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신건권, 2018). 전체 측정모형의 평가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내부분산팽창인자(VIF), 결정계수(R^2), 효과 크기(f^2), 예측적합성(Q^2), 경로계수 및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규명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수행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배병렬, 2018; 신건권, 2018).

연구결과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 본 연구대상자(N=1,716)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자는 871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845명으로 49.2% 비율을 보여, 성별 비율은 남녀가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년별 분포를 알아보면, 1학년 667명(38.9%), 2학년 494명(28.8%), 3학년 555명(32.3%)으로 전체 연구대상자 1,716명 중에서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8-1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N=1,716)

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자	871	50.8
	여자	845	49.2
학년	1학년	667	38.9
	2학년	494	28.8
	3학년	555	32.3
전체		1,716	100.0

-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의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값을 산출해 보면, 부모양육태도 4.098~4.371점, 교사와의 관계 3.796~3.948점, 친구관계 3.708~4.115점, 사회정서역량 3.336~4.191점, 학업열의 2.756~3.631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line(1998)의 기준(왜도 3이하/첨도 8이하)을 적용하여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은 0.053에서 1.343사이, 첨도의 절댓값은 0.067에서 1.607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모든 변인은 정규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231 \sim .468$)를 보였으며, 교사와의 관계는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와 정적 상관관계($r = .294 \sim .442$)를 나타냈고,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281 \sim .610$)를 드러냈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와 정적 상관관계($r = .136 \sim .607$)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N=1,716)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부모양육태도	①																	
	②	.840***																
	③	.747***	.775***															
교사와의 관계	①	.422***	.409***	.430***														
	②	.380***	.370***	.406***	.860***													
친구관계	①	.468***	.459***	.466***	.431***	.418***												
	②	.381***	.397***	.419***	.385***	.402***	.798***											
	③	.416***	.417***	.442***	.394***	.409***	.833***	.848***										
사회정서역량	①	.456***	.434***	.466***	.404***	.404***	.503***	.467***	.499***									
	②	.390***	.349***	.361***	.370***	.327***	.359***	.281***	.308***	.570***								
	③	.359***	.371***	.411***	.393***	.423***	.414***	.439***	.422***	.565***	.391***							
	④	.337***	.317***	.352***	.319***	.351***	.564***	.594***	.610***	.578***	.340***	.591***						
	⑤	.444***	.413***	.431***	.424***	.435***	.546***	.500***	.528***	.562***	.481***	.576***	.583***					
학업열의	①	.410***	.421***	.450***	.442***	.408***	.462***	.443***	.452***	.493***	.343***	.604***	.417***	.476***				
	②	.231***	.264***	.317***	.316***	.354***	.309***	.413***	.378***	.346***	.136***	.607***	.414***	.337***	.688***			
	③	.244***	.253***	.288***	.294***	.326***	.328***	.374***	.389***	.401***	.182***	.570***	.437***	.355***	.630***	.692***		
	④	.264***	.292***	.325***	.335***	.348***	.339***	.389***	.377***	.379***	.204***	.592***	.427***	.391***	.672***	.719***	.725***	
평균		4.371	4.242	4.098	3.948	3.796	4.115	3.708	3.856	3.973	4.191	3.336	3.512	3.925	3.631	2.756	2.915	3.065
표준편차		0.813	0.879	0.899	0.877	0.931	0.850	0.985	0.976	0.695	0.764	0.822	0.946	0.843	1.009	1.213	1.177	1.057
왜도		-1.343	-1.165	-0.820	-0.718	-0.559	-0.978	-0.451	-0.673	-0.446	-0.835	0.206	-0.239	-0.530	-0.418	0.323	0.151	0.053
첨도		1.607	0.955	0.127	0.358	0.094	0.899	-0.385	0.067	0.377	0.596	-0.127	-0.296	0.178	-0.352	-0.775	-0.788	-0.482

*** $p < .001$ / ①, ②, ③, ④, ⑤는 각 잠재변인별 세부 관측변인 / 부모양육태도: ①따스함, ②자율지지, ③구조제공 /

교사와의 관계: ①교사와의 관계1, ②교사와의 관계2 / 친구관계: ①친구관계1, ②친구관계2, ③친구관계3 /

사회정서역량: ①자기인식, ②사회적 인식, ③자기관리, ④관계기술, ⑤책임있는 의사결정 / 학업열의: ①헌신, ②활기, ③효능감, ④몰두

❖ 전체 측정모형 평가

- 본 연구모형에 대해 반영적 측정 모델의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세부적으로 평가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s α)가 0.846에서 0.935 사이로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였으며, rho_A는 0.862에서 0.935로 나타나 기준치인 0.7을 만족하였고,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890에서 0.964로 기준치인 0.7을 초과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양호함을 보여주었다(Werts et al., 1974; 신건권, 2018; Dijkstra et al., 2015). 또한 집중 타당도를 보면, 외부 적재치는 0.654에서 0.965로 기준치인 0.5가 넘었고,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0.620에서 0.930 사이로 기준치인 0.5를 상회하여, 본 연구의 집중 타당도 수준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Chin, 1998; Hulland, 1999; Fornell et al., 1981; Hair et al., 2011; Bagozzi et al., 1991; 신건권, 2018).

표 8-3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집중타당도 확인

잠재변인	관측변인	외부적재치	Cronbach's α	rho_A	Composite Reliability	AVE
부모양육태도	따스함	0.928	0.917	0.919	0.948	0.858
	자율지지	0.938				
	구조제공	0.913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1	0.963	0.924	0.925	0.964	0.930
	교사와의 관계2	0.965				
친구관계	친구관계1	0.932	0.935	0.935	0.958	0.884
	친구관계2	0.938				
	친구관계3	0.951				
사회정서역량	자기인식	0.828	0.846	0.862	0.890	0.620
	사회적 인식	0.654				
	자기관리	0.818				
	관계기술	0.804				
	책임있는 의사결정	0.819				
학업열의	몰두	0.887	0.898	0.904	0.929	0.765
	헌신	0.869				
	활기	0.879				
	효능감	0.863				

- Fornell-Larcker 기준을 사용하여 판별타당도를 평가하였을 때, 분석결과에서 모든 잠재변인에서 평균분산추출(AVE)의 제공된 값이 해당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 값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모형이 판별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잠재변인들 간에 타당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ornell et al., 1981).

표 8-4 Fornell-Larcker 판별타당도 검증

잠재변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
부모양육태도	0.926	-	-	-	-
교사와의 관계	0.452	0.964	-	-	-
친구관계	0.493	0.448	0.940	-	-
사회정서역량	0.536	0.506	0.641	0.787	-
학업열의	0.395	0.423	0.476	0.614	0.875

-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 분석을 통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HTMT_{.85}$ 값이 0.85미만이면 판별타당도가 충족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Teo et al., 2008; Henseler et al., 2015), 본 연구모형에서 $HTMT_{.85}$ 값은 0.426에서 0.713 범위로 나타나, 기준치인 0.85를 모두 밑돌아, 연구모형은 판별타당도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5 $HTMT_{.85}$ 판별타당도 검증

잠재변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
부모양육태도	-	-	-	-	-
교사와의 관계	0.490	-	-	-	-
친구관계	0.532	0.482	-	-	-
사회정서역량	0.612	0.574	0.713	-	-
학업열의	0.426	0.459	0.514	0.676	-

- $HTMT_{추론}$ 검증에서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을 활용하며, 이 신뢰구간에 1이 포함되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이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Henseler et al., 2015; Shaffer, 1995).

표 8-6 $HTMT_{추론}$ 판별타당도 검증

구분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Bias	Confidence Interval	
				2.50%	97.50%
부모양육태도 → 교사와의관계	0.490	0.489	0	0.437	0.540
친구관계 → 교사와의관계	0.482	0.483	0.001	0.431	0.532
친구관계 → 부모양육태도	0.532	0.533	0	0.480	0.582
친구관계 → 사회정서역량	0.713	0.713	0	0.668	0.749
사회정서역량 → 교사와의 관계	0.574	0.574	0	0.521	0.621
사회정서역량 → 부모양육태도	0.612	0.611	-0.001	0.561	0.659
학업열의 → 교사와의관계	0.459	0.460	0.001	0.408	0.505

구분	Original Sample (O)	Sample Mean (M)	Bias	Confidence Interval	
				2.50%	97.50%
학업열의 → 부모양육태도	0.426	0.426	0	0.379	0.469
학업열의 → 사회정서역량	0.676	0.676	0	0.632	0.714
학업열의 → 친구관계	0.514	0.514	0	0.472	0.554

❖ 구조모형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내부 분산팽창인자(VIF)는 1.582에서 4.669 사이로 기준치의 5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정서역량과 학업열의의 수정된 R^2 는 각각 0.506과 0.401로 측정되었다(Hair et al., 2011; 신건권, 2018). 또한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효과 크기(f^2)는 각각 0.072, 0.064, 0.267로 나타났으며, 학업열의에 대한 효과 크기는 부모양육태도 0.002, 교사와의 관계 0.018, 친구 관계 0.010, 사회정서역량 0.177로 확인되어, 친구관계가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신건권, 2018; Cohen, 2013). Q^2 값(기준값 0초과)은 사회정서역량이 0.312, 학업열의가 0.300으로, 연구모형이 예측 적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Fornell et al., 1994; Geisser, 1974).
-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221$, $p<.001$, CI [.169, .271])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열의에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6$, $p=.216$, CI [-.021, .093]).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210$, $p<.001$, CI [.161, .260]), 학업열의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3$, $p<.001$, CI [.072, .172]).
-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beta=.440$, $p<.001$, CI [.389, .485]), 학업열의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113$, $p<.001$, CI [.050, .182]). 또한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62$, $p<.001$, CI [.393, .529]).
- 통제변인인 성별은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024$, $p=.168$, CI [-.057, .010]), 학업열의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2$, $p=.007$, CI [-.090, -.014]). 또한 학년 통제변인은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beta=-.049$, $p=.005$, CI [-.083, -.015]), 학년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 $p=.799$, CI [-.041, .033]).
-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을 완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02$, $p<.001$, CI [.075, .132]),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을 부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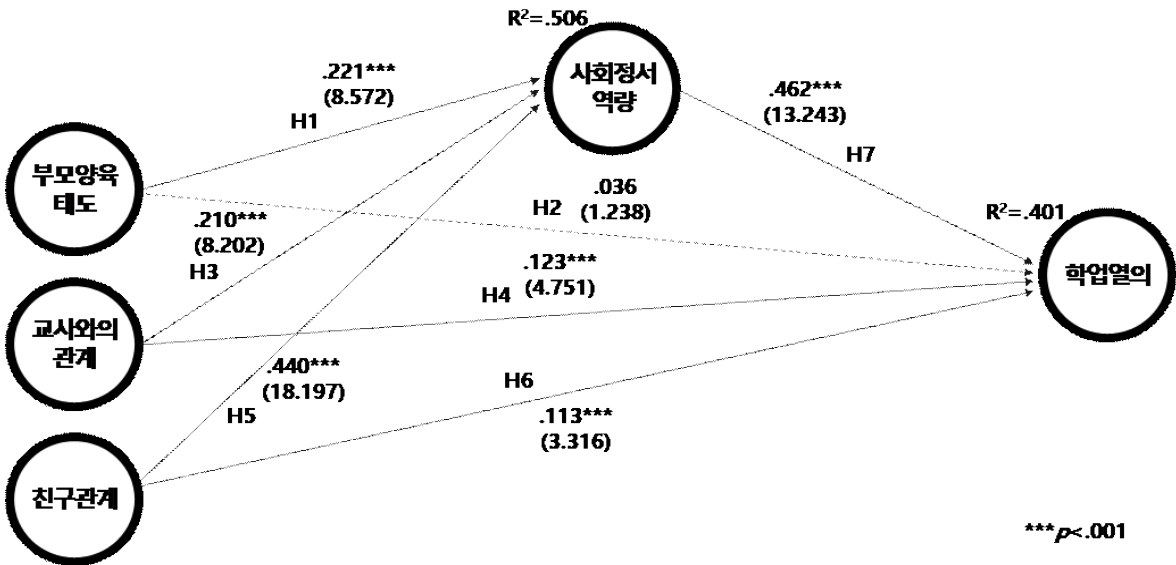
$p < .001$, CI [.073, .123]), 친구관계 역시 사회정서역량을 부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3$, $p < .001$, CI [.160, .246]).

- 통제변인인 성별이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 = -.011$, $p = .173$, CI [-.027, .005]), 반면에 통제변인인 학년은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3$, $p = .005$, CI [-.039, -.007]).
- 상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사회정서역량 또는 학업열의에 매우 중요한 변인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사회정서역량은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 간의 관계 내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이 드러났다.

표 8-7 구조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β)	SD	t	p	BCa 95% CI	결과
직접효과							
H1	부모양육태도 → 사회정서역량	.221	.026	8.572	<.001	[.169, .271]	채택
H2	부모양육태도 → 학업열의	.036	.029	1.238	.216	[-.021, .093]	기각
H3	교사와의 관계 → 사회정서역량	.210	.026	8.202	<.001	[.161, .260]	채택
H4	교사와의 관계 → 학업열의	.123	.026	4.751	<.001	[.072, .172]	채택
H5	친구관계 → 사회정서역량	.440	.024	18.197	<.001	[.389, .485]	채택
H6	친구관계 → 학업열의	.113	.034	3.316	<.001	[.050, .182]	채택
H7	사회정서역량 → 학업열의	.462	.035	13.243	<.001	[.393, .529]	채택
통제 변인	성별 → 사회정서역량	-.024	.017	1.379	.168	[-.057, .010]	기각
	성별 → 학업열의	-.052	.019	2.681	.007	[-.090, -.014]	채택
	학년 → 사회정서역량	-.049	.017	2.840	.005	[-.083, -.015]	채택
	학년 → 학업열의	-.005	.019	0.255	.799	[-.041, .033]	기각
간접효과							
H8	부모양육태도 → 사회정서역량 → 학업열의	.102	.015	7.026	<.001	[.075, .132]	채택
H9	교사와의관계 → 사회정서역량 → 학업열의	.097	.013	7.617	<.001	[.073, .123]	채택
H10	친구관계 → 사회정서역량 → 학업열의	.203	.022	9.190	<.001	[.160, .246]	채택
통제 변인	성별 → 사회정서역량 → 학업열의	-.011	.008	1.363	.173	[-.027, .005]	기각
	학년 → 사회정서역량 → 학업열의	-.023	.008	2.812	.005	[-.039, -.007]	채택

그림 8-2 구조모델과 관련한 연구가설 검증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 변인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확인과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북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1,71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전체 인원 중에서 남자 871명(50.8%), 여자 845명(49.2%)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667명(38.9%), 2학년 494명(28.8%), 3학년 555명(32.3%)으로 구성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값은 부모양육태도 4.098~4.371점, 교사와의 관계 3.796~3.948점, 친구관계 3.708~4.115점, 사회정서역량 3.336~4.191점, 학업열의 2.756~3.631점이었고,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구변인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간에 전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는 표준화경로계수($\beta = .221$),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정서역량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고, 교사와의 관계는 표준화경로계수($\beta = .210$),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사회정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는 표준화경로계수($\beta = .440$), $p < .001$ 수준에서 사회정서역량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형성은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전 선행연구 결과(김형석 외, 2022:241-247; 도미향 외, 2004:81-82; 문재영 외, 2022:82-83; 기금심, 2004:30-36; 김지연 외, 2023:1628-1630; 장은지 외, 2022:68-70)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기 학생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

강화 노력은 사회정서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결과(김단비 외, 2018:85-90; Yang et al., 2021:297-301; 오중근, 2021)와 동일한 맥락이라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따스함, 자율지지 및 구조제공 등의 부모양육태도, 칭취, 밝은 호명, 인사, 칭찬, 앓, 공부 기대감의 교사와의 관계, 시간공유, 고민상담, 이야기, 비밀공유, 도와줌, 친밀감, 관심, 관계성의 친구관계 형성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청소년에게 행해지는 단순한 훈육 및 정서적 지지가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 기술 함양 및 정서적 안정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교사도 학생들에게 학업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도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 함양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적 실천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태도, 자녀행동 코칭, 자녀감정 이해를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교 내외에서 부모-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험, 가족 공감 및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도 요구되고, 가족 성향 이해(DISC 성격유형검사, MBTI 성향 검사, 가족 구성원 장점/단점 파악 등), 가족 소통을 돕는 인성교육 활성화 등도 필요할 것이다.
- 교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상담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심화 연수과정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심리정서적 위험학생에 대한 상담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 대상으로 좀 더 학생들의 정서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력 강화를 위한 뇌 과학, 감정관련 신경전달물질 등에 대한 교육도 요구되며, 학생과의 정기적인 상담 시간 또는 주간을 설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게다가,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하여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수업 및 활동 프로그램 구성도 요구된다. 특히, 사회정서학습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서 및 장단점을 이해하고 정서적 경험과 표현 조절이 가능하며, 학생 주변의 타인의 입장과 정서 이해를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돕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CASEL, 20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따라서 사회성 증진을 위해 학교 내에서 대인관계 기술(친구 감정 및 정서표현 이해, 자기통제기술, 도움)과 관련한 교육 강화와 협력 중심의 다양한 팀프로젝트 활성화가 요구된다.
-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열의에 표준화경로계수($\beta = .036$), $p = .21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열의에 표준화경로계수($\beta = .123$),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는 학업열의에 표준화경로계수($\beta = .113$),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타 선행연구 결과(이원례 외, 2022:68-69; 정문경, 2022:810-811; 최혜선 외, 2021:111-116)와는 다른 결과였고,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 방법, 또는 다른 외부 영향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열의와 관련하여 부모양육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부모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통해,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 및 학업지원, 학습습관 지도 등은 학생의 학업열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와의 관계 및 친구관계의 개선 노력에 따라 학업열의도 변화 및 상승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정은혜 외, 2021:78-80; 임효진 외, 2020:118-119; 장수연 외, 2020:217-218; 최유림 외, 2024:15-19)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는 학업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임선아 외, 2022: 167-170).

- 상기의 결과는 청소년기 학생에게 있어서 교사 및 친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학업열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교사로부터의 지지와 상호 피드백 활동을 통해 학업열의 및 성취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친구와의 다양한 문학, 예술,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협력적이고 상호 지지적인 친구관계 형성 기회 제공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친구 간의 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상담,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표준화경로계수($\beta=.462$, $p<.001$ 수준에서 주었고,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beta=.102$, $p<.001$)는 사회정서역량을 완전매개로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교사와의 관계($\beta=.097$, $p<.001$)는 사회정서역량을 부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친구관계($\beta=.203$, $p<.001$)는 사회정서역량을 부분매개로 학업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의 매개 수준에 따라 학업열의에도 큰 영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결과는 타 선행연구의 결과(강지혜, 2022:33-41; 임선아 외, 2022:167-170)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이 완전 또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 본 연구결과는 다른 이전연구 결과(정민희, 2020; 최록빈, 2024:28-41; 임효진 외, 2020:115-121; 박종열, 2020:73-86)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보인 직접적인 효과 및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 간의 간접적인 매개효과는 사회정서역량 함양이 왜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 또는 정서적 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서도 학업열의 증진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이해 및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세부적인 하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회정서학습 기반 교재 및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 통제변인인 성별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beta=-.052$, $p=.007$), 학년 통제변인은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049$, $p=.005$), 통제변인인 학년은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3$, $p=.005$). 따라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낮은 경향이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정서역량 및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한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학생들의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정서역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고학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고학년 학생 대상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관리교육, 상담 등을 통해 교육적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최근의 청소년의 학업열의 및 사회정서역량 수준 파악과 부모, 교사 및 친구 관계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가정 및 학교 내에서의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사회정서역량의 매개 효과를 밝혀, 정서적 발달이 학업열의 및 성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증적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된 것으로 사료된다.
-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연구 대상 및 방법론, 연구진행상 제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차기 연구와 관련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학교급별 차이를 확인 및 분석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열의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와 사회정서역량 변인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하였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열의와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로 연구를 확대 진행해 보는 것도 제안한다. 셋째,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경북 소재 일부학교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경상북도 전체 또는 국내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는 연구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좀 더 확대해 보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진행된 연구임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추후 연구에서는 해당 변인들의 종단연구 또는 반복적 횡단분석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보인 사회정서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IX

심화 분석2: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요인 탐색

제IX장

심화 분석2: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요인 탐색

서론

❖ 연구 필요성

-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4; 통계청, 2022).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높은 학업 성취를 강조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김정현 외, 2014; 선혜연 외, 2013). 학업 스트레스는 한국 청소년의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로, 높은 학력에 대한 기대와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신감 상실과 불안감을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김영경, 2022; 서현주 외, 2017; 손신영, 2017).
-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1.1명으로, 이는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이다(통계청,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이러한 높은 자살률은 학업 부담,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특히 학업 성취를 중심으로 한 교육 문화와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청소년들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3; 기채은 외, 2019).
-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문제는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관계의 질이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은정, 2014; 문유진 외, 2023).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손신영, 2017; 유계환 외, 2022; 김혜원 외, 2010; 이서연, 2022; 김미루 외, 2023). 예를 들어, 부모의 따뜻함과 자율 지지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과도한 통제나 비난은 그들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은정, 2021; 김미루 외, 2023; 손신영, 2017). 따라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계환 외, 2022; 김혜원 외, 2010).
- 또한 학교 내에서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유정아, 2024; 송정은 외, 2015; 손신영, 2017).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사회적 지원의 중요한 원

천이며, 이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최유라, 2015; 김미루 외, 2023). 그러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소외감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현주, 2021; 유여진, 2021; 김혜원 외, 2010). 더불어, 교사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원적이고 이해심 많은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며,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한다(김미선 외, 2021; 김근진 외, 2015; 손신영, 2017; 박진규 외, 2018; 최희철 외, 2024).

- 추가적으로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의 사회정서 역량도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이연옥, 2011; 손유선, 2023; 김지연 외, 2023; 백예은 외, 2020).
- 따라서 청소년기의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경험과 사회정서 역량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모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다양한 독립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의 부모양육태도 변인,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사회정서역량(자기인식, 정서지식, 사회적 인식, 정서조절, 목표관리, 학교공부,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및 정책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관계, 사회정서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지적이고 따뜻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유계환 외, 2022; 김혜원 외, 2010). 특히 양육 스타일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허자연 외, 2020; 이서연, 2022; 김미루 외, 2023). 반면, 과잉 보호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은 자아 개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은정, 2021; 손신영, 2017).

❖ 교사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와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근진 외, 2015; 김미선 외, 2021). 교사의 지지와 신뢰는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을 높여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소영, 2022; 정문숙 외, 2023). 학교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킨다(최희철 외, 2024; 박진규 외, 2018).

❖ 친구관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송경은 외, 2015; 유정아, 2024; 김선희 외, 2018; 배성만 외, 2015).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정서적 회복력과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조소영 외, 2022; 김진희 외, 2017; 김선희 외, 2018). 반면, 부정적인 또래 관계나 괴롭힘 경험은 정서적 고립감을 초래하여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은희, 2022; 정유경, 2023).

❖ 사회정서역량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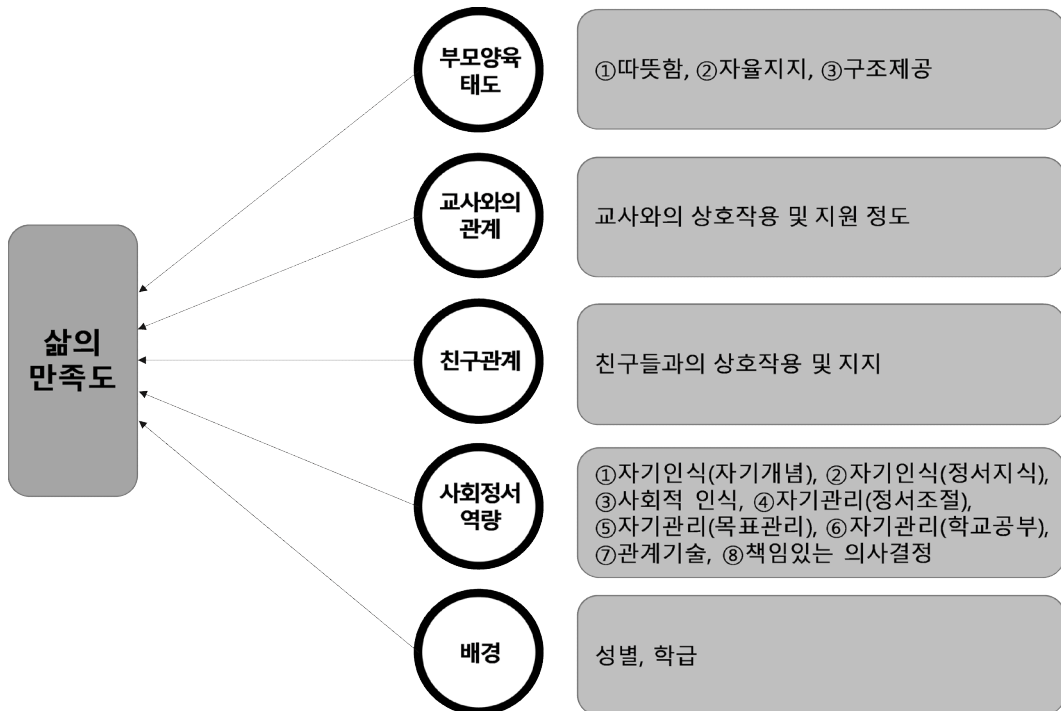
- 사회정서역량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사회정서역량은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다양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역량이 발달된 청소년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김지연 외, 2023; 백예은 외, 2020; 이연옥, 2011; 손유선, 2023). 자기인식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감정 조절을 포함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기인식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자기인식이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조명현, 2023; 김혜진 외, 2023; 김은영, 2022). 사회적 인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이 또한 삶의 만족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인식이 발달된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고,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유도한다(김선희 외, 2018; 이연옥, 2023; 손유선, 2023).
- 자기관리는 감정 조절과 목표 달성 능력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는 청소년은 학업과 개인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성취감과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이연옥, 2023; 정득 외, 2015; 신승배, 2015). 관계기술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기술이 뛰어난 청소년은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한다(이연옥, 2023; 손유선, 2023; 신승배, 2015).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윤리적 판단과 선택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의 행동과 삶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은 청소년이 자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돕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정득 외, 2015; 이연옥, 2023).

❖ 연구모형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별 및 학년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사회적 지지에는 부모양육태도(따뜻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교사와의 관계(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지원 정도), 친구관계(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및 지지)로 정하였으며, 사회정서역량에는 자기인식(자기개념), 자기인식(정서지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정서조절), 자기관리(목표관리), 자기관리(학교공부),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으로 설계하였고, 배경요인으로 성별(남, 여) 및 학년(1~3학년)으로 정하였다.
-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 사회정서역량과의 관계에 대한 이전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그림 9-1 연구 모델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조사한 경북지역의 중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1,7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4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1학년 667명, 2학년 494명, 3학년 555명이었으며, 연구자료는 유레카(Eureka) 사이트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고, 설문지는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제공되었다.

❖ 연구도구

■ 부모양육태도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KA)'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김태명 외(2017)가 타당화한 것으로,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을 평가하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7$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 교사와의 관계

- 교사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연구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등의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의 개별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는 0.916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은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 친구관계

- 친구관계의 연구문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 척도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얼마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문항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여 응답을 받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값이 0.929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사회정서역량

- 사회정서역량 척도는 이정렬 외(2023)가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척도는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청소년의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자기인식 항목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와 같은 문항으로 평가되며, 이와 같은 항목들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역량이 우수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846으로 확인되었다.

■ 배경

- 학생의 배경변인 중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년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성취감, 그리고 삶의 재설계 의지 등을 평가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을 수집하였다. 높은 점수는 삶의 만족도의 높은 수준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0.906으로 산출되었다.

■ 자료 분석

- 본 연구에서는 SPSS 28.0과 Stata 16.0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행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해석이 쉬운 모형을 제공하며,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변수 선택과 분할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므로, 결과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용이하다(최종후, 1998; 조현진 외, 2020; 김성희, 2003).
- 특히 C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분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찾아내는 데 유용하고, CRT 방식은 각 노드에서 최대의 정보 이득을 제공하는 변수와 그 임계값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할하여 나가는 방식

이며, 이는 데이터의 비선형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어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최종후, 1998; Breiman et al., 2017; Njoku, 2019).

- 추가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별 및 학년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716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있고, 성별 분포는 남자 871명(50.8%)과 여자 845명(49.2%)으로,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667명(38.9%), 2학년이 494명(28.8%), 3학년이 555명(32.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9-1 연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N=1,716)

일반적 특성		N	%
성별	남자	871	50.8
	여자	845	49.2
학년	1학년	667	38.9
	2학년	494	28.8
	3학년	555	32.3
전체		1,716	100.0

❖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에 대해 기술통계를 수행한 결과, 부모양육태도는 세부 항목별 평균은 4.098~4.371로 나타났고, 이는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에 대해 학생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교사와의 관계는 평균 3.872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친구관계는 평균 3.898로,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사회정서역량은 세부 항목별 평균은 3.064~4.191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인식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19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중간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 Kline(1998) 기준에 따라 왜도가 ± 3 을 넘지 않고, 첨도가 ± 8 을 넘지 않는 경우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으므로, 왜도는 모든 변인이 -1.343에서 0.160사이였고, 첨도는 -0.515에서 1.607사이이므로 모든 변수는 정규성을 충족하였다.
-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의 세 하위 요인(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

공)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r = 0.488 \sim 0.510$), 교사와의 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433$).

- 또한 친구관계도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r = 0.549$), 사회정서역량의 다양한 하위 요인(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모두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275 \sim 0.519$).

표 9-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N=1,716)

상관관계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삶의 만족도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부모양육 태도	①														
	②	.840***													
	③	.747***	.775***												
교사와의 관계		.415***	.404***	.433***											
친구관계		.447***	.450***	.469***	.448***										
사회정서 역량	①	.410***	.398***	.427***	.391***	.473***									
	②	.384***	.358***	.383***	.338***	.429***	.510***								
	③	.390***	.349***	.361***	.361***	.335***	.412***	.575***							
	④	.288***	.309***	.333***	.337***	.367***	.448***	.317***	.315***						
	⑤	.410***	.402***	.417***	.448***	.471***	.604***	.505***	.470***	.584***					
	⑥	.241***	.254***	.313***	.317***	.339***	.388***	.315***	.241***	.581***	.577***				
	⑦	.337***	.317***	.352***	.348***	.625***	.530***	.474***	.340***	.494***	.560***	.467***			
	⑧	.444***	.413***	.431***	.446***	.557***	.475***	.502***	.481***	.493***	.585***	.410***	.583***		
삶의 만족도		.488***	.506***	.510***	.433***	.549***	.519***	.321***	.275***	.462***	.502***	.379***	.465***	.444***	
평균		4.371	4.242	4.098	3.872	3.898	3.838	4.073	4.191	3.190	3.803	3.064	3.512	3.925	3.519
표준편차		0.813	0.879	0.899	0.872	0.876	0.916	0.713	0.764	0.964	0.868	1.066	0.946	0.843	1.023
왜도		-1.343	-1.165	-0.820	-0.630	-0.653	-0.538	-0.687	-0.835	0.160	-0.432	0.107	-0.239	-0.530	-0.290
첨도		1.607	0.955	0.127	0.286	0.188	-0.122	0.831	0.596	-0.411	-0.058	-0.594	-0.296	0.178	-0.515

*** $p < .001$ / 부모양육태도: ①파스합, ②자율지지, ③구조제공 / 사회정서역량: ①자기인식(자기개념), ②자기인식(정서지식), ③사회적 인식, ④자기관리(정서조절), ⑤자기관리(목표관리), ⑥자기관리(학교공부), ⑦관계기술, ⑧책임있는 의사결정

❖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결과

- 모형의 위험도(오차율) 추정값은 0.229로, 이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이 약 22.9%의 데이터를 잘못 분류했음을 의미하며, 이 모형의 예측 정확도는 77.1%이다. 또한 표준화 오차가 낮은 수치인 0.010으로 나타나, 모형의 위험도 추정치가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최종 후, 1998; Breima 2001). 따라서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 나무모형이 비교적 높은 성능을 발휘함을 시사하며, 이런 결과는 예측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Breima 2001; Quinlan 1986; Han et al. 2022; Bishop 2006).

표 9-3 위험도

추정값	표준화 오차
0.229	0.010

※ 성장방법: CRT

- 의사결정나무모형은 전체적으로 77.1%의 정확도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였고, 특히 고수준 만족도 예측에서 84.1%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저수준 만족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70.2%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이는 모형이 고수준 만족도 예측에 더 강력한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Breiman 2001; Quinlan 1986; 최종후, 1998).

표 9-4 분류의 정확도

관측		예측		
		삶의 만족도		정확도 퍼센트
		저수준	고수준	
삶의 만족도	저수준	605	257	70.2%
	고수준	136	718	84.1%
전체 퍼센트		43.2%	56.8%	77.1%

※ 성장방법: CRT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을 확인한 결과, 자기인식(자기개념)이 중요도 점수 0.138, 정규화 중요도 100.0%으로 나타나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중요도는 각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정규화 중요도는 상대적 중요도를 100%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최종후, 1998; Breima 2001; Quinlan 1986; Han et al. 2022).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따스함과 자율지지가 각각 중요도 0.135(정규화 중요도 97.9%)와 0.130(정규화 중요도 94.1%)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목표관리)는 중요도 0.128(정규화 중요도 92.4%)로, 교사와의 관계는 중요도 0.125(정규화 중요도 90.3%)을 보였고, 이 외에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중요도 0.123, 정규화 중요도 88.8%), 친구관계(중요도 0.117, 정규화 중요도 84.5%), 자기관리(정서조절)(중요도 0.094, 정규화 중요도 68.0%)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Quinlan 1986; Breima 2001; Han et al. 2022).

표 9-5 독립변인 중요도

독립변인	중요도	정규화 중요도
자기인식(자기개념)	0.138	100.0%
부모양육태도(따스함)	0.135	97.9%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0.130	94.1%
자기관리(목표관리)	0.128	92.4%
교사와의 관계	0.125	90.3%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0.123	88.8%
친구관계	0.117	84.5%
자기관리(정서조절)	0.094	68.0%
책임있는 의사결정	0.091	65.6%
관계기술	0.067	48.3%

독립변인	중요도	정규화 중요도
자기관리(학교공부)	0.062	44.6%
자기인식(정서지식)	0.046	33.6%
사회적 인식	0.035	25.6%
학년	0.009	6.6%
성별	0.003	1.9%

- 의사결정나무 모형에서 특정 노드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기여하는 수준을 알아보면, 이득은 특정 노드가 목표 범주(고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반응은 특정 노드에서 목표 범주에 속하는 샘플의 비율이고, 지수는 특정 노드의 반응이 전체 데이터셋에서의 목표 범주 비율과 비교하여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낸다(최종후, 1998; Han et al. 2022; Breima 2001; Quinlan 1986).
- [노드 22]에서는 친구관계>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4.625, 자기관리(정서조절)>2.625, 교사와의 관계>4.417(고수준 만족도: 298명/저수준 만족도: 23명)로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의 자율지지, 자기관리의 정서조절,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모두 높은 청소년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따라서,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의 자율지지, 자기관리의 정서조절,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가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 [노드 15]에서는 친구관계<=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4.125, 부모양육태도(따스함)<=3.625,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3.125으로 고수준 만족도 2명, 저수준 만족도 170명으로 나누어졌고,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낮은 삶의 만족도로 분류되어,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부모양육태도(따스함),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저수준 만족도’로 분류하는 핵심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 [노드 21]에서는 친구관계>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4.625, 자기관리(정서조절)>2.625, 교사와의 관계<=4.417으로 고수준 만족도 154명, 저수준 만족도 47명으로 분류되었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자기관리(정서조절), 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노드 10]에서는 친구관계<=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4.125, 자기관리(목표관리)>3.833으로 고수준 만족도 59명, 저수준 만족도 38명으로 나누어졌고,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자기관리(목표관리) 순으로 확인되었다. [노드 12]에서는 친구관계>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4.625, 자기인식(자기개념)>3.500으로 고수준 만족도 148명, 저수준 만족도 105명으로 구분되었고, 주요 예측변인으로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자기인식(자기개념)으로 나타났다.
- [노드 13]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자기관리(정서조절), [노드 20]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자기관리(목표관리), [노드 17]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부모양육태도(따스함), 학년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설명변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드 11]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자기인식(자기개념)이 예측변인으로의 역할을 했고, [노드 19]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자기관리(목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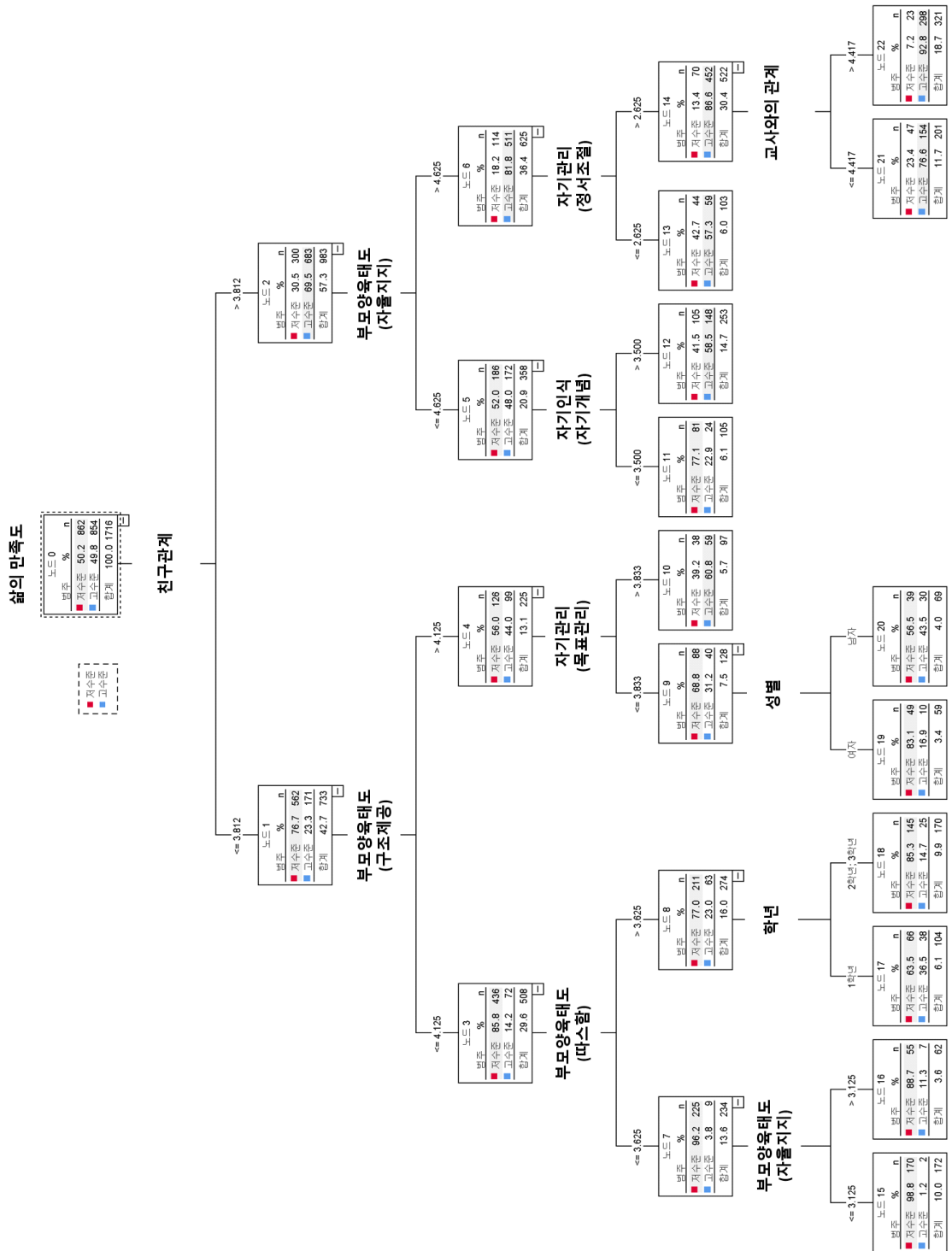
성별이 예측변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 [노드 16]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부모양육태도(따스함),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가 삶의 만족도를 구분하는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드 18]에서는 친구관계,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부모양육태도(따스함), 학년이 예측변인 기능을 하였다.

표 9-6 노드에 대한 이득

노드	N	퍼센트	이득(N)	이득(퍼센트)	반응	지수	분류 기준 특징
22	321	18.7%	298	34.9%	92.8%	186.5%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4.625, 자기관리(정서조절) > 2.625, 교사와의 관계 > 4.417 (고수준 만족도: 298명/저수준 만족도: 23명)
21	201	11.7%	154	18.0%	76.6%	154.0%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4.625, 자기관리(정서조절) > 2.625, 교사와의 관계 <= 4.417 (고수준 만족도: 154명/저수준 만족도: 47명)
10	97	5.7%	59	6.9%	60.8%	122.2%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자기관리(목표관리) > 3.833 (고수준 만족도: 59명/저수준 만족도: 38명)
12	253	14.7%	148	17.3%	58.5%	117.5%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4.625, 자기인식(자기개념) > 3.500 (고수준 만족도: 148명/저수준 만족도: 105명)
13	103	6.0%	59	6.9%	57.3%	115.1%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4.625, 자기관리(정서조절) <= 2.625, (고수준 만족도: 59명/저수준 만족도: 44명)
20	69	4.0%	30	3.5%	43.5%	87.4%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자기관리(목표관리) <= 3.833, 성별:남자 (고수준 만족도: 30명/저수준 만족도: 39명)
17	104	6.1%	38	4.4%	36.5%	73.4%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부모양육태도(따스함) > 3.625, 학년:1학년 (고수준 만족도: 38명/저수준 만족도: 66명)
11	105	6.1%	24	2.8%	22.9%	45.9%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4.625, 자기인식(자기개념) <= 3.500 (고수준 만족도: 24명/저수준 만족도: 81명)
19	59	3.4%	10	1.2%	16.9%	34.1%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자기관리(목표관리) <= 3.833, 성별:여자 (고수준 만족도: 10명/저수준 만족도: 49명)
18	170	9.9%	25	2.9%	14.7%	29.5%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부모양육태도(따스함) > 3.625, 학년:2학년/3학년 (고수준 만족도: 25명/저수준 만족도: 145명)
16	62	3.6%	7	0.8%	11.3%	22.7%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부모양육태도(따스함) <= 3.625,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3.125 (고수준 만족도: 7명/저수준 만족도: 55명)
15	172	10.0%	2	0.2%	1.2%	2.3%	친구관계 <= 3.812,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 4.125, 부모양육태도(따스함) <= 3.625,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 3.125 (고수준 만족도: 2명/저수준 만족도: 170명)

그림 9-2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결과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별 및 학년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Cox와 Snell의 R-제곱 값은 0.386으로 독립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를 38.6% 설명하고 있으며, Nagelkerke R-제곱 값은 0.514로, 모형의 설명력이 51.4%를 나타내었다.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Hosmer와 Lemeshow 검정을 한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Chi-square)은 7.500, p-value는 0.484으로 확인되어 본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부모양육태도(따뜻함)는 $B=0.531$, $p<0.001$, $\text{Exp}(B)=1.700$ (95% CI: 1.252, 2.307)로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가 1단위 향상될 때,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7배 증가하며,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는 $B=0.438$, $p=0.002$, $\text{Exp}(B)=1.549$ (95% CI: 1.168, 2.054)로 부모의 자율지지가 1단위 증가할 때,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549배 증가한다.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와의 관계는 $B=0.411$, $p<0.001$, $\text{Exp}(B)=1.508$ (95% CI: 1.271, 1.789)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508배 증가한다. 친구관계는 $B=0.638$, $p<0.001$, $\text{Exp}(B)=1.893$ (95% CI: 1.540, 2.326)로 친구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893배 증가한다.
- 사회정서역량 중에서 자기인식(자기개념)은 $B=0.498$, $p<0.001$, $\text{Exp}(B)=1.646$ (95% CI: 1.364, 1.986)로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학생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고, 자기개념이 1단위 향상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646배 증가한다. 자기인식(정서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회적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자기관리(정서조절)은 $B=0.311$, $p<0.001$, $\text{Exp}(B)=1.365$ (95% CI: 1.146, 1.625)로 정서조절 능력이 좋은 학생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정서조절이 1단위 향상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365배 증가한다.
- 자기관리(목표관리)는 $B=0.246$, $p=0.031$, $\text{Exp}(B)=1.279$ (95% CI: 1.023, 1.599)로 목표관리 능력이 향상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279배 증가하며, 자기관리(학교공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계기술 및 책임있는 의사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성별은 $B=0.335$, $p=0.011$, $\text{Exp}(B)=1.398$ (95% CI: 1.079, 1.811)로, 성별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text{Exp}(B)$ 값이 1.398이므로,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고수준으로 나타날 확률이 1.398배 증가하며, 학년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르면 부모양육태도(따뜻함, 자율지지),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 및 자기관리(정서조절, 목표관리), 성별, 학년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와 자율지지, 교사 및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높은 삶의 만족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정서역량 중에서 자기인식(자기개념), 자기관리(정서조절), 자기관리(목표관리)이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사회적 지지 및 관심, 사회정서역량 함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9-7 삶의 만족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 변인	B	S.E.	Wald	p	Exp(B)	EXP(B)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부모양육태도(따뜻함)	0.531	0.156	11.577	<0.001	1.700	1.252	2.307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	0.438	0.144	9.240	0.002	1.549	1.168	2.054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0.092	0.113	0.654	0.419	1.096	0.878	1.368
교사와의 관계	0.411	0.087	22.246	<0.001	1.508	1.271	1.789
친구관계	0.638	0.105	36.828	<0.001	1.893	1.540	2.326
사회 정서 역량	자기인식(자기개념)	0.498	0.096	27.017	<0.001	1.646	1.364
	자기인식(정서지식)	-0.184	0.127	2.112	0.146	0.832	0.649
	사회적 인식	-0.075	0.109	0.473	0.491	0.928	0.749
	자기관리(정서조절)	0.311	0.089	12.171	<0.001	1.365	1.146
	자기관리(목표관리)	0.246	0.114	4.671	0.031	1.279	1.023
	자기관리(학교공부)	0.055	0.077	0.504	0.478	1.056	0.908
	관계기술	-0.014	0.098	0.021	0.886	0.986	0.814
	책임있는 의사결정	0.063	0.107	0.350	0.554	1.065	0.864
성별		0.335	0.132	6.413	0.011	1.398	1.079
학년		-0.341	0.077	19.858	<0.001	0.711	0.612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독립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조사한 경북지역의 중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1,7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첫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예측변인이 도출되었다.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은 중요도 점수 0.138, 정규화 중요도 100.0%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고, 부모양육태도의 따뜻함(중요도 0.135, 정규화 중요도 97.9%)과 자율지지(중요도 0.130, 정규화 중요도

94.1%)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의 구조제공도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다(중요도 0.123, 정규화 중요도 88.8%).

- 둘째,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관리(목표관리)(중요도 0.128, 정규화 중요도 92.4%)는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고, 교사와의 관계(중요도 0.125, 정규화 중요도 90.3%)도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친구관계(중요도 0.117, 정규화 중요도 84.5%)는 중요한 독립변인으로 드러났고,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관리(정서조절)(중요도 0.094, 정규화 중요도 68.0%)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확인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양육태도에서 따뜻함($B=0.531$, $\text{Exp}(B)=1.700$)과 자율지지($B=0.438$, $\text{Exp}(B)=1.549$)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부모가 따뜻하고 자율적인 지지를 제공할 때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각각 1.7배와 1.549배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제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와 자율지지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제공할 때 청소년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지적이며 긍정적이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조은정, 2021; 손신영, 2017; 유계환 외, 2022; 김혜원 외, 2010)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따뜻한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율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증진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과 예체능, 체험 활동, 캠핑 등의 다양한 가족 활동 프로그램, 자녀 발달 이해와 관련한 다양한 특강이 요구된다.
- 넷째, 교사와의 관계($B=0.411$, $\text{Exp}(B)=1.508$)는 긍정적일 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508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친구관계($B=0.638$, $\text{Exp}(B)=1.893$)는 삶의 만족도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893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타 선행연구(조소영, 2022; 정문숙 외, 2023; 박진규 외, 2018; 최희철 외, 2024; 김진희 외, 2017; 김선희 외, 2018)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따라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바람직한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교사들에게 상담에 대한 심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학업 및 생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행사, 지역사회 봉사 활동, 프로젝트 등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성도 있다.

- 친구들과의 긍정적이며 신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친구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협동학습, 팀 빌딩 활동 등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전략, 공감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따돌림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사회정서역량 중에서 자기인식(자기개념)($B=0.498$, $\text{Exp}(B)=1.646$)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개념이 긍정적인 청소년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기개념이 1단위 향상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6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인식(정서지식)과 사회적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에서 자기관리(정서조절)($B=0.311$, $\text{Exp}(B)=1.365$)과 자기관리(목표관리) ($B=0.246$, $\text{Exp}(B)=1.279$)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관계기술 및 책임있는 의사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정서역량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전연구(이연옥, 2011; 손유선, 2023; 김지연 외, 2023; 백예은 외, 2020)와 동일한 결과라서,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 강점, 약점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적 성찰과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관리(정서조절)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학업 및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자기관리(목표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 기술, 목표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성별($B=0.335$, $\text{Exp}(B)=1.398$)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확률이 1.398배 증가하며, 학년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런 결과는 성별과 학년에 따른 맞춤형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다양한 요인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한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정서역량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정서적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지역의 중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청소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표본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

성이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 다른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 각 시점에서 중요한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셋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등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여, 이들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 방법도 추가하여 연구를 심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교육적 개입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X

요약 및 제언



제 X 장

요약 및 제언

연구 개요 요약

- 최근 학교 사회에서는 사회·정서, 정신건강,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의 문제가 중요한 난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인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여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적 성장 및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강화는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학업 열의 및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정서역량이 높은 학생들은 심리정서적 안정감 경험, 건강 유지,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이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의 역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회정서·건강 지원,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업열의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수준 및 관련 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이 2024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북지역 중학생 1,7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은 1학년 667명, 2학년 494명, 3학년 5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 문항은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교사와의 관계]의 청취, 칭찬, 공부 기대감, [친구관계]의 시간공유, 고민상담, 비밀공유,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학업열의]의 몰두, 헌신, 활기, 효능감, [삶의 만족도]의 상황, 중요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

는 유레카(Eureka)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링크와 QR코드를 제공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 사회정서역량과 관련 변인들의 현 수준 및 영향 관계 분석을 위한 도구로 SPSS 28.0, Stata 16.0, SAS 및 Smart-PLS 3.0을 활용하였다. 먼저, 사회정서역량,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학업열의 및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해 기술통계를 통해 관측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항목별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수준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문항을 확인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평가하고 문항 신뢰도(Cronbach's α)를 측정하였다.
- 응답 비율과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년별 학생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통해 확인한 후,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이분산인 경우에는 Welch's ANOVA와 Games-Howell 검증을 사용하였다.
- [심화 분석1]에서는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변인들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정서역량의 매개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여 대상자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설명변인, 피설명변인, 매개변인의 자료 구조와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연구모델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부분최소제곱법(PLS)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측정모형의 평가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및 판별 타당도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 모형 분석에서는 내부분산팽창인자(VIF), 결정계수(R^2), 효과크기(f^2), 예측적합성(Q^2), 경로계수 및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수행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심화 분석2]에서는 의사결정나무모형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다양한 독립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빈도와 퍼센트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정규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행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적용하였고,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해석이 쉬운 모형을 제공하며, 다양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적 지지(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성별 및 학년 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따라서 본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생의 사회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과 관련 프로그램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의 한계로는 경상북도 일부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임에 따라, 경상북도로 전체 또는 국내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 사회정서역량 수준

-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는 평균 3.84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3.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는 3.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는 평균 4.07점으로 ‘그렇다’ 수준이며, 세부 설문 문항에서 ‘1.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4.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3.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사회적 인식(전체)]는 평균 4.19점으로 ‘그렇다’ 수준 이상이며, 세부 설문 문항은 ‘2.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는 4.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4.0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는 평균 3.19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이며,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3.3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는 3.0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는 평균 3.80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세부 설문 문항은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3.8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3.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추가적으로,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는 평균 3.06점으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는 ‘2.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3.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2.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기의 결과는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의 국내 조사결과에서의 정서조절 항목 결과 3.28점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 [관계기술(전체)]는 평균 3.51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치이며, 세부 설문 문항 내에서 ‘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3.6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3.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는 평균 3.92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치였으며, 세부 설문 문항 중에서 ‘2.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는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드러났고, ‘1.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는 3.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기술(전체)] 점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사회정서역량 조사의 타인관계 항목 3.48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 첫째, 학생들의 자기인식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자신의 강점과 능력 인식과 관련한 항목인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는 항목이 해당 영역 내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관련 심리 평가, 자기 인식과 이해, 장점 찾기, 유능성 경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Goleman, 1995). 둘째, 자기관리(정서조절) 능력은 평균 3.19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고, 특히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정서조절과 관련한 지원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한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험군의 학생들에 대한 조기선별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들이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정신치료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인식 경향이 강함에 따라 부모 또는 교사 대상의 심리상담과 정신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뇌호르몬에 따른 질병 유형에 대한 이해 교육도 요구될 것이다(정신의학신문,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1). 또한 주기적인 종합심리검사(아동의 인지, 정서상태, 성격 및 행동적 특성)를 통한 위험군 선별 및 지원이 요구되며, 정서표현과 조절능력 관련 세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예, 정서 다루기 프로그램, 정서/행동조절/문제해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Durlak et al., 20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셋째, 사회적 인식과 관계기술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활동의 확대 및 강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연구 결과를 확인하면, 관계기술 항목은 '보통이다' 보다는 높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점수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친구들과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인식과 관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강세구 외, 2011; Johnson et al., 1989; 마승연 외, 2009). 또한 관계성 증진 및 회복을 위한, 사회정서역량에 부합하는 친밀감 형성, 타인이해, 관계 스트레스 해소법, 다른 문화 및 배경의 친구 이해, 존중, 갈등 대처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가 적절할 것이다. 넷째,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와 관련하여서는 평균 3.06점으로 '보통이다' 수준이며, 특히 '3.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2.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해당 역량과 관련하여서는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한 내 공부 또는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적 공부 실행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및 동기 부여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학습유형진단, 학습법 교육 및 상담, 자기주도 학습전략 수립 및 학습 스타일 강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도덕 및 윤리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청소년기에 다양하게 습득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인된 후에도 정직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Rest, 1986).

-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사회정서역량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아직은 다양하게 개발 및 운영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회정서역량의 각 하위 요소에 부합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적용, 효과성 검증, 정책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 강화와 더불어 학업 성취도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는 남자 3.87점, 여자 3.81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1.376$, $p=0.169$),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는 남자 4.05점, 여자 4.09점이었고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t=-1.251$, $p=0.211$). [사회적 인식(전체)]는 남자 4.11점, 여자 4.28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4.586$, $p<0.001$). 자기인식(자기개념)과 자기인식(정서지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여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는 남자 3.23점, 여자 3.15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으며($t=1.605$, $p=0.109$),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는 남자 3.80점, 여자 3.81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0.173$, $p=0.863$),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는 남자 3.08점, 여자 3.05점으로 통계적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t=0.559$, $p=0.577$). [관계기술(전체)]는 남자 3.49점, 여자 3.53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t=-0.919$, $p=0.358$),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은 남자 3.84점, 여자 4.02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었다($t=-4.466$, $p<0.001$). 자기관리(정서조절), 자기관리(목표관리), 자기관리(학교공부) 항목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정서 조절, 목표 설정 및 관리, 학교 공부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기술 항목에서도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이는 여학생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좀 더 나은 것을 뜻한다.
- 첫째, 사회적 인식 능력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세밀한 적용이 요구된다. 둘째,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역량에서는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성별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Locke et al., 2002).

❖ 학년별 사회정서역량 수준 비교 분석

- [자기인식(자기개념)(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93점

(N=667), 2학년은 3.79점(N=494), 3학년은 3.77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84점으로 나타났고, 분석 결과 1학년이 2학년과 3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자기인식(정서지식)(전체)]와 관련하여, 1학년은 평균 4.08점(N=667), 2학년은 4.06점(N=494), 3학년은 4.07점(N=555)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07점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인식(전체)]에 대한 1학년은 평균 4.26점(N=667), 2학년은 4.11점(N=494), 3학년은 4.19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19점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자기관리(정서조절)(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에서는, 1학년은 평균 3.28점(N=667), 2학년은 3.19점(N=494), 3학년은 3.08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19점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후분석 결과, 1학년의 평균이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다. [자기관리(목표관리)(전체)]에 대하여 1학년은 평균 3.94점(N=667), 2학년은 3.74점(N=494), 3학년은 3.69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80점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학교공부)(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15점(N=667), 2학년은 3.08점(N=494), 3학년은 2.94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06점으로 확인되었고, 학년별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사후 분석 결과, 1학년의 평균이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관계기술(전체)]에 대해서 1학년은 평균 3.62점(N=667), 2학년은 3.45점(N=494), 3학년은 3.45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51점으로 확인되었고, 1학년의 평균이 2학년과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의사결정(전체)]에 대한 학년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97점(N=667), 2학년은 3.89점(N=494), 3학년은 3.90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92점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 첫째, 대부분의 사회정서역량에서 1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도 해당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Zins et al., 2004), 둘째, 학년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사회정서 역량 수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각 학년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Durlak et al., 2011). 셋째, 각 학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1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와 감정 인식의 기초를 배우는 단계로, 해당 시기에는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며, 감정표현 및 인식, 기본 사회적 기술, 자기관리 및 감정 조절 등의 학습 및 경험이 요구된다. 2학년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와 감정 조절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임에 따라, 갈등 해결 및 의사소통 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며, 갈등 상황 해결 방안 모색, 의사소통 기술 훈련, 교과 및 비교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 활동 수행이 적절할 것이다. 3학년이 되었을 때에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관리와 타인 배려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 이 시기의 프로그램은 리더십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훈련, 학교 외부의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책임감을 배양하는 것도 요구된다.

❖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 [부모양육태도(파스함)(전체)]는 평균 4.37점으로 ‘그렇다’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는 각 4.3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확인되었다.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전체)]는 평균 4.24점으로 ‘그렇다’ 보다 높으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4.3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3.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와 ‘4.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각 4.1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결과 도출되었다.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전체)]는 평균 4.10점으로 ‘그렇다’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는 4.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는 4.0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사와의 관계(전체)]는 평균 3.87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선생님은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는 4.1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는 3.5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구관계(전체)]는 평균 3.90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4.2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3.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업열의(헌신)(전체)]는 평균 3.63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2. 나는 공부란 도전에 불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3.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3.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열의(활기)(전체)]는 평균 2.76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낮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1.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는 2.8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4.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는 2.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열의(효능감)(전체)]는 평균 2.92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낮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4.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3.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2.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2.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학업열의(몰두)(전체)]는 평균 3.07점으로 ‘보통이다’에 가까운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는 3.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2.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는 2.7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 [삶의 만족도(전체)]는 평균 3.52점으로 ‘보통이다’ 보다 높은 수준이며, 설문 문항 중에서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는 3.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고,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는 3.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인 것으로 본 연구 결과에 확인되었다.
- 첫째, 부모의 따뜻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모두가 ‘그렇다’ 이상을 보여, 전반적으로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심화 분석에서의 결과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타 선행연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율성지지 및 따뜻한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정서역량 수준을 고역량으로 이끄는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확인되었고(김형석 외, 2021:149-153, 2022:241-247), 모양육행동 연구에서 지지적 양육과 행동적 통제가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단비 외, 2018:85-90).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신뢰하고 자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지원하는 것은 자녀의 사회 및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부모양육태도검사(PAT, Parenting Attitude Test) 등을 통하여,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파악, 이에 따른 해석 및 상담을 활성화하고, 부모-자녀 양육태도, 의사소통, 자녀 감정 이해, 자녀양육 코칭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둘째,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선생님은 나에게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의 문항은 ‘보통이다’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항목보다는 낮아, 학생 개인별 상담 시간을 좀 더 확대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교사-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본 심화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이전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역량의 핵심적인 설명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문재영 외, 2022:82-83), 교사-유아의 관계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일수록 사회·정서적 행동에서 친사회성 강화, 고립·위축성 해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기금심, 2004:30-36). 따라서 교사-학생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음악, 미술, 운동 등의 체험활동의 확대와 최근의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다양한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행동별 전문교육 및 가이드북 제공, 선배 교사들로부터의 학생과의 관계 개선, 대화, 공감 등의 코칭, 심리정서와 관련한 심화 상담 교육 등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친구관계는 평균 3.90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이었으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친구들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음은 그 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심화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친구관계 형성은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다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 형성이 사회정서역량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김지연 외, 2023:1628-1630), 한국아동·청소년패

넬조사의 청소년의 원활한 친구관계 형성은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역량의 집단으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형석 외, 2021:149-153). 따라서 최근의 학교는 다양한 문화 및 배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므로, 다문화 학생, 몸이 불편한 학생, 새터민 등에 대한 이해 교육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심리상담, 예방교육, 가해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전문적 지원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교 안팎의 집단활동을 통한 친밀한 친구관계 형성 및 대인관계 습득 프로그램 운영, 미술, 음악, 공연, 스포츠 등의 다채로운 동아리 활성화도 요구된다. 넷째, 학생들의 학업열의는 보통 수준이나 활기와 효능감은 낮은 편이라서, 이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공부에 대한 활기와 아침에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AMT(Academic Motivation Test) 또는 MST(Motivation Style Test Form Learner) 등의 학업동기검사를 정례화하여 학업동기를 측정 및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 학업유형을 이해하여, 이에 적합한 학습법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기에는 본인에 맞는 학습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학습동기 및 흥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최주영 외, 2018; 김영희, 2014), 학습동기 강화 및 전략 교육을 통하여, 학생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집중력 강화, 시간관리, 효과적인 기억 방법, 시험 준비, 노트필기 방법 등의 실제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학업열의 및 동기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24년부터 모든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된다면, 학생의 학업동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교육청, 2024). 추가적으로, 기초학력 수준 진단 및 보정을 통한 성장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개인의 학업에 대한 이력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자신의 삶을 다시 살더라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학생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성별에 따른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 [부모양육태도(따스함)(전체)]는 남자 4.36점, 여자 4.3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t=-0.450$, $p=0.653$),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전체)]는 남자 4.22점, 여자 4.27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t=-1.279$, $p=0.201$). 그리고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전체)]는 남자 4.09점, 여자 4.10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t=-0.270$, $p=0.787$).
- [교사와의 관계(전체)]는 남자 3.85점, 여자 3.89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었고($t=-0.831$, $p=0.406$), [친구관계(전체)]는 남자 3.77점, 여자 4.03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6.029$, $p<0.001$).
- [학업열의(헌신)(전체)]는 남자 3.56점, 여자 3.7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및 조사

되었고($t=-3.092$, $p=0.002$), [학업열의(활기)(전체)]는 남자 2.83점, 여자 2.68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t=2.655$, $p=0.008$). [학업열의(효능감)(전체)]는 남자 3.01점, 여자 2.81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산출되었고($t=3.518$, $p<0.001$), [학업열의(몰두)(전체)]는 남자 3.05점, 여자 3.08점으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0.707$, $p=0.480$). [삶의 만족도(전체)]는 남자 3.57점, 여자 3.46점으로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t=2.194$, $p=0.028$).

- 첫째, 부모양육태도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함과 지지, 구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에서 성별 간 차이가 없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교사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친구관계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이는 여학생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업열의 항목에서 성별 간 차이가 있었으며, 헌신에서는 여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활기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효능감에서도 남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학업에 더 헌신적이지만, 남학생들이 학업에서 더 활기차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친구관계 개선 및 학업열의와 관련하여서는 성별에 따른 다른 특성을 보임에 따라, 또래관계 프로그램 운영 및 학업열의와 관련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학년별 사회정서역량의 관련 변인 수준 비교 분석

- [부모양육태도(따스함)]와 관련하여 1학년은 평균 4.42점($N=667$), 2학년은 4.37점($N=494$), 3학년은 4.32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37점으로 드러났고, 학년 간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든 학년에서 유사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부모양육태도(자율지지)]에 대한 1학년은 평균 4.31점($N=667$), 2학년은 4.22점($N=494$), 3학년은 평균 4.17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24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 결과 1학년의 점수가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2학년은 다른 학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에 대하여 1학년은 평균 4.17점($N=667$), 2학년은 4.11점($N=494$), 3학년은 평균 4.00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4.10점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구조제공) 점수는 1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90점($N=667$), 2학년은 3.80점($N=494$), 3학년은 3.90점($N=555$)으로 조사되었고, 1학년과 3학년의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87점으로 분석되었다. [친구관계]에 대한 1학년은 평균 3.95점($N=667$), 2학년은 3.85점($N=494$), 3학년은 3.88점($N=555$)으로 드러났고,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90점으로 확인되었다.

- [학업열의(헌신)]에 대해 1학년은 평균 3.67점(N=667), 2학년은 3.61점(N=494), 3학년은 3.61점(N=555)으로 조사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63점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열의(활기)]와 관련하여 1학년은 평균 2.80점(N=667), 2학년은 2.79점(N=494), 3학년은 2.67점(N=555)으로 조사되었고,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2.76점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열의(효능감)]에 대한 1학년은 평균 3.01점(N=667), 2학년은 2.92점(N=494), 3학년은 2.79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2.9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Post-hoc 분석 결과, 1학년이 3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업열의(몰두)]와 관련하여 1학년은 평균 3.10점(N=667), 2학년은 3.07점(N=494), 3학년은 3.02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07점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1학년은 평균 3.70점(N=667), 2학년은 3.45점(N=494), 3학년은 3.36점(N=555)으로 확인되었으며, 1학년의 평균이 전체 학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학생(N=1,716)의 평균은 3.52점으로 산출되었으며, 1학년 학생들이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양육태도는 1학년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소 감소하는 현상이 있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 또는 민간 차원의 부모-자녀관계 회복, 양육관련 상담,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해소, 아동청소년기 심리정서 상태 이해, 건강한 부모역할, 양육스트레스 해소 방안, 부모양육 정보 등의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된다. 특히 위기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꾸준히 높은 수준의 부모양육태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친구관계, 학업열의, 삶의 만족도에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및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성장하면서도 친구관계성 문제, 학업열의 및 동기문제,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나이와 상관없이 균형되게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심화 분석1]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 탐색: 사회정서역량 매개효과 중심으로

-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및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조모형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1,71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전체 인원 중에서 남자 871명(50.8%), 여자 845명(49.2%)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667명(38.9%), 2학년 494명(28.8%), 3학년 555명(32.3%)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변인의 평균값은 부모양육태도 4.098~4.371점, 교사와의 관계 3.796~3.948점, 친구관계 3.708~4.115점, 사회정서역량 3.336~4.191점, 학업열의 2.756~3.631점이었으며,

-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연구변인인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및 학업열의 간에 전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먼저,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221$, $p<.001$),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6$, $p=.216$).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210$, $p<.001$), 학업열의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beta=.123$, $p<.001$).
 - 친구관계는 사회정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beta=.440$, $p<.001$), 학업열의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113$, $p<.001$). 사회정서역량은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62$, $p<.001$).
 - 통제변인인 성별은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beta=-.024$, $p=.168$), 학업열의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052$, $p=.007$). 또한 학년 통제변인은 사회정서역량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beta=-.049$, $p=.005$), 학년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5$, $p=.799$).
 - 간접효과인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사회정서역량을 완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02$, $p<.001$), 교사와의 관계는 사회정서역량을 부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97$, $p<.001$). 친구관계 역시 사회정서역량을 부분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beta=.203$, $p<.001$). 통제변인인 성별이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며($\beta=-.011$, $p=.173$), 반면에 통제변인인 학년은 사회정서역량을 매개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eta=-.023$, $p=.005$).
 - 첫째, 본 연구 결과는 따스함, 자율지지, 구조제공의 부모양육태도, 청취, 밝은 호명, 인사 등의 교사와의 관계, 시간공유, 고민상담, 이야기, 비밀공유 등의 친구관계 형성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부모가 아동청소년에게 행해지는 단순한 훈육 및 정서적 지지가 아니라, 자녀의 사회적 기술 함양 및 정서적 안정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도 학생들에게 학업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친구와의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을 통해 청소년은 사회적 기술 함양 및 사회정서적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양육태도, 자녀행동 코칭, 자녀감정 이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부모-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문화체험 및 가족 공감 및 소통 프로그램 개설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DISC 성격유형검사, MBTI 성향 검사, 가족 구성원 장점/단점 파악 및 가족 소통을 돕는 인성교육 활성화가 요구된다. 둘째, 교사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역량 강화 연수 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위험학생에 대한 상담 수준을 높이고, 교사들 대상으로 좀 더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정서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력 강화를 위한 뇌 과학, 감정관련 신경전달물질 등에 대한 교육도 요구된다. 그리고 학생과의 정기적인 상담 시간 또는 주간을 설

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하여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수업 및 활동 프로그램 구성도 요구된다. 특히 사회정서학습을 하면, 학생 본인의 정서 및 장단점을 이해하고 정서적 경험과 표현 조절이 가능하며, 학생 주변의 타인의 입장과 정서 이해를 통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돕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어(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생에게 있어서 교사 및 친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은 학업열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어, 교사로부터의 지지와 상호 피드백 활동 강화로 학업열의 및 성취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래와 다양한 문학, 예술, 체육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협력적이고 상호 지지적인 친구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친구 간의 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상담,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업열의에 직접적인 효과 및 사회적 지지와 학업열의 간에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본 연구에서 보임에 따라, 사회정서역량 함양이 왜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 또는 정서적 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서도 학업열의 증진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고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정서역량의 자기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관리,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세부적인 하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도입, 사회정서학습 기반 교재 및 교수학습 모델 개발, 지원정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 [심화 분석2] 의사결정나무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요인 탐색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독립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조사한 경북지역의 중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1,7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 부모양육태도의 따뜻함과 자율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의 구조제공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관리(목표관리)와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와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관리(정서조절)도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부모의 따뜻함과 자율지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쳐, 부모가 따뜻하고 자율적인 지지를 제공할 때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각각 1.7배와 1.54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1.508배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친구관계도 삶의 만족도를 1.893배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기개념이 1단위 향상될 때 삶의 만족도가 1.6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관리(정서조절)와 자기관리(목표관리)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 첫째,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제공할 때 청소년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따뜻한 부모-자녀 관계 강화 프로그램’,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자율지지 강화 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증진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과 예체능, 체험 활동, 캠핑 등의 다양한 가족 활동 프로그램, 자녀 발달 이해와 관련한 다양한 특강이 요구된다.
- 둘째,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바람직한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교사들에게 상담에 대한 심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학업 및 생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행사, 지역사회 봉사 활동, 프로젝트 등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성도 있다. 추가적으로, 친구들과의 긍정적이며 신뢰적인 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된다. 친구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협동학습, 팀 빌딩 활동 등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운영(의사소통 기술, 갈등 해결 전략, 공감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따돌림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셋째,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회정서역량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 강점, 약점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특강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인적 성찰과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관리(정서조절)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학업 및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자기관리(목표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 기술, 목표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부록]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지

〈부록1〉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현 수준 파악 및 이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서역량은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주로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달성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장)에 의거 응답자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므로 정확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이동욱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다음 질문은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긴장할 때 몸이 반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기분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기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기분이 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반 친구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점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학생들이 나와 다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11) 화가 나 있을 때도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좌절감을 느껴도 하던 일을 끝까지 마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실수했을 때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공부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공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20) 계획적으로 공부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평소 자주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친구들에게 화가 났을 때,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반 친구들과 한 약속을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질문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질문은 교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를 자주 칭찬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질문은 친구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질문은 학업열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공부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부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공부를 시작하면 꼭 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5)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 질문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이상에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삶의 상황들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냈다.	①	②	③	④	⑤
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강세구·김재호. 2011. “식물 가꾸기 협동학습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3권 3호, 1-22.
- 강지혜. 2022. “대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과 공유정신모형이 팀 효능감과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교육청. 2024. “2024학년도 질문이 넘치는 교실 운영 계획 발표.” 안동: 경상북도교육청.
- 고국영·김은정·이상수. 2015. “초등교사의 사회정서역량이 학습자의 사회정서역량, 공동체의식,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2권 4호, 219-239.
- 고현·박신화·백지성. 2020. “유아 놀이성과 사회정서발달 관계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동아인문학』 제53집, 325-352.
- 교육부. 2023a. “교육부,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주목: 사회정서성장지원과 신설로 학생·교사 정신건강 지원.”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b.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c. “교권보호 종합대책 관련 보도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세종: 교육부.
- 권대훈. 2019. “학업가치, 낙관주의, 학업정서, 내재적 동기, 학업관여 간의 구조적 관계.” 『교사교육연구』 제58권 4호, 669-682.
- 기금심. 2004.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교사-유아관계가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채은·이예진·노영민·노진원. 201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인식 정도의 관련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대한보건연구』 제45권 1호, 11-22.
- 김근진·이현철. 2015. “교사-학생관계의 변화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분석(panel data analysis)을 사용하여.” 『교사교육연구』 제54권 1호, 59-73.
- 김남희·전주성.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 관계에서 그릿(grit)과 삶의 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3호, 627-647.
- 김단비·신태섭. 2018. “부모양육행동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제49권 3호, 75-99.
- 김대명·유계환. 2022.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관계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제31권 3호, 41-66.
- 김미경.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제9권 4호, 21-38.
- 김미루·김은하. 2023.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및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제30권 9호, 133-155.

- 김미선·정현희. 2021.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학생-교사관계, 우울 간의 중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28권 10호, 549-575.
- 김별아·신태섭. 202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지원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0권 3호, 155-177.
- 김선희·백진아. 2018.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9호, 477-487.
- 김영희. 2014. “실습교육 평가방법에 따른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과정.”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5권 10호, 6176-6186.
- 김은정. 2010. “한국판 친구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6호, 197-213.
- 김은정·이상수. 2015. “사회과 거꾸로 수업에서 중학생의 학습양식, 사회정서역량, 학업성취도 및 수업만족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6호, 367-387.
- 김종백·김남희. 2009. “교원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 개발과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23권 4호, 697-714.
- 김지언·신태섭. 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정서역량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제14권 1호, 1621-1635.
- 김진아. 2015.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3호, 359-377.
- 김진희·서지은·안유진·유정은·유지은·임은지·차지은. 2017. “대학생의 친구지지가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간호과학지』 제21권 1호, 19-28.
- 김춘화·유홍녕·이상수. 2015. “중국인 유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1호, 23-41.
- 김태명·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제24권 3호, 313-333.
- 김형석·김재철. 2021. “중학교 1학년 사회정서역량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제28권 5호, 141-160.
- 김형석·김재철. 2022. “부모 자녀 관계의 사회정서역량 잠재전이 유형과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제29권 2호, 233-255.
- 김혜원·장윤옥. 2016.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4권 5호, 99-117.
- 김혜원·조성연·김민. 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제48권 5호, 49-60.
- 김희연·조규판. 2020.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11호, 501-520.

- 김희정·김용구. 2023. “부모코칭역량이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긍정심리 자본의 매개효과.” 『코칭연구』 제16권 1호, 75-98.
- 도미향·윤지영. 2004. “외동이와 형제아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제25권 3호, 75-85.
- 마승연·이만석·이한주. 2009. “협동학습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ADHD 중학생의 교우관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4호, 603-617.
- 문재영·전서영. 2022. “교사의 인식 및 태도가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에서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8권 2호, 75-85.
- 민미희. 2022. “부정적 양육태도 및 친구관계가 아동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및 성별간 다집단 분석.” 『인간발달연구』 제29권 3호, 1-22.
- 박선녀. 2022.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이 또래괴롭힘 방어행동 및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학술대회』 294-305.
- 박영순·김판희. 201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23권 4호, 129-149.
- 박은주. 2023.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제20권 3호, 23-42.
- 박종열. 202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진규·김태연. 2018. “교사의 진정성리더십이 학생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5호, 115-142.
- 배병렬. 2018. 『Spss Amos Lisrel Smart 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분석』. 서울: 청람.
- 배성만·홍지영·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2권 5호, 325-344.
- 배현민·배천웅. 2018. “고등학교 신입생의 또래애착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제25권 1호, 79-93.
- 손신영. 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18권 3호, 29-44.
- 송경은·이아라. 2015. “청소년의 자기불일치, 자기은폐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친구관계 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12호, 171-192.
- 신건권. 2018.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여성가족부. 2022. “2022년 청소년 통계 발표.” 서울: 여성가족부.
- 오중근. 2021.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동료의 관계성 지지가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 및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26권 1호, 73-86.

- 유고은·이민영. 2015. “친구관계의 질 척도(FQS)의 타당화 연구: 초기 청소년기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2권 1호, 57-71.
- 유다미·안도희. 2015. “청소년들의 관계성(교사-학생), 정서조절 및 학습몰입 간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23권 3호, 219-239.
- 유미영·홍혜영. 201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4권 4호, 915-937.
- 유정아. 2024.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학업무기력의 이중 매개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제22권, 21-38.
- 이경미·윤채영. 2020.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1호, 1245-1264.
- 이명주. 2017. “교권의 개념적 구조와 교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논총』 제54권 3호, 1-28.
- 이서연. 202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34권 3호, 49-65.
- 이성주·김수향. 2019. “부모의 양육 태도가 만 5세 유아의 또래관계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부모학회지』 제5권 1호, 31-54.
- 이원례·한천우. 2022. “중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 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9권 9호, 53-81.
- 이의빈·김진원. 2022.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29-158.
- 이자영·이상민. 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제24권 1호, 131-147.
- 이정렬·김은정·성유경·손나영. 2023. “중학생용 사회정서역량 척도 타당화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70집, 1-35.
- 이현아·조한익. 2013. “완벽주의와 학업열의 및 학업소진과의 관계: 동기와 목표과정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5권 3호, 575-601.
- 임선아·이순아. 2022. “초등학교 고학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정서문제, 사회관계, 학습시간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31권 3호, 159-177.
- 임효진·이소라. 2020.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제31권 1호, 109-127.
- 장수연·정제영. 2020. “교사 및 친구 관계, 그릿, 학업 무기력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 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제41권 4호, 203-234.
- 장윤옥·정서린. 2017.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제65권 1호, 195-223.
- 장은지·김민석. 2022.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성이 청소년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3호, 55-76.

- 정문경.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6호, 803-819.
- 정문숙·조규판. 2023.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관계 및 교사지지와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취업진로연구』 제13권 2호, 25-55.
- 정민희. 2020.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역량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2호, 63-87.
- 정신의학신문. 2021. “자녀가 정신과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된 부모의 세 가지 반응.”
- 정연홍·유형근. 2015.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예방 및 개입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5권 9호, 789-808.
- 정유경. 2023. “부모의 구조제공이 중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혜·김현주·손은령. 2021. “부모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학생의 학년 변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8호, 67-85.
- 조가람. 2016. “학업중독이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소영·김진숙. 202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9권 12호, 59-87.
- 조은희. 2022. “부모양육태도, 친구지지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질병관리청. 2023.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청주: 질병관리청.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1. “코로나19 사회재난 상황 속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최록빈. 2024.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긍정 양육태도가 사회정서역량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선옥·염보아·이종헌·김연재. 2016. “교권침해 실태 및 제도적 개선 방안.”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최유림·정혜원. 2024.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 학업열의 변화 양상과 예측변인의 동시 및 지연 효과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제25권 1호, 1-28.
- 최은지·신태섭. 2020. “청소년이 지각한 학급풍토와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과의 관계: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제51권 3호, 193-217.
- 최종후. 1998. 『(Answertree를 이용한)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분석』. 서울: SPSS아카데미.

- 최주영·김경희. 2018. “학습부진 대학생을 위한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12호, 87-95.
- 최진·권호장. 2016.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2호, 39-45.
- 최혜선·한세영.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중학생의 그릿,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제13권 1호, 103-125.
- 최희철·이미아·김영미·강혜진. 2024. “중학생의 긍정적 정서, 학업적 자아개념,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계.” 『한국교육』 제51권 1호, 179-211.
- 통계청. 2020. 한국 청소년 자살률 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2.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대전: 통계청.
- 푸른나무재단. 2023. “교육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결과.” 서울: 푸른나무재단.
- 하채연. 2013. “팀 기반 학습이 초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정서지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2차년도) 보고서』.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0.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조사: 국제공동연구(IV)』.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진단 도구 및 지도·지원 자료 개발』.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2023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우진·김현지·명이·이상수. 2019. “중등학교 학생의 사회정서역량과 성취정서 간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27권 1호, 95-118.
- 현동문. 2023.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458.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103.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
-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iglan, A., Brennan, P. A., Foster, S. L., & Holder, J. D. (Eds.). 2004. *Helping Adolescents at Risk: Prevention of Multiple Problem Behaviors*. New York: Guilford Press.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 Bishop, C. M. 2006. *Pattern Recognition and Machine Learning*. Springer.
 - Bornstein, M. H., Hahn, C., & Haynes, O. M. 2010. "Social competence,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al adjustment from early childhood through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cascad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4), 717-735.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CASEL. 2015. *2015 CASEL Guide: Effectiv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 CASEL. 2020. "What is 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https://casel.org/what-is-sel/>)
 - Chin, W. W. 1998.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22(1), vii-xvi.
 - Cohen, J. 2013.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Routledge.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Denham, S. A., & Brown, C. 2010. "Plays nice with others: Social-emotional learning and academic succ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1(5), 652-680.
 - Dijkstra, T. K., & Henseler, J. 2015. "Consistent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MIS Quarterly*, 39(2), 297-316.
 - Durlak, J. A., Domitrovich, C. E., Weissberg, R. P., & Gullotta, T. P. (Eds.). 2015. *Handbook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Guilford Publications.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1), 405-432.
- Elias, M. J., & Arnold, H. 2006. *The Educator's Guide to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al-Emotional Learning in the Classroom*.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
- Fornell, C., & Cha, J. 1994. "Partial Least Squares." *Advanced Methods in Marketing Research*, 407, 52-78.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Geisser, S. 1974. "A Predictive Approach to the Random Effect Model." *Biometrika*, 61(1), 101-107.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n, J., Pei, J., & Tong, H. 2022. *Data mining: concepts and techniques*. Morgan Kaufmann.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hips." In P. H.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ew York: John Wiley & Sons.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 115-135.
- Hulland, J. 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4), 195-204.
- Johnson, D. W., & Johnson, R. T. 1989. *Cooperation and Competition: Theory and Research*. Edina, MN: Interaction Book Company.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 Locke, E. A., & Latham, G. P. 2002.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57(9), 705-717.
 - Merrell, K. W., & Gueldner, B. A. 2011.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Framework for Promoting Mental Health and Reducing Risk Behavior in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34(3), 460-473.
 - Oberle, E., Schonert-Reichl, K. A., Hertzman, C., & Zumbo, B. D. 2014. "Social-emotional competencies make the grade: Predicting academic succes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138-147.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J: Prentice Hall.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Quinlan, J. R. 1986. "Induction of decision trees." *Machine Learning* 1: 81-106.
 - Resnik, H., & Elias, M. J. 2003. "Enhancing school-based prevention and youth development through coordinated social, emotional, and academic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58(6-7), 466.
 -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Westport: Praeger Publishers.
 -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chaufeli, W. B., Martez, I. M., Marques, P.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a.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b.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71-92.
 - Shaffer, J. P. 1995. "Multiple Hypothesis Test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1), 561-584.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 Teo, T. S. H., Srivastava, S. C., & Jiang, L. I. 2008. "Trust and Electronic Government Success: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5(3), 99-132.
 - Trickett, E. J., & Moos, R. H. 1973. "Social environment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classroom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1), 93-102.

- Watson, C. 1988. *Psychology from the Standpoint of a Behaviorist* (2nd ed.). Philadelphia: Lippincott.
- Werts, C. E., Linn, R. L., & Jöreskog, K. G. 1974. "Intraclass Reliability Estimates: Testing Structural Assump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1), 25-33.
- Wubbels, T., Creton, H., & Holvast, A. 1988. "Undesirable classroom situations." *Interchange*, 19(2), 25-40.
- Yang Yue·신태섭. 2021. "중국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 기본심리욕구, 사회정서역량 간의 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7권 1호, 285-314.
- Zins, J. E., Weissberg, R. P., Wang, M. C., & Walberg, H. J. 2004. *Building Academic Success o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Say?*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학생 사회정서역량 수준 실태 분석 연구

발 행 일 2024년 9월
발 행 인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박용휘
발 행 처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주 소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정책연구부
전 화 번 호 054-840-2269
홈 페이지 <https://www.gbe.kr/gber/>
